



## 희 계

日本이 사랑하는 가라테(空手)도 그 純度는 대단한게 못 되나 보다.

「기네스·북」 78年版에 의하면 가라테는 原來 紀元 6世紀 中國 武術인 「츄안·화(젬포)」에서 비롯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1920年代에 비로서 現代 「가라테」의 創始者인 「기친·후나코시」가 日本에 導入, 傳播시킨데 불과하다. 世界的인 公信力을 지닌 「기네스·북」이기에 조금 더 살펴 보았더니 中國 古有의 武術인양 알려지고 있는 「쿵후」(功夫)도 따지고 보면 「네팔」이나 「티베트」 高原에서 그 紀元을 찾아볼 수 있단다. 그것이 印度를 거쳐 中國의 寺刹에 번지게 되었다는 얘기였다. 그렇다면 이 역시 純度を 따질 때 고개가 가웃거리 진다.

다음에 우리의 跆拳道에 對한 說明이 나온다. 숨을 죽이고 들여다 본 후 저윽히 안심된건 跆拳道를 韓國 古有의 武道로 九段까지 等級을 定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더 以上 言及이 없는 것도 당연하겠다. 紀元이 한국이고 成長過程 또한 그렇기에 贅言이 不要겠다. 純粹하다는 말이다.

나는 가끔 跆拳道 道服의 흰색을 물끄러미 바라 볼 때가 종종 있다. 지난 九月 香港에서 열렸던 第三回 亞細亞 跆拳道選手權大會에서도 나는 本部席에 앉아 우리 選手團의 奮戰 모습을 지켜 보다 어느 틈에 그들의 흰 道服을 정신없이 바라 보며 집 생각을 하느냐는 조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언제 부터인가 이 버릇은 最近 부쩍 그 度가 심해져 종종 옆자리에 外國 貴賓을 앉혀 놓고도 한참 그런 無我境을 홀로 즐기다 나 自身 깜짝 놀라기 일쑤이다. 그러나 내가 흰 道服을 바라 보면서 속으로 느끼는 것은 분명 한 가지 뿐이다.

희다는 것, 그건 純粹한 것과 通한다. 우리 民族이 白衣民族이라고 불리운 것, 倍達民族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들은 모두가 純粹하다는 意味에서 바탕을 두고 있다. 간혹 純白한 것은 弱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지만 흰 것은 결코 나약한 색깔이 아니다. 그 보다는 純粹를 바탕으로 無限한 包容力, 無盡藏한 힘, 共生하는 團結力을

# 되 자

世界跆拳道聯盟 總裁 金 雲 龍  
大韓跆拳道協會 會長

象徴하는 것이라고 나는主張하고 싶다. 그런意味에서 나는 또 柔道の 高手級에 對한 儀典方式을 좋아한다. 柔道에서 十段은 現在 불과 七名 뿐이라는 데 붉은 벨트이다. 十一段 부터는 實存하지 않은 名目上の 段數인데 十一段도 붉은 벨트이다 十二段은 오히려 흰 띠가 된다. 다만 그 흰 띠는 어느 흰 띠 보다 幅이 두 배 넓은 것으로 두르게 되어 있다. 흰 것, 純粹한 것의 힘은 그렇게 表現되어진다. 깊어질수록 練磨될수록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묻혀 비로서 結實과 連結지어 지듯 흰 것의 無限大한 可能性 無在不所의 力量을 나는 崇尚하고 프다. 柔道는 日本이 宗主國이라지만 世界的 記錄을 거의 西歐人들이 쥐고 있는 實情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미 日本의 흰색은 바래가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反對로 新興 西歐는 흰색에 透徹하다. 이를테면 世界 最強의 柔道 對決은 지난 76年 8月27일부터 31日 사이에 樹立됐다. 英國의 「칸·브리어」 柔道 클럽의 2個팀(1個팀 6名式)이 團體對抗 型式을 벌인 競技는 5分式 계속돼 무려 1백 時間의 對練 記錄을 세우고 끝났다. 最大 世界選手權 保有者인 和蘭의 「빌헬름·루스카」는 日本 選手들을 보기 좋게 꺾어 67年, 71年 世界選手權 및 72年 뮌헨 올림픽 헤비급 無制限級 등 4대 세계타이틀을 獨占한 그의 秘訣 또한 純粹한 힘이었다. 日本의 機巧를 위에서 내리 누른 單백한 힘인 것이다.

우리는 今年 한 해도 많은 일을 이룩했다, 해야 할 일도 많다. 일을 하려니가 雜音도 摩擦도 失手도 따른다. 當面課題로 館統合의 內在的 問題 뿐 아니라 跆拳道 宗主國으로서의 世界 統轄權 維持, 海外師範 派遣 및 世界跆拳道 家族 結束 等の 課題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럴수록 희게 되어 쥘다. 純粹해져야 쥘다. 희게되면 얻을 것이요, 雅量이 생길 것이요, 결국은 원대한 理想과 追求하는 目的을 達成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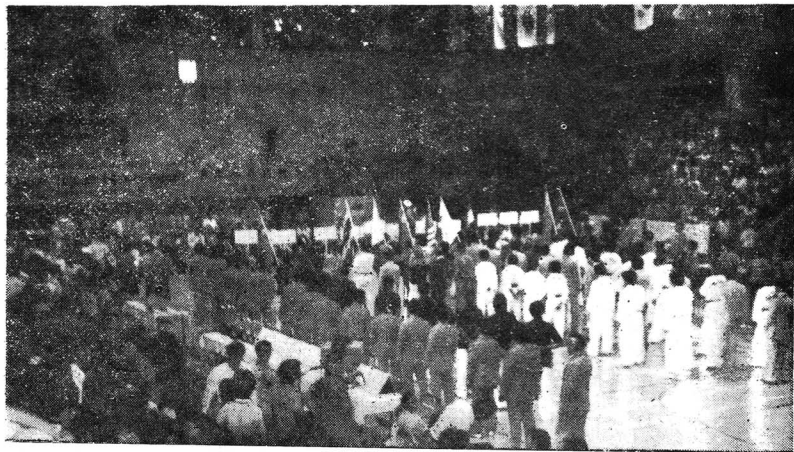
깊어 가는 가을, 道服을 바라보다 문득 느낀 일이다.



## 第三回 亞細亞 跆拳道大會

### 3rd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韓國 八體級 席卷 三連勝』



第三回 亞細亞 跆拳道 選手權大會가 1978年 9月 8日 Hong Kong의 맥퍼슨 스타디움에서 이천여명의 관객과 관계 귀빈 여러분 및 아시아지역 11個國에서 참가한 60여 명의 選手들이 모인 가운데 개막되었다.

各參加國 選手團은 홍콩 보이스카웃이 든 自國 피켈과 國旗를 앞세우고 일렬종대로 질서정연하게 입장했는데, 國家名 알파벳 순으로 된 입장식엔 오스트렐리아, 부루네이, 캄, 이란,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싱가포르, 타이란드, 이어 주최국인 홍콩 선수단이 마지막으로 입장했다.

이날 대회 開幕式에는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인 金雲龍會長을 비롯하여 이번대회의 명예대회장

인 라몬·영(Ramon Young)씨등 홍콩의 저명인사와 각국에서 참가한 체육계인사들이 귀빈석을 메웠다.

金雲龍 會長은 開會辭를 통해 짧은 기간내에 급속한 성장을 계속하는 跆拳道가 무술스포츠의 본고장인 홍콩에서 개막되게 된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며, 세계적인 스포츠로 태권도를 키우는데 모든 태권도인들의 협력과 책임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명예대회장인 라몬·영씨는 무예의 다른 형태인 태권도 철학은 건강을 진전시키고 도덕적인 성격을 발달시키며, 기술을 익혀 호신술의 힘을 기른다고 말하면서, 태권도는 태권도인들이 전진함을 창조하고 사회적 훈련을 쌓는데 기여하는 노력에 매우 유익하

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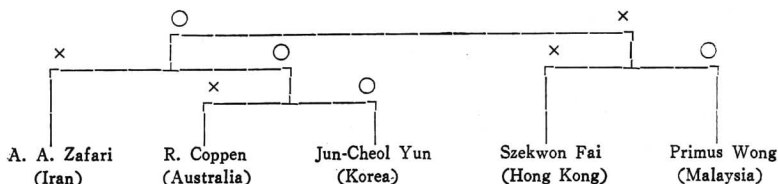
이러 홍콩 시범단원들의 시범이 펼쳐지는 가운데 서서히 대회장의 분위기는 高調되어 경기가 시작되었을 때엔 참석한 관중들의 흥분된 환호가 울렸다. 아울러 국제화 되어가는 태권도의 진면목이 세워지는 국제대회의 횃수를 더함에 따라, 참가국 선수들의 성장한 실력이나 태권도 정신자세가 역력히 확립되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별 메달 획득 상황

| 참 가 국 명 | 금 | 은 | 동 | 등 위 |
|---------|---|---|---|-----|
| 대한민국    | 8 | — | — | 1   |
| 호주      | — | 4 | 3 | 2   |
| 이란      | — | 2 | 5 | 3   |
| 말레이시아   | — | 1 | 4 | 4   |
| 홍콩      | — | 1 | 1 | 5   |
| 팔라우     | — | — | 2 | 6   |
| 뉴질랜드    | — | — | 1 | 7   |

### 제3회 아시아대회 대진표 및 개인 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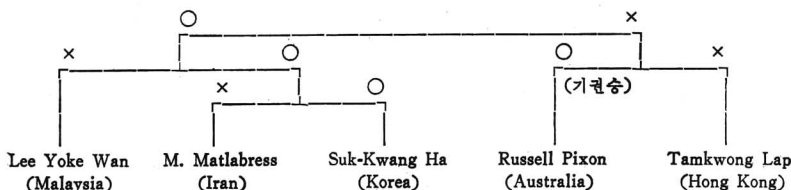
#### <F I N>



Winner: Jun-cheol Yun (Korea)  
3rd place: A. A. Zafari (Iran)

2nd place: Primus Wong (Malaysia)  
3rd place: Sze Kwon Fai (Hongk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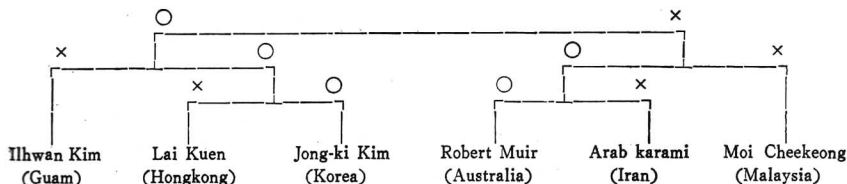
#### <F L Y>



Winner: Suk-Kwang Ha (Korea)  
3rd place: Lee Yoke Wan (Malaysia)

2nd place: Russell Dixon (Australia)  
3rd place: Tam Kwong Lap (Hong K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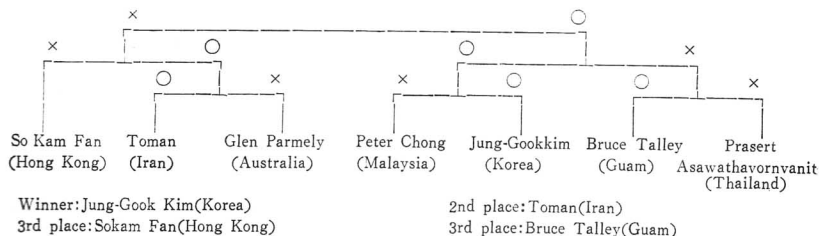
#### <BANT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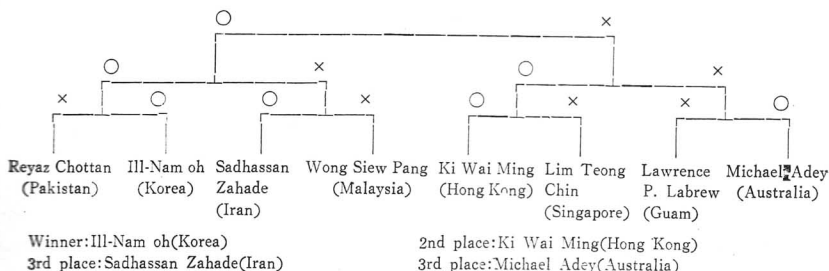
Winner: Jong-ki kim (Korea)  
3rd place: Ilhwan Kim (Guam)

2nd place: Robert Muir (Australia)  
3rd place: Moi Cheekeong (Malay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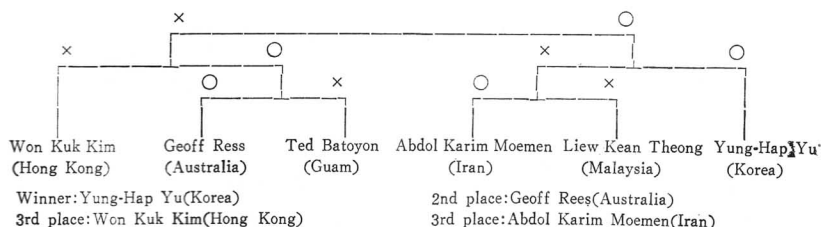
<FEA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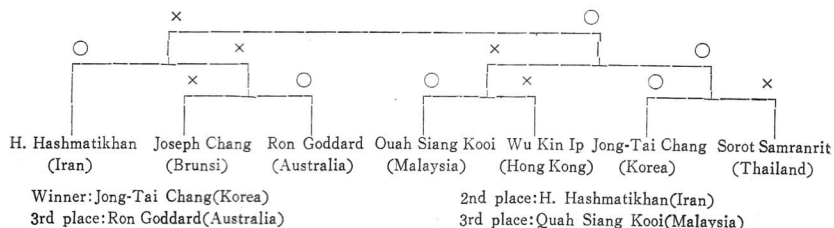
<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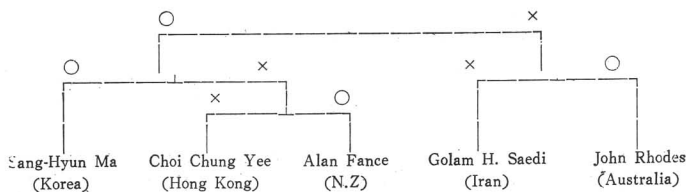
<WELTER>



<MIDDLE>



<HEAVY>



Winner: Sang-Hyun Ma (Korea)  
3rd place: Alan Fance (N.E)

2nd place: John Rhodes (Australia)  
3rd place: Golam H. Saedi (Iran)





# 特輯座談

◎ Round-table talk ◎

## HongKong 제 3 회 아시아선수권대회를 마치고



때 : 1978年 9月 15日

곳 : 國技院

모 인 : 황춘성 감독, 이용우 단장, 정진영

분 들 : 송요식 코치, 조준호, 백수남, 박인근, 이병규 국제심판. 선수단 일동.

사 회 : 姜 元植 전무이사.

사 회 :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은, 작년 시카고 제 3 회 세계대회와 이번 Hong Kong에서 개최되었던 제 3 회 아시아대회에서 중추국의 면모를 과시, 계속 3연패를 한 것을 바탕으로 그동안 치른 국제대회가 안고있는 문제점 및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의견들을 이 기회에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국제 파견선수단 관리

황춘성 :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애로사항부터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항상 느껴왔던 거지만, 선수단 출국시에 수속절차의 복잡으로 받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속문제의 개선이 시급하고, 또 하나 느낀 점은 예산관계도 물론 있었지만 훈련일정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외국선수들의 실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태권도 중추국의 면모를 아낌없이 발휘하여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려면,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선발을 좀더 일찍해서 수속을 밝고 훈련일정을 충분히 잡아야 겠더군요. 특히 선수 선발과정



〈강원식〉

과견이 가장 바람직한 줄은 아는데 아직 시도해 보진 않았으나 앞으로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황춘성** : 우리나라 선수들이 기술면이나 모든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중량급에서의 신장문제에 있어선 열등한 것 같더군요. 특히 호주의 장신 선수들과의 게임에서는 평소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경량급에서는 우리의 기술이 적용되는데 말이지요. 신장문제 등에 따른 중량급 이상의 선수선발 방법을 바뀌어야 좋을 듯합니다.

**사 회** : 시카고 대회에서도 느낀 거지만 외국인대 외국인의 게임은 무난한데, 외국인대 한국인의 게임에서는, 아직 한국인의 기술실력이 월등히 나옴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선수에 대한 외국선수의 열등의식도 무시못하였음을 알았습니다. 대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개발된 기술과 체력단련이 필요하겠죠.



〈이용우〉

발차기가 따로 만들어져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대표선수로 한번 선발되면, 그 기한을 1년이나 2년간 계속하도록해서, 우수한 국제선수의 관리문제도 장기정책을 세워 시정해 나가야 하겠죠.

에 있어서 게임에 의한 선발보다는 연중 행사중에 훌륭한 선수를 복수로 선발, 그 실력을 장기에 걸쳐 검토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사 회** : 네, 대표 삼비군을 선발해서 다시 최종적 픽업

**사 회** : 중량급선수가 경량급선수들에 비해 만족한 게임을 이끌지 못했다는 것은, 실력에서 뒤지는게 아니라 외국인과의 신체구조의 상이점으로 생기는 것 같죠. 외국인이 긴다리를 들고 있을 때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친다든지 하는 색다른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진영** : 예, 저도 실력없다는 말은 아베요.  
(전체웃음)

우리 선수 중 마상현의 경우를 보더라도 린치 순발력 개인력이 뛰어나지만, 외국선수들과의 게임경험이 부족해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황춘성** :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점은, 국내에선 판중이 많은 적은 낮에만 경기를 진행해 왔는데 외국에서는 대회경기를 연판시켜서 야간경기도 합니다.



앞으로 국제경기선수들의 야간경기훈련이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하던 주간경기훈련의 습관이 몸에 밴 선수들이, 낮에는 일 없이 있다가 밤에 경기를 하려면 컨디션조절이 되지 않아 쉽게 피로해 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프레일드게임에서 느낀 건데요, 독일의 헤비급 선수들은 장신에다 기술도 좋았는데, 내년 제4회 세계대회를 대비해서 장신 선수선발과 장기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기더라도 뚜렷하고 시원하게 이겨야하지 않겠습니까?

**사 회** :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작년엔 야간훈련도 했었습니다. 금년에 안한 이유는 홍콩과 서울과의 시차가 한시간 차이밖에 안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미국같은 경우는 서울과의 시차가 커서 밤과 낮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야간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엔 미리 말씀 드리지 못했던 것은 작은 시차 때문이었는데요.

**황춘성** : 그러니까, 시합 일주일전에 현지 적응훈련을 해야 합니다. 시합일자에 입박해서 출국하고, 시합이 끝나자마자 입국하니, 선수들의 컨디션조절도 어렵고 건강관리에도 애로점이 많지요. 그리고 대표선수 선발전도 두번씩 선발하는 것 보다는 한번으로 지정해서 선수실력을 기르도록 해야겠습니다.

**유영합**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에, 라이트게임을 끝낸 후 잠도 못자고 새벽에 일어나야 했는데, 사실 피곤했습니다. 선수들의 건강문제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사 회** : 유선수는 작년에 시카고를 가봐서 알겠지만,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모두 공통적인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 문제엔 그 나름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유의합시다. 나야말로 홍콩에 가서 구룡반도에만 있었지 진짜 홍콩구경 한번 못하고 온 아쉬움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선수들의 건강 및 하루하루 일정계획에 앞으로는 치밀한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송 요 식〉

이 공백기간 동안 어려웠고 때문에 예선전에 있어서 선수들의 저하된 컨디션으로 팀전체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단장 이하 인솔임원 여러분은 특히 선수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겠고, 정신자세를 고조시킬 따뜻한 이해가 필요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송요식** : 좋은 말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합에 입박해서 출국하거나 곧 입국해야하는 것은 분명히 예산상의 문제가 뒤따르고 있을 것입니다. 협회자체내에서 정제나 재제에 있는 분들

을 우리회원으로 초청해서 우리 선수단의 합숙부터 경기끝날 때까지의 모든 재정적인 부담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이지만 외국파견시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짜서, 선수들의 영양, 건강, 체력관리를

소홀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그 일정을 미리 알아 그때그때 얘기해 줄 수 있는 계획성이 필요하겠더군요. 그곳에 있는 조직위원회를 통해 인솔자들이 미리



〈정 진 영〉

알아내어 선수들의 전반적인 국의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겠습니다.

**사 회**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엔 협회에서 미리 간 사람도 없었고, 또 먼저 가신 임원분들은 세계연맹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소나마 소홀했던 듯 싶습니다. 그것은 홍콩임원진이 약했던 이유도 있고 또 한 집안식구로서 이해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여 계획을 사전에 세워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규정에 할 말 있다

**박수남** :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국제심판과 선수단들간의 의견교환이 적었다는 느낌입니다.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협조해야 할 상황에서 다소나마 애로점이 있었죠. 관전한 소감으론 앞으로 한국선수들이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중량급에서 얼굴 한번 못대보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외국선수들은 발로 밀든, 득점 부위가 아닌 부분을 쳐서 든 넘어지면 이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선수가 득점 포인트상으로는 리드를 했으나, 관전에 가서 관중및 외국선수와의 혼전을 빚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량급은 가운데 공격보다는 상단부분공격의 좋은 기술을 발휘해서 적극적인

훈련을 쌓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 회:** 네 사실 태권도가 공인화되었다고는 해도 물면으로 미비한 점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백수남:** 태권도의 물 문제가 잘 나왔는데요. 현재규정하고 구규정하고는 다른데, 국제경기는 구규정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조 준 호〉

시정은 되었으나 과연 효과적으로 정확한 규정인지, 상황 판단으로 하는 것인지 도모를 모호한 점은 남아있습니다. 물의 국제화가 시급합니다.

**사 회:** 작년 10월 시카고대회 직전에 세계연맹 기술위원회에서 개정된 심판 및 규정을 다룬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원칙적인 것은 통과를 시키고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교정을 한다고 하더군요.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체험을 통해 얻은 문제점을 검토해서서 탁상공론과 실제경기상의 다른점을 보완하도록 건의해 주십시오. 물이 영구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때로 교정 보완해 나가 좀더 완벽하게 고쳐 나가야겠죠.

**황준성:** 네 좋으신 말씀이군요. 국제경기를 볼 때 선수와 관중과 심판의 호흡이 삼일일체가 안됩니다. 그것은 관중이 물을 모르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하다보니, 심판과 선수들과의 호흡이 맞지 않는 것 같을 수밖에요.



〈백 수 남〉

동안에 대개 거의 한국이 1위를 하거나, 또 그러리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는게요, 아세아대회는 세계대회의 축소된 지역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 생



〈이 병 규〉

있는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용우:** 체급 전체우승도 좋지만 선수출전에 있어, 교체로 5명씩 출전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병규:** 8체급 전체가 나가지 않고 5체급만 출전한다는 말씀이군요.

**이용우:** 그렇지요. 제 생각으로 그래야 할 것으로 압니다.

**사 회:** 동방예지의국의 미력을 나타내는 말씀이군요.

(전체웃음)

이번 경기에서 피부로 직접 느낀 것은 중량급 이상에서는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사실 양보가 아니라 더욱 실력을 키워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염려되더군요. 그런 뜻에서 스포츠경기에 보여 주는 미덕보다는 자체내의 강력한 실력축적이 오히려 시급합니다. 체급중에서 다른 것은 다 뺏겨도 중량급 헤비급에서의 금메달은 중주국의 전통으로 획득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최강급에서 뒤지지 말아야 하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할 것입니다.

**백수남:** 경량급보다 중량급에 비중을 더 두는게 사실이죠. 그런데 현재 경기규정이 태권도협회경기 규정과 국제경기규정이 다릅니다. 우선 하루 속히 국제경기의 규정 확립이 서 있어야 하겠죠.

**조준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결승전만이라도 관중들에게 특점규정을 설명해서 태권도 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판전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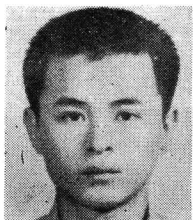
**사 회:**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태권도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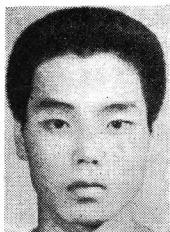
&lt;FIN&gt;

윤 준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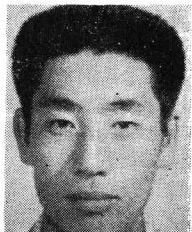
&lt;FIY&gt;

하 석 광



&lt;BANTAM&gt;

김 종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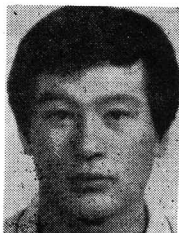
&lt;FEATHER&gt;

김 종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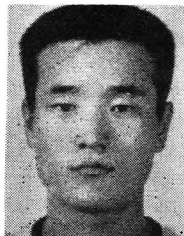
&lt;LIGHT&gt;

오 일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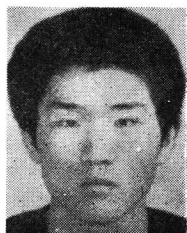
&lt;WELTER&gt;

유 영 합



&lt;MIDDL&gt;

장 종 태



&lt;HEAVY&gt;

마 상 현

의 외국어학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여 그들의 의견의 벽을 허물어야겠죠. 우리 태권도인들 스스로 많이 노력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정진영**: 물론이죠. 또한 해설문제가 뒤따르나 할지라도 스포츠경기에서는 최선을 다하라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체급의 양보는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어느 때 어느 상태에 역상황을 당할지 모르므로 앞으로 계속 패권을 장악하리라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임원 코치 선수들 모두 합심해서 앞으로 있을 대회에 정신자세 및 체력 기술을 한층 고조시켜야 할 것입니다.

**조준호**: 아이구 그러구보니 할 일이 너무 많군요. 어학공부하라, 태권도 를 정립하라 실력 키우라.

(전체웃음)

**박인근**: 메스컴을 위한 해설자동반도 필요하지요. 각 텔레비로 중계되는 프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 회**: 해설을 한다는 것이 물론 시급한 일입니다만 메스컴을 위한 해설에 앞서 진행위원으로서의 해설이 우선 중요하겠죠.

**황춘성**: 한가지 덧붙일 것은 국제경기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우리가 시합에만 신경을 쓰느라 개인적으로 외국인선수들과의 우정교환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국경기 출전시에는 외국인들과 교환할 기념품 및 대화 등 민간교의의 자료와 교육이 준비시행되었으면 좋을 듯합니다.

**사 회**: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성의있는 의견을 거울삼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기술심의회회의 임원여러분에게 많이 건의해서 다같이 이러한 문제점들이 시정되도록 노력해야겠죠 여러분과 우리 태권도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이자리의 마지막을 장식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홍콩의 하늘에 휘날린 태극기

## Korean National Flag was hoisted at the Maperson Stadium in Hong K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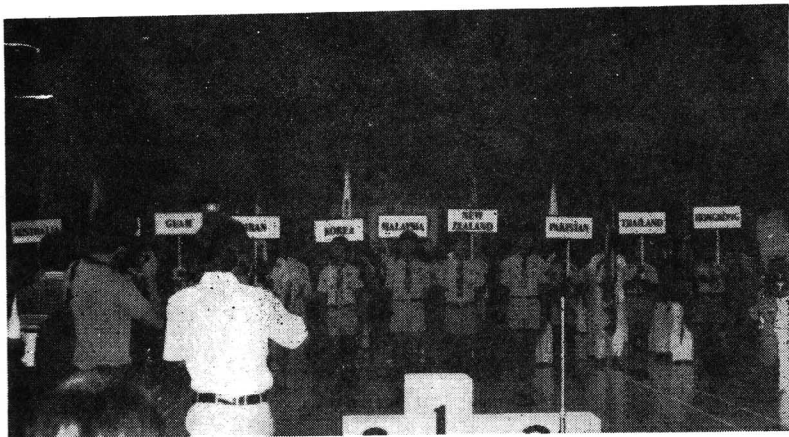
제 3 회 아시아태권도대회

한국선수단코치

정

진

영



韓國 選手團 12各은 第 3 回 Asia選手權 大會에 8계급 석권의 3連覇를 爲하여 團長님 監督님 이하 選手들의 Team work이 혼연일체가 되어 10일간의 合宿訓練을 하게 되었다. 특히 重量級에서는 기필코 여하한 難關 없이 석권하자라는 마음의 다짐이 고조되어 있었다.

허나 짧은 期間의 訓練은 選手團의 마음을 초조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시일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10일간의 상황속에서 訓練日程은 주로 헤이해진 선수들의 정신 무장과 自勢의 긴장에 치중하였다. 그중에서도 各種 큰大會를 優勝하고 外國을 여러번 다녀온 選手들로 이루어져 있어 잘못하면 좋은 實力이 自己陶醉에 依해 큰 범실을 가져올 수가 있음을 염려하여 訓練 入所式에 選

手들 自信은 이 시작부터 韓國代表 選手라는 優越感을 버리고 다시 跆拳道를 始作한다는 마음을 먹으라는 監督님의 말씀이 좋은 指針이 되었다. 주로 選手들의 長·短點 補完 및 反復 練習을 통하여 完熟한 機術을 얻며, 그것을 土臺로 Chance 포착과 faint-motion으로 相對의 虛를 강타하여 得點에 連結하는 練習에 돌입하였고 體力訓練으로는 持久力, 瞬發力, 柔軟性, 敏捷性等에 重點을 두어 weight-training, circuit-training interval-training 등은 時間 關係로 充分하게 못한 것이 좀 不安했다.

처음으로 代表팀 Coach를 맡은 본인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國內 競技라면 他 소속팀 선수들의 長·短點을 알고 訓練에 임하기 때문에 日程이 짧아도

焦躁하지 않았을 텐데, 外國 選手들과 試合을 하는 代表팀의 코치를 맡는 責任은 더 없이 莫重했다.

歷代이래 코치들은 8體級을 석권해 왔는데 이번 大會에 參加하여 1명이라도 脫落하게 되면……? 하는 不安이 엄습해 오곤하는 10여일 간의 合宿期間이었지만 團長인 監督님 또한 協會 任員, 각 팀의 코치들의 방문과 위문, 前年度の 國家代表팀 코치의 data가 많은 도움이 되어 自信感도 가질 수 있었다.

CPA 404 오후 7시40분에 飛行機에 오른 우리 選手團은 잠시 생각할 수 있는 時間을 갖게 되었다.

9:06분 Taipei에 기착하여 급유를 한 다음 Hong Kong에 11시30분에 到着했다.

韓國의 온도와는 反對로 高溫多濕하여 團服에 땀이 흘렸고 짜증이 나는 기우였다.

공항에는 Hong-Kong 태권도 代表 선수들이 迎接을 나와 호뜻한 마음이었다.

선수단 一行은 專用버스에 실려 Mirano Hotel 에 도착. 여장을 풀었다.

7日 아침 計體量 關係로 선수들의 體重點檢을 끝낸 후 就寢을 시켰다. 무더운 날씨, 아침식사, 선수들의 피곤으로 인하여 7일 아침의 컨디션은 양호한 편은 아니었다.

Shopping 時間을 주어 간단한 物件을 살 수 있었고, 有名하다는 Hong-Kong 밤거리를 볼 수가 있었다.

Hong-Kong의 거리는 생각보다 좁았고 各種 차량이 교통의 混亂을 이루었으며 네온사인인 中樞神經을 다비 시킬 만큼 華麗하고 歡樂의 一色을 이루어 外國 사람들의 박람회 같은 느낌이 들었다.

百貨店 및 市場은 最新式 施設로 되었고 車는 한국에서도 보기 드문 高級승용車로 道路를 메웠다.

住宅은 Apt.로 되었고 單獨住宅은 찾아 보기가 힘이 들었다.

간단한 Shopping과 市內 觀光을 마친 選手團은 來日의 試合을 對備하여 일찍 취침했다.

8日 아침 일찍 起床하여 1時間 程度 運動을 했다.

아직도 適應을 하지 못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978年 9月 8日 오후 6시 大望의 第3回 亞細亞 跆拳道 大會의 閉幕을 이곳 Macpherson-Stadium에서 亞細亞 地域 15個國 150名이 參加한 가운데 英聯邦 政府의 밴드 주악에 맞추어 各國의 國旗를 先頭로 알파벨트 순으로 질서 정연하게 入場을 했다. 사열대에는 Hong-Kong 政府의 要人들과 大會場인 peter C. Ywong 金雲龍총재 Peter Chiu, Roman Young, Allen W. Klaw, John Flung 등 많은 인사들과 貴賓, 各國에서 보도차 온 記者 特히 코포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나와 더욱 이채를 띄웠으며 대회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물론 世界的인 규모는 아니지만 競技場의 많은 준비와 2천여 관객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태권도가 수준높은 Sports로 成長한 것에 대해 가슴 뿌듯한 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국적은 초월한 國際的인 태권도인들의 벽찬 希望과 기대속에 제 3회 아시아大會의 제전이 3일간에 걸쳐 막을 올리게 된 것이다.

홀륭한 한국인 師範員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Amateur 精神에 입각하여 必勝의 信念으로 國家의 名譽를 걸고 정정당당히 最善을 다 할것을 맹세하는 선서가 있었고, 大會長인 Ramon Young의 개식사가 있는 다음 金雲龍 총재의 대회사 있었다. 「태권도는 이미 世界的인 Sports로 光을 받고 있습니다. 올바른 普級과 태권도 精神을 통하여 Olympic Sports로 승화시키는 일은 모든 태권도인과 여러분들의 責任이고 義務입니다」라는 총재님의 격려사를 끝으로 시범단원의 시범이 있었다.

示範이라 하면 태권도 全般을 소개한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닌데 準備성이 결여된 느낌이 갔다.

이어서 競技가 있었다. 競技方法은 3分3回前으로 世界聯盟 規約에 依한 토나먼트 方式에 의했으며, 銀메달 다수라도 金메달 1개가 優先하

는 금메달 中心으로 等位를 決定하였고, 준결승 패자 方法이 新設되어 3위를 決定토록 되었다.

各國 任員들과 選手들은 추첨에 많은 神經을 썼고 豫選에서 토나멘트가 韓國 選手들과 作成된 各國의 任員들은 몹시 침통한 표정들이었다.

첫번째 게임은 핀급 尹俊喆君과 Australia의 R.Coppin선수와 있었다. 신장 차이가 20cm가 넘고 體力이 優勢하며, 패기가 있어 보이는데 반해, 윤 준철군은 Hong-Kong 기후에 아직 適應을 하지 못하여 計體量 關係로 좋은 Condition을 유지하지 못해 몹시 焦燥하였다. 허나 빠른 Speed와 瞬發力을 가미한 得點으로 어렵게 첫번째 게임을 판정승으로 이길 수 있었다.

두번째 게임은 Iran의 Zafari 선수와 경기를 했는데 윤 준철군은 전날의 게임과는 반대로 自信을 갖고 경기에 임하여 다양한 발차기로 始終一觀 공격 위주로 게임을 리드, 태권도 중주국으로써의 면모를 확인케 했으며 특히 앞돌려차기와 뒤돌려차기의 컨비네이션을 이루어 판중과 임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고 2회전에는 다운까지 가는 경기를 하여 판정승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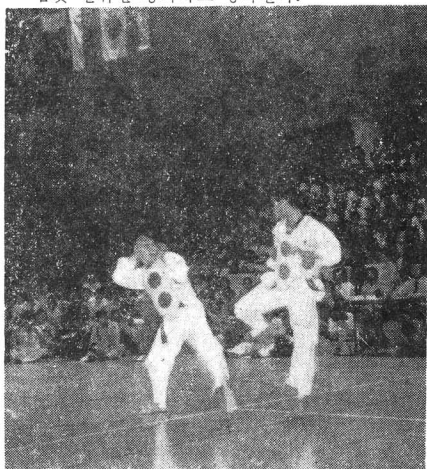
세번째 경기는 Malaysia의 Wong 선수와 결승전. 여유있는 태도와 순발력 있는 발기술, 특히 뒤돌려차기로 1회전에 안면을 강타하고 앞찍기로 상대를 공격하여 못다한 기술을 마음껏 發揮한 경기였다. 2번돌아 발차기와 민첩한 발기술은 다른나라 선수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작은 선수가 큰 外國選手의 안면을 공격 할때마다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고 優勝을 했다.

Fly급에 河錫光 선수는 초반에 강력인 Iran의 Mallabress 선수를 맞이하여 앞돌려차기와 뒤돌려차기로 물리쳤고 2번째 선수는 Malaysia의 Wen 선수와 준결승에 임했는데 뒷차기와 안면 공격을 하여 가볍게 물리치고 결승에 호주의 Dixon선수와 대결에선 복부와 가슴을 앞돌려차기로 공격한 후 뒤후리기로 상대를 일방적으로 공격, 우승을 차지했다.

Bantam의 金鍾基선수는 Hong-Kong의 Kwen 선수를 맞이하여 特技인 뒤차기와 돌려차기로 鎗선수의 면모를 과시 하였으며 Guam의 Ilhwan

Kim선수와와 2번째 경기에서도 柔軟한 몸의 앞발차기와 앞찍기로 시종일관 공격의 일변도로 판정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결승에는 강력 호주의 Muir선수를 맞이하여 기량 및 모든면에서 월등한 김선수는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여 우승을 했다.

Feather의 金貞國선수는 말레이시아의 Peter Chong선수를 점프돌아 앞돌려차기로 얼굴을 공격하여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고 양뒤돌려차기로 상대 선수를 일방적으로 공격하였으며 2번째 Guam의 Telley선수를 맞이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공격하는 반칙에 한동안 정신을 못차린 김선수는 뒤돌려차기로 얼굴을 두번 공격, 선혈이 낭자한 결투장을 연출하여, 한국의 優秀性を 마음껏 발휘한 경기라고 생각된다.



결승에서는 Iran의 Toman을 다양한 공격으로 다룬 직전까지 물고가는 일방적인 게임으로 우승을 했다.

태권도는 數 많은 機術이 있고 앞으로는 開發될여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大會에 김정국선수가 보여준 점프 뒤돌아 앞돌려차기의 날렵한 동작과 경쾌한 공격은 중주국의 발전된 면모를 과시한 멋진 플메이라 고 생각된다.

Light에 吳一男선수는 파키스탄의 Chottan선수를 맞이하여 뒤차기와 앞돌려차기로 공격하여 판정승을 거두었고 2번째 상대는 Iran의 Zahade 선수였는데 개인기술이 잘 발달된 선수였으나 오선수에게는 역부족이었다.

결승에는 Hong-Kong의 短身 선수인 Ming선수를 맞이하여 일방적으로 공격하다가 2회전에 뒤차기로 공격하여 KO로 우승을 차지했다. Hong-Kong의 Ming선수가 어떻게 決勝까지 올라오게 되었는지 의심할 정도였다. 이어 벌어진 Welter급 경기의 유명합선수는 Iran의 Moemen 선수와의 대결에서 長身과 體力이 워낙 差異가 많았지만 노련한 게임 運營으로 相對선수의 공격을 차단하고 복부를 강타하여 得點面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여 판정승을 거두었으며 결승에는 호주시 승자 공격형의 Geoff Ress선수에 당황하였으나 2회전을 맞이하여 상황에 빠른 유선수는 양 side를 이용하다가 中央線에서 복부의 연속 두번 공격이 득점에 연결되었고 3회전에서는 Fainting Motion으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든 다음 앞발을 옆으로 하여 끌어엎차기로 상대편 복부를 공격하여 다운시켜 주장 선수의 위치를 표시하고 우승했다.

Middle급의 張鍾太는 타일랜드의 Samrenrit와 1회전 경기에서 앞차기와 돌려차기로 공격하여 득점을 하고 2회전에는 계속 밀면서 찬스를 포착하여 내려 찌기로 강타, 우세한 게임으로 끝냈다. 결승에는 강자 Iran의 Hashmatikhan선수가 큰 신장을 이용, 계속 공격하여 한 때는 고전을 했었다. 체력이 열세에서 오는 상황에 밀려다니다가 발차기를 한 것이 넘어져 Iran선수의 득점인 줄 알고 소요가 있었으나 곧 무마되었다.

이 경기에서 비록 우승은 했으나 중(重)량급의 體力訓練을 요하는 競技였다.

Heavy의 馬相賢선수는 뉴질랜드의 Fance선수를 맞이하여 여유있는 동작과 다양한 발차기로 판정승을 거두었고, 오스트릴리아의 Rhodes선수와 결승전에서는 예상을 불허하는 막상막하의 밀고 밀리는 경기를 하여 무승부의 판정을 했다. 이어 연장 1회전에는 Fance선수가 날카

로운 발차기와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공격해 오는 것을 가볍게 양 side로 빠지면서 복부에 득점을 올려 어렵게 판정승을 하여 헤비급도 우승할수가 있었다.

重量級에서는 많은 課題와 숙제를 남기고大會를 마쳤다.

종합 전적은 1위 한국, 2위 호주, 3위 이란으로 시상식이 있었다.

이렇게 하여 제 3회 아시아대회는 8체급 석권로 3連覇를 할 수가 있었고 宗主國으로써의 責任을 완수. 환희와 갈등의 열전 3일간의 막을 내렸다.

제 4회 대회때 이란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장내를 떠났다.

이번大會는 亞細亞 選手權大會라고 하지만各國의 實力이 平均化 되었다고 생각하며, 특히 close up 된 나라는 Iran으로써 발기술이 한국 선수들과 비슷한 정도의 놀라운 실력이었다. 비록 3위는 했으나 앞으로 일단 경계를 해야 할 국가인 것 같다. 그리고 호주도 대형 선수의 입점으로 많은 실력 향상을 나타냈다.

한국선수들이 參加만 하면 優勝을 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훈련에 임하고 태만하게 처리한다면 전체급 우승은 앞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었다.

이번大會는 자유중급이 출전치 않아 좀 가벼운 상황에서 게임을 했지만 자유중급이 참가했다면 어려운 점도 있지 않았겠다 생각해 본다.

대회의 문제점과 앞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몇가지 문제를 간추려 본다.

1. 全體級の 選手大型化를 이루고 體力訓練에 힘써야 될 것이다.

外國 選手와 試合를 할때마다 체력의 열세와 身長의 差異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 특히 體力에서의 영향은 많은 得點을 하였더라도 相對 선수에 始終 밀려 다니는 일이 宗主國으로써 위신을 추락하고 관중으로부터 야유받는 결과가 있는 메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基本體力面에 역점을 두어야 될 것이다.

2. 充分한 合宿期間과 科學的인 訓練이 필요.

外國 선수의 장, 단점을 把握하여 그에 대처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겠다.

國內 競技를 한뒤 國際試合에 외국 선수들과 대전을 할 때 당황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 뜻대로 움직여 주질 않고 거북한 발차기로 응수해움으로써 당황하게 되는데 이에 대처하는 훈련을 科學的으로 체계있게 훈련 하여야만 계속 전제급 우승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경소에 보고 느낀점을 다 기술 할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태권도의 發展은 競技에서 가져 온

다는 것을 생각할 때 태권도인들이 상부상조하여 국내 경기부터 지도자들이 자기 個人의 이익을 떠나 태권도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출선수범하여 科學的 경기化가 이루어져야만 될 것이다.

이번 대회기간 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신 태권도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사를 드리고 일선에서 묵묵히 태권도 기술 개발에 여념이 없는 코치여러분에게 행운이 있길 빌며 글을 맺읍니다.

## 第一回 PAN-AM 跆拳道 選手權 大會 및

## 第二回 유럽 跆拳道 選手權 大會

제 1 회 아메리카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멕시코 시에서 개막되었다. 마리오·바스카트(Mario Baskat), PAN-AM 대회회장의 개최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대회에는 미국 멕시코는 아메리카 지역 15개국이 참가해서 열린 경기를 보였는데, 이 대회의 사무총장은 서독의 Eberl Wolfgang, 기술위원장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韓國의 이경영사범, 심판위원장은 스페인의 Roldan씨, 그리고 감사로는 오스트리아의 Sieberer Hans씨가 각각 위임 되어 이 대회를 이끌어 나갔다.

그 종합전적을 살펴보면, 멕시코 1위 미국 2위, 코스타리카 3위로서 그 실력들을 정정당당히 과시했다.

이날 대회에 앞서 개최된 Pan-American Taekwondo Union 총회에서는 회장으로 미국의 Don Morrow씨, 사무총장으로는 역시 미국의 Ken Min씨가 선출되어, 제 3 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당시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진을 재확인 했으며, 제 2 회 팬, 아메리카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1980년 코스타리카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독 뮌헨시의 Halle 경기장에서는 제 2 회 유럽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렸다. 이날 서독, 스페인, 폴란드 등 15개국이 참가한 대회에서는 종합전적이 서독이 1위, 스페인 2위, 네덜란드 3위 터키 4위 이탈리아 5위의 순으로 결정되었다.

대회전 19일날 있었던 유럽태권도 연맹 총회에서는 제 3 회 유럽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오는 1980년 덴마크에서 개최키로 결정, 다음과 같은 심회위원장 및 임원진을 선출했다.

회 장 : Heinz Mark (서독)

부회장 : Thontenhoofd (네덜란드)

Marco-Saila (스페인)

Sörenson (덴마크)

Kilichan (터키)

박 선 재 (이탈리아)

# 歸國報告書

1978年 9月 6日 午後7時 55分

豫定보다 1時間 늦게 Cathay Pacific Airline CX 411機 便으로 金浦空港을 出發, 台北을 向해 날기 始作하였다. 飛行機內에서 食事を 하고 別로 지루함을 못 느낀 채 2時間 10分 後인 22時 05분에 台北空港에 到着하여 給油를 爲해 50分間 台北空港대합실에서 머무는 동안 自由中國 跆拳道協會 遠國徵會長을 비롯 任員 몇사람을 만나 짧은 시간이나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여기서 自由中國은 그들의 國旗使用을 禁止시키기로 한 大會組織委員會 決定에 抗議 不參加로 하였다고 귀뜸을 해주었다.

22時 55分(現地時間 21時55分) 香港을 向하여 台北空港을 移陸하였다. 飛行機內에서 또한번의 食事(밥참)을 하고는 9月 7日 0時10分(現地時間 12時10分) 目的地인 香港空港에 到着하였다.

香港空港에서 入國수속을 마치는 순간 香港警察官들이 半바지의 정장을 입은 것으로 그곳 氣候가 덥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었으며 이제 되었다.

空港 밖에는 몇몇 空港駐在韓國師範들이 選手團을 환영해 주었고 곧 대기하였던 Bus에 올라 九龍半島 中心街에 자리잡고 있는 Miramar Hotel에서 여정을 풀게 되었다.

1978年 9月 7日

午前中엔 各參加國 選手들의 計體量練習을 마치고 各省 市內觀光을 兼한 Shopping에 들어갔다. 홍콩 시내에 차량통행은 서울과 반대로 우측 통행으로 질주하는 것이 이제 되었다.

16:00時 記者會見을 兼한 參加國 任員選手團의 환영 Cocktail Party가 있었는데 各參加國 任員選手들의 화기에 대한 대화의 廣場이 되었으며 약 2時間에 걸쳐 進行되었다.

20:00時 各參加國의 對陣表作成을 爲한 代表者會議가 있었다. 今般大會의 參加國은 韓國을

비롯하여 11個國에서 120名의 任員選手들이 參加하였다.

1978年 9月 8日

14:00時 모의 개회식 (Rehearsal for Opening Ceremony) 大會組織委員會가 香港駐在 몇몇 韓國師範들에 依해서 運營되다보니 時間에 쫓겨 치밀한 事前計劃을 세우지 못해 약간에 물의가 있었다. 그러나 모의개회식을 통하여 식전행사에 원만히 임할 수가 있었다.

19:30時 開會式 Opening Ceremony 競技場은 香港九龍半島(Kowloon in Hong Kong)에 있는 香港遊樂場協會(Hong Kong Playground Association)의 麥花臣遊樂場館(Macpherson Stadium)으로 場內의 바닥은 열른 로기에는 마루바닥 같아 보였으나 만져보니 타이루바닥이었으며 농구장 코트도 활용되는 體育館으로서 約 2,000餘名の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觀摩석이 양측으로 놓여진 아담한 경기장이었다. 大會期間동안 入場料는 Center가 H.K. \$20, Side가 H.K. \$10로 別코 비싸지 않은 금액이었다.

19:30時 香港人 아나운서에 依해 開會 通告가 있자 名參加國 選手團은 旗手團을 先頭로 香港보이스카웃 學生들이 들고있는 自國 國家피켈에 뒤이어 自國國旗를 앞세우고 一列 중대로 入場하였는데 순서는 國家名 A, B, C順으로 入場하였다. 마지막으로 國際審判員(International Referee)들이 유별나게 돋보이는 노란색 싱글의 유니폼으로 고무도 당당하게 入場行進을 장식하였다. Royal Box는 金雲龍 世界跆拳道聯盟 總裁를 中心으로 左右 香港의 저명인사와 체육인사들, 그리고 各國에서 모여는 體育界人士들이 자석을 잡았다. 第3回亞細亞跆拳道選手權大會名譽大會長인 Ramon Young의 開會辭와 金雲龍 世界跆拳道聯盟總裁의 祝辭등 Hong Kong Trainer인 Mok Hung-Fai의 選手代表宣誓로 엄숙하게

式典行事를 끝내고, 이어 파키스탄 주재 장을준 사범을 위시한 홍콩어린이들의 격파 및 품세를 통한 跆拳道演武示範이 있는 후 競技에 들어갔다.

競技가 始作되자 初半戰부터 한국대표선수들은 跆拳道 宗主國의 代表選手답게 월등한 기량을 유감없이 發揮하여 입주의 여지없이 경기장을 막대한 관객들의 열광적인 박수 세례를 받았다.

1978年 9月 9日

09:00시부터 競技가 속개되어 별다른 일없이 17:00시까지 準준결승전까지를 모두 마쳤다.

19:30時 駐香港 韓國總領事主催로 選手團 환영이 홍콩산 중턱에 자리잡은 총영사 자택에서 베풀어져 선수단은 풍족한 한국음식으로 향수를 달랠수 있었다.

21:00時 亞細亞跆拳道聯盟 創立總會(A.T.U.) 제 3회 아시아 태권도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韓國을 비롯하여 이란, 태국, 호주, 보르네이, 싱가포르, 마เลเซีย, 뉴질랜드, 괌, 자유중국, 홍콩 등 11個國의 會議代表가 參席하여 亞細亞跆拳道聯盟(Asian Taekwondo Union)創立 同意와 아울러 聯盟規程檢討를 하게 되었다. 여기 規程討議에서 第1條 2항의 「亞細亞地域」을 「아시아 및 대양주지역」으로 수정하였을 뿐 나머지는 일기로 무수정 통과하였으며 任員選出과 次期大會開催地는 翌日 會議를 續開하여 다루기로 하고 幕을 내렸다.

1978年 9月 10日

09:00時 亞細亞聯盟總會가 續開會長의 選出을 놓고 弱間의 相反된 見解가 있었으나 1次選舉에서 韓國의 嚴雲奎氏가 選出되었으나 嚴雲奎氏의 自退로 인해 2次 選舉를 행사. 이란의 왕자인 Prince Shahryar-shafiq가 亞細亞跆拳道聯盟의 1代會長에 被選되었다. 그리고 副會長에 마เลเซีย의 Tun Tan Siew Sin (전 재무장관)과 自由中國에 Yuan Kuo Cheng (자유중국 태권도 협회장)이 各各 被選되었으며, 事務總長은 會長國에서 會長이 指名하여 追認을 받기로 하였고 實行委員은 定員 15名中 各國에서 1名씩 추천한 후 나머지 人員은 世界跆拳道聯盟에 일임키로

하였다. 各國에서 추천한 實行委員名單은 다음과 같다.

보르네이—벵가란·벵가와·목타푸테(왕 비서실장)

이 란—아니 사비지(왕 경호실장)  
싱 가 폴—메니싱(싱가폴태권도협회장)

마เลเซีย—안·윤·미(제 1부시장)

한 국—강원식(대한태권도협회전무이사)  
뉴질랜드—아란·후란스(태권도사범)

태 국—(태국태권도협회장)

호 주—노계형(호주태권도협회장)

중 국—이창영(대북시 태권도협회주임위원)  
괌 —조스·호세·가르시아(관세청감사원)

그리고 감사2名은 實行委員會에서 追後選任키로 合議하였다.

第4회 亞細亞跆拳道選手權大會

次期大會인 제 4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지 선정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자유중국과 이란이 경합을 벌였으나, 투표결과 이란으로 開催國이 選定되었다.

19:30時, 競技가 續開되어 韓國代表選手들은 Fin級부터 Heavy級까지 8體級에 걸쳐 全勝을 거두어 綜合1位를 획득하므로 亞細亞跆拳道選手權大會 3連勝을 記錄하였다.

競技中 輕量級 選手들은 너무나도 實力의 差가 벌어졌으며 宗主國 代表選手답게 잘 싸워 觀衆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특히 Light級の 오일남 選手는 決勝戰에서 香港의 키와이·밍 選手를 맞아 마치 고양이와 쥐를 놀리듯 여유만만하게 리드 3회전에 가서는 T.K.O승을 거두어 금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K.O를 넘으로 2,000여 觀衆의 인기를 독차지하였고 홍콩신문에서도 대서 특필로 다루었다.

1978. 9. 11

07:55(現地時間) CPA CX 410便으로, 香港을 出發 臺北을 경유 13時10分 서울 김포空港에 選手團一同은 無事히 귀국하여 체육인 및 친지가 축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개선하였기 자이 귀국 보고합니다.



## 제14회 태권도 협회장기 쟁탈전 결

## 제5회 한국중·고등학교 태권도 개인 선수권대회

## The 5th Korean middle &amp; High School Taekwondo Championships

제14회 태권도 협회장기 쟁탈전 결 제5회 한국중고등학교 태권도 개인 선수권대회가 9월 4일부터 7일까지 국기원에 개막, 본 연맹 조기상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3연승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서울체육고등학교와 한영중학교의 우승기 반환 국기원 부원장님의 여자고등부 태권도 협회장기 전달 후 서울체육고등학교 이상현 선수의 대표 선서로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대한태권도 협회가 후원하고 한국중고등학교 태권도 연맹이 주최 주관한 본대회에 전국에서 중학교 187명 남자 고등학교 402명 여자 고등학교 69명 총 658명이 출전하였으며 참가학교수는 중학교 25개교 남자고등학교 38개교 여자고등학교 38개교 총 71개교가 참가하여 본 연맹이 창립된 후 최대의 출전인원으로서 태권도가 날로 더욱 발전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하였다.

이번 대회의 특이한 점은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와 10월 전국체육대회를 전후하여 실시하는 대회로서 중학교는 소년체육대회 입상선수가 많이 참가하였고, 고등학교는 전국체육대회 자도(道) 대표 선수들이 출전하여 인천에서 실시하는 제59회 전국체육대회 전력 탐색 대회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선수들의 정신적인 면과 기량면에서 필승의 신념이 뚜렷하였다. 몇몇 도에서는

시도지부 협회 임원이 본 대회장까지 와서 자기도에서 출전한 선수들을 격려하고, 각도의 전력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여부가 동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여자부의 인기상승으로 남자부의 경기가 위축되거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회운영면에서 임원의 일치단결로 매 경기때 일어나는 심판판정의 항의에 대하여 특히 주려하여 이번에 처음으로 태권도 협회와 절충하여 본 연맹에서 초청하는 형식으로 심판위원을 위촉하여 각종대회에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판정상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도 본 연맹대회에 권위있는 판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판위촉에 더욱 더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해가 갈수록 출전 선수가 많아지고 따라서 관람자의 응원이 치열하였다. 특히 상급학교 진학특혜 등의 요인으로 한두건(件)의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문제는 좀 더 각성하여야 할 것으로 안다. 수 많은 학생 앞에서 서로가 자기선수들에게 감독 코우치의 권위의식 위주로 항의를 한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아 앞으로 시정을 하여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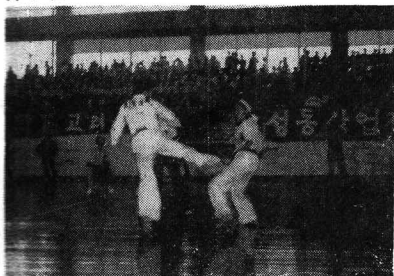
경기장 내 선수들의 질서유지 문제는 진행에



많은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아 스스로 질서유지에 유의, 교육과 결부된 수업연장이라는 의식을 각고히 하여야겠다.

가장 바람직한 대회는 강력한 집행부, 정확한 심판, 올바른 운동정신의 선수단, 이 삼자의 구성이 잘 조화 되었을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대회 때마다 느끼는 점은 지도자의 자질문제가 야기되는데, 대회에의 협조책으로서가 아닌, 음성적으로 자신과 자기 팀 만을 위하여 비양심적인 행동 및 파괴적인 선동을 하고 이에 동조하는 지도자 답지 않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지도자는 본 연맹산하의 지도자라고 볼 수 없음으로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스스로 자아반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심판의 자질향상이 중요하고 시급함을 항상 느끼고 있지만 지도자의 자질 향상 또한 중요한 것으로 본다.

이번대회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전국지도자회의의 모임이 순수한 태권도 기술계발과 수련의보호를 위한 단체로서 뜻있는 지도자들이

모여 새로운 혁신을 기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단체가 있음을 연맹의 실무책임자로서 기대하는 바 크다. 앞으로 지도자회의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번대회를 성공리에 마치게 된 것은 본 대회 심판위원 여러분이 대회를 무사히 마치게 협조하여준 것임으로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늦게까지 수고하여 주신 국기원 부원장님 이하 임직원의 뒷바라지에 감사드린다. 또한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연맹이사진은 다짐하는 바이다.

—〈중고연맹 전무이사 노삼석〉—

## 대 회 전 적

### ○단체전적

#### 중 등 부

우 승: 한영중학교

준우승: 청량중학교

3 위: 봉천중학교

최우수선수상: 권기문(완산중학교)

#### 여자고등부

우 승: 청산여자상업전수학교

준우승: 은광여자고등학교

3 위인: 천체육고등학교

최우수선수상: 남궁숙(은광여자고등학교)

#### 남자고등부

우 승: 서울체육고등학교

준우승: 성동상업전수학교

3 위: 대성고등학교

최우수선수상: 양기모(서울체육고등학교)

### 《독자원고모집》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발전하는 태권도를 위해 여러분의 정성을 모으겠으니, 많은 투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종류: 논문(태권도 발전을 위한 내용), 수필, 시, 수련기, 콩트, 만화 등(벽지나 도서지방 및 학교 소식도 전해주시요)

방법: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단 논문은 30매 내외). 내용에 관련된 사진을 동봉할 것.

보내실 곳: 우편번호 100. 서울 중구 무교동 19번지, 대한태권도협회 편집실.

개인전적

| 부         | 등위<br>제급 | 1 위    |     | 2 위 |        | 3 위 |     |        |     |
|-----------|----------|--------|-----|-----|--------|-----|-----|--------|-----|
|           |          | 소      | 속   | 성   | 명      | 소   | 속   | 성      | 명   |
| 중 등 부     | 권 푸라이    | 완 봉    | 산 천 | 중 중 | 권 기    | 한 옥 | 성 구 | 중 중    | 최 창 |
|           | 판 탕 페    | 한 영    | 중 중 | 장 명 | 중 생    | 중 생 | 중 생 | 최 기    | 익 규 |
| 중 등 부     | 라이트      | 한 청    | 중 중 | 이 재 | 한 성    | 한 성 | 중 중 | 갓 석    | 재 재 |
|           | 헬 터      | 청 랑    | 중 중 | 홍 성 | 중 화    | 중 화 | 중 중 | 김 상    | 태 태 |
| 중 등 부     | 미 들      | 한 영    | 중 중 | 이 완 | 중 봉    | 중 봉 | 중 중 | 김 재    | 호 호 |
|           | 혜 비      | 한 영    | 중 중 | 방 만 | 영 등    | 영 등 | 중 중 | 배 종    | 권 권 |
| 여 자 고 등 부 | 권 푸라이    | 청산여상전수 | 김 경 | 속 은 | 광 여    | 고 임 | 금 순 | 청산여상전수 | 허 인 |
|           | 판 탕 페    | 은 광 여  | 고 한 | 순 욱 | 청산여상전수 | 강 명 | 화 주 | 청산여상전수 | 원 영 |
| 여 자 고 등 부 | 라이트      | 인천체육고  | 황요안 | 나 인 | 천체육고   | 김 경 | 주 정 | 청산여상전수 | 신 미 |
|           | 헬 터      | 은 광 여  | 고 남 | 궁 속 | 인천체육고  | 정 순 | 본 지 | 은 광 여  | 고 김 |
| 여 자 고 등 부 | 미 들      | 청산여상전수 | 이 미 | 향 한 | 은 광 여  | 고 김 | 명 신 | 은 광 여  | 고 최 |
|           | 렌 비      | 서울체육고  | 김 북 | 신 한 | 양 여    | 고 지 | 경 순 | 은 광 여  | 고 권 |
| 남 자 고 등 부 | 권 푸라이    | 청산여상전수 | 안 선 | 기 은 | 광 여    | 고 김 | 기 욱 | 은 광 여  | 고 고 |
|           | 판 탕 페    | 은 광 여  | 고 한 | 순 욱 | 청산여상전수 | 강 명 | 화 주 | 청산여상전수 | 원 영 |
| 남 자 고 등 부 | 라이트      | 인천체육고  | 황요안 | 나 인 | 천체육고   | 김 경 | 주 정 | 청산여상전수 | 신 미 |
|           | 헬 터      | 은 광 여  | 고 남 | 궁 속 | 인천체육고  | 정 순 | 본 지 | 은 광 여  | 고 김 |
| 남 자 고 등 부 | 미 들      | 청산여상전수 | 이 미 | 향 한 | 은 광 여  | 고 김 | 명 신 | 은 광 여  | 고 최 |
|           | 혜 비      | 서울체육고  | 김 북 | 신 한 | 양 여    | 고 지 | 경 순 | 은 광 여  | 고 권 |
| 남 자 고 등 부 | 권 푸라이    | 청산여상전수 | 안 선 | 기 은 | 광 여    | 고 김 | 기 욱 | 은 광 여  | 고 고 |
|           | 판 탕 페    | 은 광 여  | 고 한 | 순 욱 | 청산여상전수 | 강 명 | 화 주 | 청산여상전수 | 원 영 |
| 남 자 고 등 부 | 라이트      | 인천체육고  | 황요안 | 나 인 | 천체육고   | 김 경 | 주 정 | 청산여상전수 | 신 미 |
|           | 헬 터      | 은 광 여  | 고 남 | 궁 속 | 인천체육고  | 정 순 | 본 지 | 은 광 여  | 고 김 |
| 남 자 고 등 부 | 미 들      | 청산여상전수 | 이 미 | 향 한 | 은 광 여  | 고 김 | 명 신 | 은 광 여  | 고 최 |
|           | 혜 비      | 서울체육고  | 김 북 | 신 한 | 양 여    | 고 지 | 경 순 | 은 광 여  | 고 권 |



〈감사패를 증정받은 심사위원〉

# 제59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경기

## The 59th National Games T.K.D.Competition

韓國 體育의 대 제전인 전국체육대회가 59회를 맞이하여 인천에서 성대히 막을 올렸다. 가을의 국화향기가 짙게 퍼져있는 인천시가는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전국에서 참가하는 선수입원단들을 환영했다. 전국 11개 시도지부와 재일, 재미 재독의 해외동포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민족 제전인 전국체육대회는 명실공히 세계적 선진대 열에 뒤지지 않는 알찬 면모를 보였다.

대회 첫날인 12일에 인천의 메인스타디움은 산뜻한 제복차림으로 질서정연하게 정열해 있는 각팀들의 선수들과 아울러 박정희대통령의 개회사를 이은 인천의 중고등학생들이 보여준 마스크 게임이 푸르른 가을 하늘 아래 화려하게 수 놓여졌다.

태권도 경기는 10월 13일 전국체육대회의 개막 이튿날부터 동산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는데 장내는 흰 도복으로 차려입고 새로운 경기자세를 다지는 선수들과, 각 지방의 프래카드가 걸린 응원석의 응원단, 태권도 관계인사들이 참석하여 대회의 의의를 깊게 했다.

경기는 고등부, 중기부, 고기부로 나뉘어 토너먼트식으로 운영되었고, 11개 시도지부에서 참가한 262명의 선수들이 각축전을 벌였다.

첫날 13일은 예선전이 있었는데, 인천의 어머니회에서 마련한 차와 떡이 각팀 선수단석과 임원석에 마련되어 훈훈한 분위기가 이루어졌고, 예상에 상반되지 않는 게임이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이튿날인 14일에 벌어진 준결승 게임에서는 각시도의 열띤 응원과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어 결과를 불허하는 경기였고, 고등부 반탐급에서 충남의 김중기선수가 부산의 강두광선수를 1

회 1분 20초만에 주먹공격에 뒷차기로 몸통을 받아차 KO로 승리를 전우는 등 경기의 열을 더해갔다.

전년도의 우승팀인 서울팀은 올해도 그 실력을 재확인하며 전남, 전북 충남팀들과 상위그룹을 형성하였다. 제주도팀과 경기팀은 의외로 부진했고, 전남 전북팀이 월등히 상승한 경기수준을 보여주었다.



15일에도 계속된 준결승에선 승부욕으로 파열한 선수와 심판석의 불이해로 약간의 소요가 있었으나, 경기장내의 임원들의 힘으로 곧 수습이 되었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결승전이 진행 각 팀 코치들의 긴장된 집중이 있는 가운데 선수와 응원단들의 고조된 경기태세로 일관되었다.

이로써 열띤 4일간의 태권도 경기는 각시도지부 선수 임원들의 잊갈린 표정을 남기고 막을 내렸다.

금년도 전국제전이 남긴 문제점이라면 태권도 경기장의 분위기인데, 날로 저하되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

여기에는 물론 향토의 명예를 걸고 경기에 임

종 합 순 위



우승팀(서울)의 시상장면.

하는 임원·선수들의 승부욕도 있었으나 삼판원들의 미숙한 행동과 심판규정상 약간의 개선점 등으로 인한 물의도 적지 않았다. 하루속히 경

| 등 위 | 도 | 별 | 점 수 |
|-----|---|---|-----|
| 1위  | 서 | 울 | 910 |
| 2위  | 전 | 라 | 818 |
| 3위  | 전 | 라 | 798 |
| 4위  | 충 | 청 | 765 |
| 5위  | 경 | 상 | 745 |
| 6위  | 정 | 상 | 713 |
| 7위  | 경 | 북 | 672 |
| 8위  | 정 | 북 | 632 |
| 9위  | 제 | 주 | 607 |
| 10위 | 장 | 원 | 592 |
| 11위 | 부 | 청 | 556 |
|     | 총 | 북 | 산   |
|     |   | 도 | 도   |

기규칙을 개선하고 보다 덕망있고 자신감있는 심판원 배출이 아쉬울다고 본다.

나아가서는 태권도인 전체가 보다 슬기롭고 알찬 경기운영에 앞장서서 태권도 경기장의 혼 혼한 분위기 조성에 다같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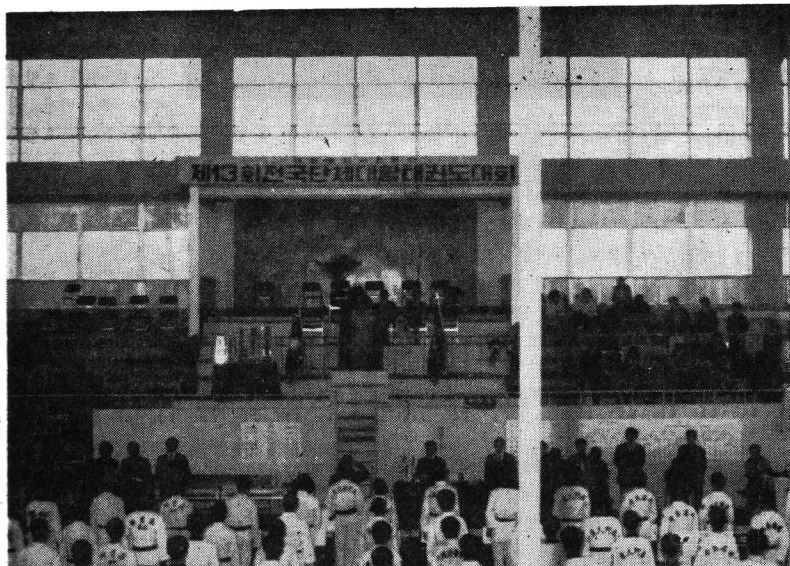
체 급 별 우 승 자 명 단

| 체 급 | 고                          | 등    | 부    | 일         | 반                          | 중   | 기   | 부         | 일   | 반   | 고         | 기     | 부     |
|-----|----------------------------|------|------|-----------|----------------------------|-----|-----|-----------|-----|-----|-----------|-------|-------|
| 본   | 1. 박장익<br>2. 장지웅<br>3. 장지웅 | 충청남도 | 민남동원 | (충청)전남    | 1. 장권진<br>2. 권진권<br>3. 권진권 | 현희호 | 직석진 | (서충)울남산   | 이이희 | 순종영 | 익(제)을(전)을 | 재(전)을 | 남(전)을 |
| 부   | 1. 김우인<br>2. 김우인<br>3. 김우인 | 한일관  | 노성인  | (서충)울남산   | 1. 최진성<br>2. 김진성<br>3. 김진성 | 재노영 | 구문환 | (서충)울남산   | 박윤환 | 구종진 | 남(전)을     | 남(전)을 | 남(전)을 |
| 본   | 1. 지이박<br>2. 지이박<br>3. 지이박 | 용별중앙 | 범은화  | (충청)전남    | 1. 김진용<br>2. 김진용<br>3. 김진용 | 종현영 | 기주영 | (충청)남(전)을 | 김남정 | 순상명 | 태(경)회(전)회 | 남(전)을 | 남(전)을 |
| 본   | 1. 박신진<br>2. 박신진<br>3. 박신진 | 전제창  | 재근구  | (전남)북(전)을 | 1. 박장진<br>2. 박장진<br>3. 박장진 | 오기정 | 성훈원 | (전경)북(전)을 | 박오이 | 수준병 | 부(경)화(전)화 | 울(전)을 | 울(전)을 |
| 타   | 1. 최이진<br>2. 최이진<br>3. 최이진 | 천상명  | 영원관  | (전경)전(전)을 | 1. 박이진<br>2. 박이진<br>3. 박이진 | 천종관 | 경천선 | (경전)기(전)을 | 최이진 | 기무계 | 역(전)현(전)현 | 남(전)을 | 남(전)을 |
| 본   | 1. 정오환<br>2. 정오환<br>3. 정오환 | 국인진흥 | 현남국  | (전경)전(전)을 | 1. 한이진<br>2. 한이진<br>3. 한이진 | 광상삼 | 영호준 | (전부)북(전)을 | 김유환 | 동진영 | 훈(제)환(전)환 | 주(전)을 | 주(전)을 |
| 미   | 1. 이진진<br>2. 이진진<br>3. 이진진 | 농농진흥 | 준환삼  | (충청)전남    | 1. 김장유<br>2. 김장유<br>3. 김장유 | 영호준 | 승태경 | (경전)남(전)을 | 장기진 | 성문영 | 용(제)회(전)회 | 울(전)을 | 울(전)을 |
| 본   | 1. 천송진<br>2. 천송진<br>3. 천송진 | 세종대  | 형화관  | (충청)전남    | 1. 양해진<br>2. 양해진<br>3. 양해진 | 영호준 | 성우철 | (경전)기(전)을 | 마진진 | 상종원 | 원(제)현(전)현 | 북(전)을 | 북(전)을 |

## 大統領 下賜旗 爭奪

## 第一三回 全國團體對抗 跆拳道大會

—The 13th Presidential Flag Taekwondo Championships—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 이틀간 國技館에서 개막된 大統領 下賜旗 爭奪 第一三回 全國團體對抗 跆拳道大會에서 學生部 20팀과 一般部 10팀의 團體가 참가했다.

이번 대회로 열세돌을 맞은 대통령하사기쟁탈 대회는 지난번까지 서울신문사의 主權로 열렸으나, 本大會부터 大韓跆拳道協會가 직접 主權 主管하여大會를 거행한 점에서 의의가 깊었다.

또한 경기운영도 예년과는 달리하여 個人戰複合 團體戰으로 메달 수에 의해 등위를 決定하던 방법을 지양하고, 團體戰 單一方式 토나먼트戰으로 했다. 단일방식 토나먼트의 장점은 참가

선수들 체급에 제한없이, 선봉, 전위, 중견, 후위, 주장의 순으로 대항戰을 벌여, 그팀의 실력을 한눈에 평가할 수 있고, 신속히 계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179명의 選手가 자기 팀의 피켓을 앞세우고 질서정연하게 입장한 가운데 金雲龍 總裁를 대신한 개최사를 통하여 姜元直 경기임원장은 이런 대회를 계기로 태권도 가족들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시키고 참다운 스포츠맨쉽을 기리는 데 좋은 활동력이 되도록 힘쓰자고 말하며 단체협동과 아울러 個人들의 기술발전을 바라고 싶다고 덧붙였다.

개회사에 이어 펼쳐진 南大間國民 學校의 跆拳道연무시범에, 작은 체구의 어린 少年들이 우렁찬 기합소리와 날쌔 동작으로 태권도의 묘기를 보여주어 장내에 모인 관중들의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았다.

연무시범모기에 이은 경기시작은 첫날

예선전의 초반전부터 열전이었으며, 때맞춰 내리기 시작한 싸늘한 가을비에도 아랑곳없이 장내는 훈훈한 감마져 들었다. 이날 학생부에선 20개 팀중 전남체고, 남산공전, 경북체고, 경북협성고, 성동상전, 대성고교, 동대문상고, 송도상고가 각각 결승 진출을 했고, 일반부 10팀 중에서는 인천체전, 동아대학, 신촌도장, 한국체대, 명지대학이 각각 결승진출을 했다.

이날 경기의 방식을 살펴보면,

- 1) 경기는 단체전의 단일방식, 토나먼트전으로 한다.
- 2) 단일경기의 참가선수는 체급의 제한이 없으며 제출된 명단에 선봉, 전위, 중전, 후위, 주장 順으로 팀대항전을 한다.
- 3) 참가선수의 수는 정선수 5명, 후보 1명으로 한다.
- 4) 후보선수는 정선수 유고시에 한하여 그 선수의 순번에서 경기를 할 수 있다.
- 5) 경기가 무승부일 때는 양팀 대표를 선출하여 3분 3회 연장전을 거행하고 연장전에서 도 무승부일 때는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 6) 출전팀의 선수가 2인 이상 출전치 못할 시엔 2팀은 기권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進行된 경기는 각 學生 팀을 응원나온 觀衆들의 열띤 응원과 選手들의 全心を 기울인 투혼(奪魂)으로 쌀쌀한 가을비가 내리는 낮은 기운을 뜨겁게 달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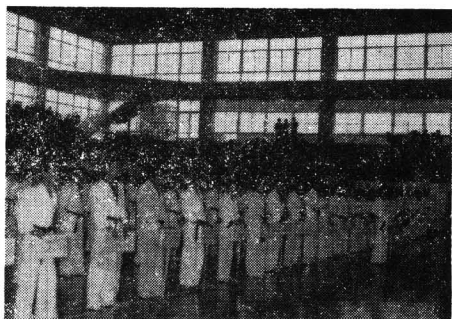
이튿날 결승전은 더욱 고조된 경기 분위기로 일관, 결승에 진출한 팀들의 실력대실력이 충돌하여 흥분과 환호가 장내를 메웠다.

학생부의 마지막 결승전에선 성동상전의 후위 윤준철군과 동대문상고 후위 오일남선수의 경기에선 서로

실력을 가를 수 없는 열전으로 국가대표선수들답게 좋은 경기내용을 보여주었는데, 오일남선수는 뒤돌려차기, 안면공격으로 득점, 승리하여 학생부 우승팀으로 이끄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일반부 결승전에선 신촌도장과 한국체육대학의 경기가 있었는데, 유력한 팀으로 꼽히는 신촌도장과의 對戰에서 후보選手의 問題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한국체육대학의 김종기 후보선수가 출전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선봉 전위의 두 껀임에 승리한 신촌도장의 기권으로 한국체육대학이 기권승을 거두는 이변을 낳았다.

이번 대회는 오랫동안 시도한 단일방식의 단체대항전이라 그런지 군팀의 출전제한 때문인지 군력에 보기도물게 평온한 가운데 대회를 장식하였으나 보다 나은 경기규칙의 개선이 시급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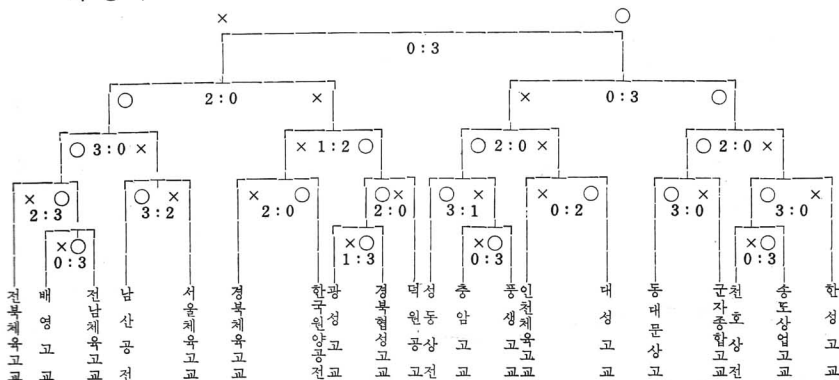
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고 보겠다. 한편 이번 대회가 남긴 문제점은 단일방식의 단체대항전인지라 채점의 제한이 없어 경량급선수들의 진출에 찬물을 끼얹은 감이 들었다. 또한 현재까지 8체급으로 나뉘어 출전하던 선수들의 수가

후보포함 6명으로 되어 종전에 비해 2명의 선수가 경기에서 탈락하게 된 아쉬움이 있었다.

제14회 때부터는 국내 최대의 대회로서 명실공히 알찬 경기를 이끌도록 좀더 광범위하게 개최되어 질 것을 바라는 바이다.

## 참가팀 및 대회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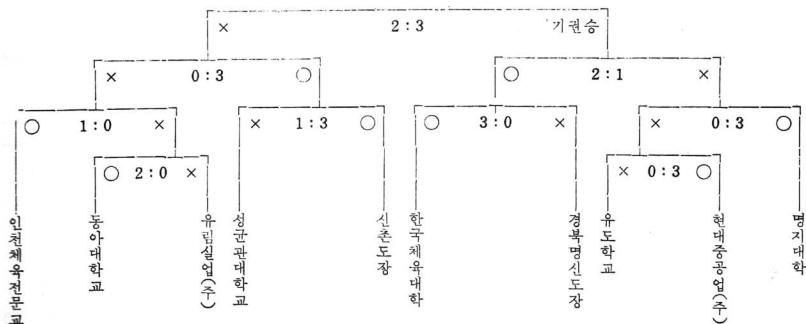
## 학 생 부



- 1 위 : 동대문상업고등학교
- 2 위 : 전남체육고등학교
- 3 위 : 성동상업전수학교

- 3 위 : 경북협성고등학교
- 장려상 : 풍생고등학교
- 감투상 : 송도상업고등학교

## 일 반 부



- 1 위 : 한국체육대학
- 2 위 : 신촌도장
- 3 위 : 인천체육전문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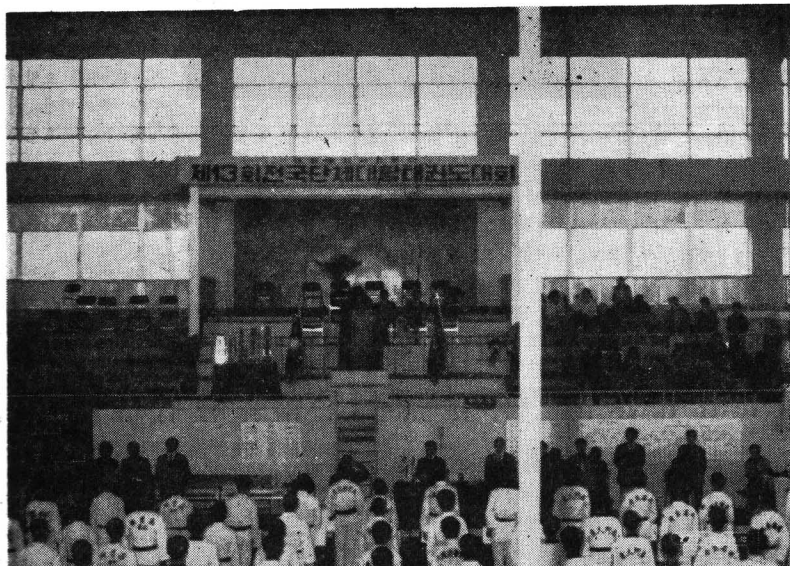
- 3 위 : 명지대학교
- 장려상 : 현대중공업주식회사
- 감투상 : 동아대학교



## 大統領 下賜旗 爭奪

## 第一三回 全國團體對抗 跆拳道大會

—The 13th Presidential Flag Taekwondo Championships—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 이틀간 國技館에서 개막된 大統領 下賜旗 爭奪 第一三回 全國團體對抗 跆拳道大會에서 學生部 20팀과 一般部 10팀의 團體가 참가했다.

이번 대회로 열세돌을 맞은 대통령하사기쟁탈 대회는 지난번까지 서울신문사의 主權로 열렸으나, 本大會부터 大韓跆拳道協會가 직접 主權 主管하여大會를 거행한 점에서 의의가 깊었다.

또한 경기운영도 예년과는 달리하여 個人戰複合 團體戰으로 메달 수에 의해 등위를 決定하던 방법을 지양하고, 團體戰 單一方式 토나먼트戰으로 했다. 단일방식 토나먼트의 장점은 참가

선수들 체급에 제한없이, 선봉, 전위, 중견, 후위, 주장의 순으로 대항戰을 벌여, 그팀의 실력을 한눈에 평가할 수 있고, 신속히 계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179명의 選手가 자기 팀의 피켓을 앞세우고 질서정연하게 입장한 가운데 金雲龍 總裁를 대신한 개최사를 통하여 姜元直 경기임원장은 이런 대회를 계기로 태권도 가족들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시키고 참다운 스포츠맨쉽을 기리는 데 좋은 활동력이 되도록 힘쓰자고 말하며 단체협동과 아울러 個人들의 기술발전을 바라고 싶다고 덧붙였다.

개회사에 이어 펼쳐진 南大間國民 學校의 跆拳道연무시범에, 작은 체구의 어린 少年들이 우렁찬 기합소리와 날쌔 동작으로 태권도의 묘기를 보여주어 장내에 모인 관중들의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았다.

연무시범모기에 이은 경기시작은 첫날

예선전의 초반전부터 열전이었으며, 때맞춰 내리기 시작한 싸늘한 가을비에도 아랑곳없이 장내는 훈훈한 감마져 들었다. 이날 학생부에선 20개 팀중 전남체고, 남산공전, 경북체고, 경북협성고, 성동상전, 대성고교, 동대문상고, 송도상고가 각각 결승 진출을 했고, 일반부 10팀 중에서는 인천체전, 동아대학, 신촌도장, 한국체대, 명지대학이 각각 결승진출을 했다.

이날 경기의 방식을 살펴보면,

- 1) 경기는 단체전의 단일방식, 토나먼트전으로 한다.
- 2) 단일경기의 참가선수는 체급의 제한이 없으며 제출된 명단에 선봉, 전위, 중전, 후위, 주장 順으로 팀대항전을 한다.
- 3) 참가선수의 수는 정선수 5명, 후보 1명으로 한다.
- 4) 후보선수는 정선수 유고시에 한하여 그 선수의 순번에서 경기를 할 수 있다.
- 5) 경기가 무승부일 때는 양팀 대표를 선출하여 3분 3회 연장전을 거행하고 연장전에서 도 무승부일 때는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 6) 출전팀의 선수가 2인 이상 출전치 못할 시엔 2팀은 기권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進行된 경기는 각 學生 팀을 응원나온 觀衆들의 열띤 응원과 選手들의 全心を 기울인 투혼(奪鬼)으로 쌀쌀한 가을비가 내리는 낮은 기운을 뜨겁게 달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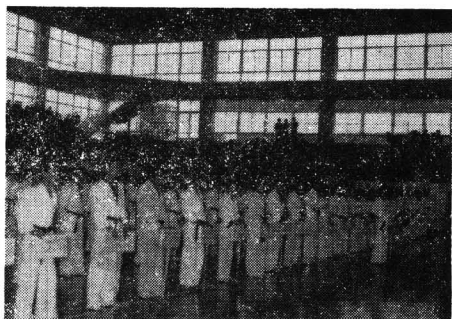
이튿날 결승전은 더욱 고조된 경기 분위기로 일관, 결승에 진출한 팀들의 실력대실력이 충돌하여 흥분과 환호가 장내를 메웠다.

학생부의 마지막 결승전에선 성동상전의 후위 윤준철군과 동대문상고 후위 오일남선수의 경기에선 서로

실력을 가를 수 없는 열전으로 국가대표선수들답게 좋은 경기내용을 보여주었는데, 오일남선수는 뒤돌려차기, 안면공격으로 득점, 승리하여 학생부 우승팀으로 이끄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일반부 결승전에선 신촌도장과 한국체육대학의 경기가 있었는데, 유력한 팀으로 꼽히는 신촌도장과의 對戰에서 후보選手의 問題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한국체육대학의 김종기 후보선수가 출전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선봉 전위의 두 계임에 승리한 신촌도장의 기권으로 한국체육대학이 기권승을 거두는 이변을 낳았다.

이번 대회는 오랫동안 시도한 단일방식의 단체대항전이라 그런지 군팀의 출전제한 때문인지 군력에 보기도물게 평온한 가운데 대회를 장식하였으나 보다 나은 경기규칙의 개선이 시급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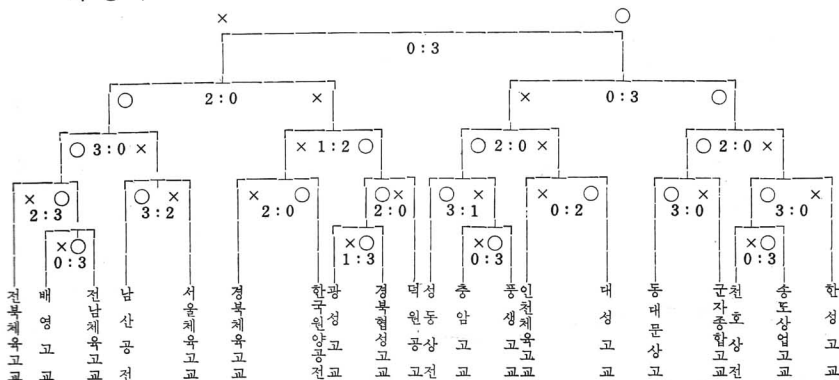
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고 보겠다. 한편 이번 대회가 남긴 문제점은 단일방식의 단체대항전인지라 채점의 제한이 없어 경량급선수들의 진출에 찬물을 끼얹은 감이 들었다. 또한 현재까지 8체급으로 나뉘어 출전하던 선수들의 수가

후보포함 6명으로 되어 종전에 비해 2명의 선수가 경기에서 탈락하게 된 아쉬움이 있었다.

제14회 때부터는 국내 최대의 대회로서 명실공히 알찬 경기를 이끌도록 좀더 광범위하게 개최되어 질 것을 바라는 바이다.

## 참가팀 및 대회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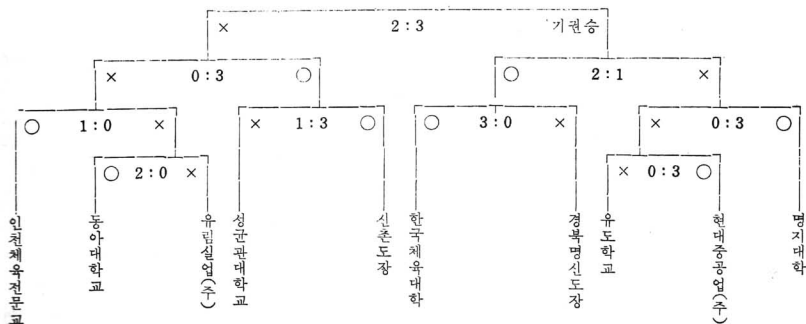
## 학 생 부



- 1 위 : 동대문상업고등학교
- 2 위 : 전남체육고등학교
- 3 위 : 성동상업전수학교

- 3 위 : 경북협성고등학교
- 장려상 : 풍생고등학교
- 감투상 : 송도상업고등학교

## 일 반 부



- 1 위 : 한국체육대학
- 2 위 : 신촌도장
- 3 위 : 인천체육전문학교

- 3 위 : 명지대학교
- 장려상 : 현대중공업주식회사
- 감투상 : 동아대학교

## 體育의 참다운 有用性

—넋두리 一題—

최 희 숙

작년 여름인 것으로 기억한다. 친구와 함께 시내에서 좀 호젓히 벗어난 마을로 선배를 방문. 차 길을 나섰다. 마침 시험 준비로 도서관에서 아직 귀가를 하지 않았다고 하기에 되돌아서 걸어오는 길에 어느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다. 대학 4년 쯤 되어보이는 7~8명의 청년들이 문밖 탁자에서 몸을 누이고 있었고 우뚝 서둘러 그 앞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들에게 던지는 그들의 말장난을 못들은체 가고 있었다.

늦은 밤은 아니었으나 저녁 치고는 이색했고 가로등도 변변찮아 달빛이나 가게의 불빛이 전부인, 행인도 뜸한 거리에서 그만 우뚝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속에서 심층 느껴지는 불길한 기분과 귀찮고 짜증스러운 등 번잡하게 감정이 엇갈리는 차 갑자기뚱 머리채에 남자 손길의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내 팔꿈치는 그의 가슴 중앙을 명중하여 그는 고통스럽게 몸이 숙여졌는데 그것은 순식간에 스스로를 방어한다는 원시적인 느낌이 상황과 논리를 앞서서 어설픈 행동으로 보여진 것이 었던것같다. 그들 모두가 양심없는 청년들은 아니었던지 일행중 다른 한명이 뛰어나와 우리에게 사과하며 돌아가기를 권했다.

세상의 어느 골목에서 부딪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 가슴과 머리가 있을텐데 그저 반

가슴과 신뢰로 인사하고 지날수는 없나 하는 안타까움과, 사랑하는 이도 아닌 거리의 불한당에게 머리채가 매단져진 불쾌감이 가슴에 일종의 상처로 남은 복잡한 느낌으로 공연한 비애가 스며들어 이윽고 우뚝 말없이 돌아섰다.

그후로 난 서점에 들릴 때마다 태권도니 합기도니 하는 책들을 들춰 거리게 되었다.

「태극사상이라는 것은, 하늘에 나타난 月・日・星・風・雲 등의 운행이나 변화를 고려하고 지상에서 일어나는 산천, 새, 초목 등의 변동을 잘 관찰하여 인간의 여러 현상에 적용시킨 역(易)사상에 근원을 둔 것으로 이의 본태(本態)를 태극이라 명명하고 있는데 이 태극이란 것은 우주의 근원이 되는 氣로서 이 원기가 Energy원으로 되어 태극이 음양으로 나누어지고 다시 팔괘・육십사괘・삼라만상으로 갈라져 가는 것으로서 우주의 생명현상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태권이란 태극권 사상에 의거한 천리(天理) 자연 법칙을 신체운동에 적용시켜 四肢의 屈伸・신체의 신뢰방법을 정하고 攻防自在의 권법에 적용시켜서 柔로써 剛을 제압한다.

이 때문에 태권도의 동작은 완전히 자연스럽고 氣의 양성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무리한 동작이나 不必要한 근육은 사용하지 않는다.

태극권을 單純히 건강법으로 행하고 있는 사

람이 많은데 이것은 사용법을 秘傳으로 해서 전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다. 태극은 무도로써 단순한 체조이다. 동작은 매우 유연하여 적의 힘

벌써부터 지난 여름의 그 사진은 잊게 되었지만 자꾸 태권등 다른 무술에 대해서도 마음 설레지는 것이 남들이 많이 안하는 체조이니 자광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몸도 더 좀 건강해질 것 같고 가다가 또 치한도 더러는 상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몇가지 이상의 구실과 까닭으로 마음은 크진만 막상 여기저기 돌아보면 마땅한 체육관이 눈에 안 띄는 것이다.

보통은 국민학생 정도의 관원이 주가 된 체육관, 중고생, 청년이 주가 된 체육관이 대체적인 것으로 여성만을 위한 체육관이 드문 것이 제 1의 문제점이었고 이제 스폴하고도 몇 년은 더 넘어가버려 굳어진골격으로 어더 쉽게 혹은 쉽지 않게라도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도 난 점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무술의 필요성이나(나로 보자면 적어도 자기방어의 호신술 정도로서) 몸매 등 알파한 마음의 움지임이 속으로만 싹트기를 한참 보내다가 문득 나는 자신에게 참으로 우스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는데 그것은 무술이든 혹은 어떠한 Sports든 그 참다운 목적과 목표가 더줄 이상적인 태에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고 체육을 하므로써 다져지는 정신생활의 인내는 질서나 전신적인 생각하고는 너무도 판이하게 다름을 알고있는 까닭에 만일 참다운 스포츠라는 것이 약육강식, 자기방어의 원시시대부터 다져져 왔다면 과연 지금의 스포츠, 스포츠맨이 훨씬 더 광대한 의미에서의 전민족의 모습일 것이어서 현상태의 삶과는 다소 다른 차원의 삶을 아마도 누리게 되지는 않았을까도 생각이 드는 까닭에서였다.

그러면서 나는 과거로부터 이 민족의 참다운 무인으로는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다.

명장 김유신, 김춘추 성웅 이순신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다 문득 고려의 최충헌에게까지 생각이 미치었다.

정권을 잡는 조정에서(李義民)을 위시해서 많은 경쟁자를 죽이고 왕을 폐위하고 아우 忠粹를 죽이고 권좌에 올라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통하여 사병을 거느리고 막무정치를 수행한 최충헌, 그의 권세는 나는 세도 떨어뜨릴 정도요, 산천초목이 그 앞에 었드렸고, 심지어 자기에 항거하는 승려를 8백명이나 죽여 남게 천번에 쌓아두어 수개월간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못할 지경으로 까지 서슴없이 행한 최충헌, 물론 고려를 뒤엎은 이조시대의 이성계에게 그는 반역자일 수 밖에 없어 이후의 고사에 과장된 모습으로 표현되었을 것이나 그의 생은 살육과 권모와 모역과 영광에 물들은 일생으로 고려 문신들의 사대주의적인 평화주의에 대극(對克)하여 일어난 고려 무신의 최후의 피수입은 틀림없는데 그러기에 그는 문신의 국제주의에 대립한 고려적 민족주의의 화신이었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으로는 사병을 수만명씩 거느리어 자기의 울타리를 삼고 밖으로는 이 사병으로 오랑캐를 무찔러 국위를 선양했다. 이로써 당시 최씨집권 60년간은 우리나라 민족주의가 최고도로 발휘된 때이기도 하고, 이 여세를 몰아 몽고의 침략을 수습년이나 견디어 낸 강화시대가 그의 죽음 뒤에도 있고보면 그는 사실 민족적 영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난 요컨대 그러한 그를 권세와 Sports라는 각도에서 상기고 싶은 것이다.

스포츠란 현대적인 어휘를 권세와 함께 쓰는 것이 부자연스럽긴 하나, 우선 그는 자기의 무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어떠한 식으로 체력을 다졌을까가 궁금하다. 펜스체조나 달리기보다는 달타고 달리기를 했겠고 주먹을 다지기 위해 Sand bag을 치기보다는 창던지기, 활쏘기, 칼쓰기, 등을 연마했을 것이다. 혼신의 힘을 기울여 상대방의 급소를 찌른다고보다는 재빠른 동작과 예민한 눈으로 적에게서 몸을 피하며 가능한 다수의 목숨을 베어버리기에 그 휘두르는 칼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권세를 위하여 칼을 빼들든 칼을 쓰다 보니 권세를 탐하였든간에 꼬마세도부터 차츰 밝아 큰 권세를 잡았을 터인데 물론 그 권

력에 대한 사랑은 권세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더욱 커졌을 것이다. 모든 전제정권하에 있어서 권력을 잡는 자들은 권력이 주는 기쁨을 경험해 감에 따라서 그 포락이 점점 늘어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력은 사람들이 다소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데서 표시가 되는 것임으로 권력애를 동기로 행동하는 사람은 남에게 쾌락을 용납하기 보다는 고통을 가하기가 점점 쉬운 일이 아닐까.

그럼으로써 최충헌은 천금같은 인명의 막대한 학살을 대수روی 감행했고 결과적으로 그가 영웅적인 민족주의자였던 민족적인 영웅이었던 참다운 체육인으로서의 인간적인 대열에서 여지없이 탈락될 것임은 두말할 여지도 없을 것인데, 그로부터 수세기 뒤에 서양에서 나타난 그 못지 않은 권력에 광증환자인 나폴레옹을 생각해 볼 때 비락출세를 한 군인으로서 무슨 이베올로기적 신념이 있어서 코르시카를 버리고, 프랑스편으로 간것 같아보이지는 않는 그가 만일 그대로 코르시카 황제가 됐더라면 프랑스인임을 가장하여 권세와 허영을 누린 그 정도의 위대성을 보다 넘어섰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한 나폴레옹에게 호화로운 자기의 궁전을 나누고 모스크바를 뺏으러 달려갔다가 황량한 눈밭을 비참절절하게 쫓겨오질 말고 한국의 최충헌과 그야말로 참다운 무인의 입장에서 씨름이라도 한판 벌렸더라면 살육, 모략 도매의 생애와는 적어도 충분히 다른 각도에서 승부에 구애됨 없이, 사나이대 사나이의 이상적인 우정이 결정(晶結)되어, 배후에 국위선양이라는 아름다운 짐을 걸머진 채, 장렬한 악수라도 한번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모두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라, 시대도 걸맞지 않은 동서양의 사람을 들먹여가며 권세니 씨름이니 하고 있으니 위의 말들은 대체로 그 영혼이 노할 방자한 언동인 것이 틀림없이 공연히 마음이 찻찻해 진다. 아마도 필경은 이렇게 전세계의 시대를 초월한 영웅이라 일컬어지는 나폴레옹을 들먹여 촌서(寸書)를 휘갈기는 방자한 본인이야말로 참으로 체

육의 진정한 도덕적 정신적 신체적 울타리의 체육관에 잡아 넣어야 할 것이다.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몸을 움직여 적어도 남을 해코자 아니하고 적어도 물질을 우선으로 생각지 말며 명예를 초개와 같이 생각하고 승부를 우선하여 비겁을 일삼지 않는 게 그리하여 획적인 신체활동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 시키는 데서 궁극적으로 인간성이나 인격완성의 토대를 닦으면 어디 역사를 들추어가며 방자한 언동을 일삼을 수 있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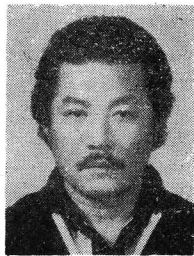
가을도 증척을 넘어섰다. 그야말로 Tennis 하기 위해 봄부터 버려오기를 수개월이나, 봄은 웬지 나른하고, 여름은 너무 무더워 기동이 어렵고, 가을은 무언지 바빠 계절의 반을 지내 버렸으니.....하다가 쿡하고 한번 실소가 터졌다 Nixon이나 Jewett의 「體育이란 個人의 運動可能性의 개발과 活用, 이와 관련된 반응 그리고 이러한 반응의 結果에서 오는 個人의 영속적인 行動수정에 관계된 전 교육과정의 一面으로 定義될 수 있다」란 말과 Laporte의 「身體의 精神的으로 個人의 最大力量을 달성시키고 격렬한 정서적 Stress F에서라도 선풍한 시민으로서 현명하게 그리고 協動的으로 自身의 能力을 使用할 수 있게 學習시킬 수 있는 신체活動을 미래로 하여, 個人을 발달시키고 教育시키는 것이 라」는 말이 생각난다.

Larson이 체육의 목표는 哲學에서 출발해서 과학으로 끝난다고 말하여 설정한 「달성해야 할 핵심적가치의 5영역인 1. 개인 건강 2. 신경근육적 발달, 3. 활동중의 인간유기체에 대한 지식, 이해 및 감상 4.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 5. 자기 적응적, 집단적응적, 유기체로서의 개인」에다가 외람되나 과감히 일설로 첨가하여 第六, 민족의 탁월한 정신적 육체적 특수성과 훈련된 협동성을 Sport에 심어 국위선양을 그 시대적 목표로 한다"라고 말이다.

아, 생활화된 탁구게임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내가 가을밤을 스포츠라는 소재로 기염을 토하고 있구나 겨울부터 만사를 제치고 운동을 시작해야지.

## 外國人과跆拳道

김길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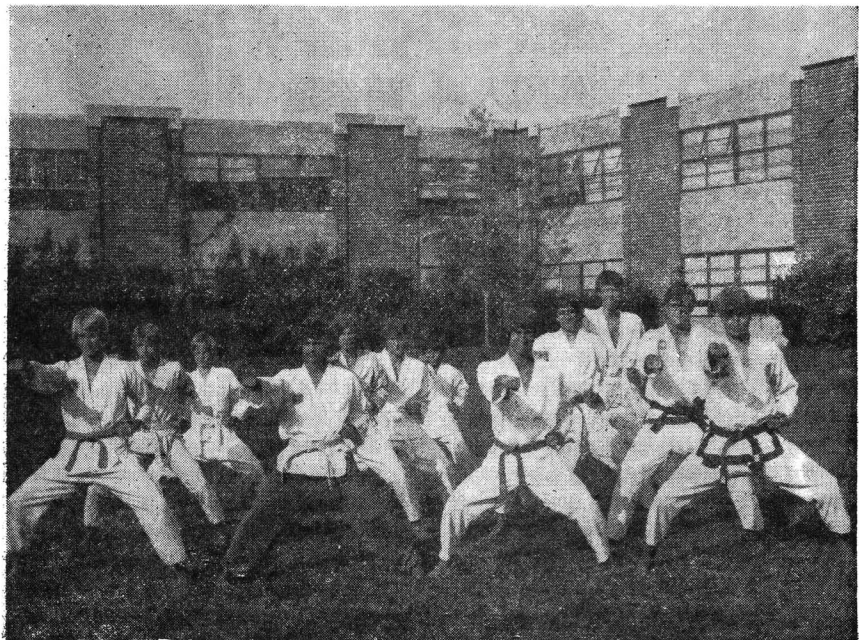
전래되어 오던 한국 무술을 태권도로 키우는 데는 그동안 많은 분들의 숨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으리라 안다. 역사를 통해 그 민족을 알듯이 태권도가 지난 수십년동안 쌓아온 과정을 통해 현재의 태권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면 또하나의 문제점에 부딪히고 그렇게 부딪치고 극복하면서 이른 세계화 국기(國技)화로서 태권도의 오늘. 그러나 오늘도 과제는 남아있다. 10여년 동안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태권도를 가르친 나로서도 그 과제는 없을 수가 없다.

먼저 지난 일을 생각해 보고 싶다. 처음 외국인태권도 수련사범의 첫발을 내디딘 것은 1968년 11월경. 미군내에 태권부 창설을 했다.

그전엔 모험적이고 단순한 기질로 외국인에게 혼자 시범을 보인 일이 있었다. 그들의 인식으로 무술사범이니 불가능한 것이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두꺼운 자구목을 가져와서 깨보라고 했다. 나는 불현듯 생각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보여주어야만 한다고... 두꺼운 자구목이 두쪽으로 깨어짐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그들중 7,8명이 호응을 해었다. 그후 정식으로 시범을 보이고 외국인과의 수련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서울 미국인 중고등학교는 미군내에 있는 학교이다. 이들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5일 동안 체육시간에 특별활동으로 지도해 왔으며, 수업이 끝난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는 5살부터 13살까지의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4시부터 5시까지의 중고등학생, 5시부터 8시까지의 군인과 일반외국인을 지도한다. 이들은 중고

등학생이 95명이고 그외의 인원이 60명으로 백오십오명의 수련생이 있는 셈이다. 이곳 용산미8군내에서만 2,500명 정도가 수련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중 정식 승단심사를 받은 사람은 800명 정도, 본국으로 돌아가서 도장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 얼마간의 소식이 계속되긴 하지만 짧은 기간동안 터득한 실력으로는 지명하기가 힘이드는 모양이어서 1여년의 기간이 흐르면 소식이 두절되곤 했다. 미국인의 기질은 철저한 실용주의 현실주의이며 자기 중심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갑고 냉정하고 끝맺음이 정확한 사람들과 함께 예의와 공손함이 바탕으로된 고유한 우리의 무술을 가르키는때에는 애로가 많기도 했다. 중대에서 그만둔 사람은 심지어 길에서 만나도 인사 한마디 없었는데 웃짓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웃음으로 답하는 우리의 습성으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던 현상이었다. 그러나 서로의 거래가 끝났으면 남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설득할 수 있으랴. 그러나 모든 지도층의 외국인들을 불문하고 태권도를 수련하는때엔 수련생이고 사범인 위치가 있다. 그러한 계급층을 가르킬때와 모국어로 발음되는 태권용어로 그들을 지도할 때 가슴에 차오는 긍지는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성년의 수련생들은 차츰 동양의 예와 인(仁)에 호감을 갖고 태권도를 배우는 태도가 바람직하게 되어가나 유년의 어린이들에게는 차례 자체와 인사법등이 잘 훈련되지 않는다. 귀찮아하고 거주장스럽게만 느끼기 때문이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눈짓 손짓 발짓으로 답답한 의견교환을 했던 것도 그렇지만 진정한 태권도의 정신을 이어받지 못하는 그



들을 볼 때 안타깝고 어려운 것이다.

그동안의 행사라면 75년도 10월에 제 1회 미 8군 태권도대회가 있었다. 그때 대회의 목적은 불우아동 돕기 성금모으기 대회였으며 이익금은 모두 불우아동을 돕는 성금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1976년 11월에는 용산지구 주한외국인 사범지 부단이 창단되었고 주한외국인 대회에 지금까지 5번 참가하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리스트를 냈다. (주한외국인 대회에는 어린이들의 대회가 없는데 국민학교, 중학교의 시합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처음 그들과 운동을 할때, 웃지못할 에피소드로 기억되는 것은 첫째가 언어가 다른 것에 따른 어려움이였다. 운동을 배우고 싶다는 그 말 자체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등하며 그때의 기억을 되돌아 볼 때, 나를 스쳐간 수련생들 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등이 고맙기만 하다.

그들은 물론 한다. 태권도의 유래는 어떻게 됩니까? 태권도를 배우면 어떤 점이 유익하죠? 신체의 어느 부분이 특히 발달합니까? 월남전에서 보니 한국군이 대단히 용맹스럽던데 왜 태권도를 하면 사람이 용감해 집니까? 왜 국기화를 시켰죠?

나는 그들의 많은 질문에 답하면서 아직 확실히 정립해두어야 할 자체내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유래와 발달되는 신체부위와 정신을 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근거와 자료가 좀더 필요하다. 이제 영문책자가 나온지는 3대지 4년 정도밖에 안되었다. 그렇다고 외국인인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 3, 4년 밖에 안되었느냐하면 그렇지 않다. 그전에 설명할 책자도 없이 외국인을 가르쳤던 사범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 생각된다. 많은 영문교본과 태권도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할 책이 많이 나왔으



면 하고 바라고 싶다. 협회발행 캄플릿을 보급시키고, 경기의 틀이나 연구논문을 영문화하여 그 자체의 홍보활동이 활발해야 하겠으며 각의 국서적을 담당하는 서점에 태권도교본을 배치하여 언제라도 필요에 의해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미8군내의 서점에도 라이벌운동의 책자는 많은데 태권도교본만이 없는 것이다.

태권도를 발전시키고, 그 보급화에 온 힘을 기울여왔던 태권도 관계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고는 있다. 짧은 기간내에 그 어떤 스포츠보다도 급속한 성장을 보인 태권도는 그 대로 우리민족의 강인한 진취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아직도 벽이 있다. 주한 외국인 사범의 질적인 향상 소양교육이 연회에 걸쳐 열렸지만 늘 듣는 협회현황이나 지도자자질 정도로 그쳤을 뿐 실제적인 효과가 없음을 안타까워 한다. 좋은 계획을 형식에 끝내지 않고 계속해 나가기 위해 사범들 자체내의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결실을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증발급의 문제도 있다. 체류기간 1년동안 수련했던 외국인들은 심사과정 후 1달쯤지나면 거의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단증을 못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뒷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국외자에 한해

서는 단증발급이 빨리 나오면 좋을것 같다

적을 알고 적과 싸우듯이 외국인의 습관 언어 신체조건을 알고 그들을 대해야 할 필요를 몸소 느낀다.

그들은 하체가 약하기 때문에 다리를 주로 사용하는 태권도 기본 자세를 잡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 전혀 우리와는 다른 신체를, 우리의 운동에 적응시키기까지의 애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국적을 한국에 두고 살아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어렵다.

앞으로 우리의 태권도가 잘 길은 멀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그만큼 많다. 노력하겠다.

미국으로 건너가 꾸준히 태권도를 계속하는 육군학교의 바니토미(Barney Tormy)군 경우는 나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일종의 하나다. 그는 길게 우리의 철학 사상을 이해하며 열심히 미국내의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인식시키고 있다. 좀더 많은 외국인들이 좀 더 열심히 한국을 알고 한국을 배우기에 우리도 열심히 일하리라는 다짐이다.

이러한 지면을 주신 태권도인 여러분에게 감사사를 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龍山地區 駐韓外國人 跆拳道師範 支部團 團長

참된 교양이라는 것은 무슨 목적을 위한 교양이 아니라, 완전한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항상 그렇듯이 그 자체에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육체적인 기능이나 힘이나 아름다움을 얻으려는 노력은 어떠한 중국의 목적, 가령 부자로, 유명하게 유력하게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지 않고 그 자체속에 자량을 지니고 있어 우리 생활감정이나 자신을 높이거나 우리를 즐겁고 행복감에 있게하고, 자신과 건강의 보다 높은 감정을 주는 것이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교양, 즉 정신적으로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노력도 한정된 목표를 찾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참된 교양은 참된 체육과 마찬가지로 실현된 동시에 추진이며, 어떠한 곳에서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고 더구나 어디에서나 머물지 않는 것이다. 즉 무한한 여로의 도상에 있는 것이고, 우주 속에서 서로 진동하는 것이고, 시간 속에서 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목표는 개개의 능력이나 성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의미를 주는 것이고, 과거를 해석하고 접없는 마음으로 미래와 대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는 것이다.

—헤르만 헷세—

# 跆拳道는 어린이 成長에 利롭다

권 오 열

한국국민학교 태권도연맹

- [1] 專門醫들의 의견 종합
- [2] 專門醫들의 問題分析
- [3] 學父兄들의 意見
- [4] 學父兄들의 意見에 대한 分析과 대책
- [5] 學校 跆拳道部員과 他運動部員의 비교
- [6] 跆拳道人들의 實 驗

“跆拳道는 어린이 成長에 害롭지 않다”

태권도는 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하여 국민학교 교육과정으로 채택되어, 많은 이론적 배경을 지니면서 國技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제구실을 확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어, 국민체력 向上과 국위선양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태권도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태권도를 아끼고 사랑하며 보다 완전한 태권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참고의 칼들을 많이 해주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정리 분석하여 보다 더 合理的이고 완전한 태권도로 성장 발전시키는 것이 태권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지난 78·9. 3日字「주간한국」에서는 여러 專門醫들과 父兄들의 意見을 들어, 태권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지적해 준 문제점들의 허실을 조사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1. 전문의의 의견종합

전문인들의 意見을 정리해 보면

1. 과격한 태권도 지도는 뼈 성장에 나쁘다.
2. 다른 운동에 비해 안전사고가 많다.
3. 태권도는 차고 때리는 운동이라 人格형성

에 좋지않다.

4. 體力, 體質, 기량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도한다.

5. 태권도인 중 키가 작은 사람이 많다.

6. 태권도인의 주먹은 기형적이고 외형상 흉하다.

7. 태권도는 15세 이후에 지도해야 한다.

의견들 대부분이 추측과 상식에 의한 것 뿐이며 태권도를 바르게 이해한 바탕에서 종합분석한 결론이 못된다.

운동의 가치성은 정당하고 바른 지도방법과 교육의 결과에 의해서 평가되어야지 막연한 추측과 상식, 잘못된 지도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問題分析

### (1) 안전사고가 많다

태권도의 겨루기를 구경한 사람들은, 그 민활한 중심이동과 재빠른 행동들을 보고, 곧 부상과 사고를 연상하게 되나, 겨루기를 하기까지의 연습과정, 교육과정을 알게 되면, 곧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알게 된다.

태권도는 인간의 자연스런 동작을 반복, 연습하여, 자기가 의도하는 동작을 익혀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운동으로, 신체에 무리나 과로를 주지 않는 운동이다.

운동 중 발생하는 상해의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준비운동 부족.
- ② 주의 산만.
- ③ 과로와 과도한 훈련.
- ④ 과도한 긴장.

- ⑤ 기술부족과 훈련부족.
- ⑥ 반칙행위와 난폭행위.
- ⑦ 기구, 장비, 시설 및 환경의 결함.

태권도가 다른 운동보다 사고가 많을 것 같으나, 실제로는 다른 운동보다 훨씬 안전한 운동임을 알 수 있다.

태권도는 먼저 공격보다는 방어를 익히는 방어용 운동이며, 지도과정이 체계적이어서 난해한 동작도 자연히 습득하게 되어 있다.

지난 8년 동안 태권도 부원 100명 이상과 학급아동 70여명을 지도하여 본 결과, 태권도를 하지 않은 학급 아동들의 생활태도가 훨씬 난잡하고 무질서하여 안전사고 빈도가 훨씬 잦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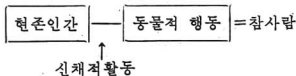
또 지금까지 여러번의 국민학교 태권도 대회를 치뤘 왔지만((10여대회, 6,000여회전의 경기), 사고는 없었다고 해도 좋을 만한 경미한 몇 건에 불과했다.

학교에서도 안전사고를 살펴보면, 지도교사가 지도하는 운동경기에서 보다는, 아동끼리하는 놀이에서 훨씬 많이 발생한다. 운동경기 중 생기는 사고율도 투기종목보다 구기종목에서 훨씬 많다는 통계들이 나와 있다.

## (2) 跆拳道는 차고 때리는 운동이라 人格형성에 좋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근원적 경향성(일정한 자기에 반응하는 독특한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소유욕, 공격, 구타, 살생, 약탈등의 심성으로 구성된 근원적 경향성이 그대로 나타나면 반사회적 행동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sports 들의 활동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차고, 받고, 던지고, 때리고, 달아나는 원시적인 행동과, 들치고 달치고등의 반사회적인 근원적 경향성을 충족시키는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근원적 경향성을 발산시키고, 인성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신체활동을 통해 욕구를 해소시키며, 진전하고 이상적인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권도에서 차고, 때리고, 찌르고 하는 것은 人格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원만하고 이상적인 人格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하여 모든 것을 경험하고, 놀이도 성장에 따라 간단한 놀이에서 복잡한 놀이, 집안놀이에서 집 밖의 놀이로, 혼자 놀이에서 집단 놀이로, 발전하게 되며, 그때는 다음과 같은 사회욕구를 갖게 되는데, 태권도지도를 통하여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다.

어린이의 사회적 욕구의 특징

- ① 사회관계에 참여하려는 욕구
- ②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는 욕구
- ③ 사랑을 받고 주려는 욕구
- ④ 우쭐대려는 욕구
- ⑤ 자기를 나타내려는 욕구
- ⑥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려는 욕구

## (3) 跆拳道는 個人差를 고려하지 않고 지도한다.

태권도 겨루기에 있어서 개인의 體力, 體質, 기량등을 생각지않고 1:1 겨루기를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태권도 지도시(時) 가장 배려하고 관심있게 하는 것은 기량에 맞는 사람끼리 짝을 지어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급·품·단」 제도가 수련자의 기량을 분류하는 제도이고, 경기시 원급부터 해비급까지 8체급으로 분류하여 지도하는 것이 수련자의 체력, 체질을 고려하고, 같은 조건으로 편성시키고 있으며, 1품 이상자만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하여 기량면의 대등한 조건을 형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겨루기가 위험하고 격렬하다고 하는데, 기초에서부터 겨루기까지의 과정과 기간을 알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서는 자세, 주먹 쥐는법, 중심 이동법, 기본동작, 품세, 3본겨루기, 2본겨루기, 1본겨루기, 약속겨루기등의 과정을 통해서 기초적인 자유 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 (4) 跆拳道는 키가 자라지 않는다

「태권도인중에 키가 작은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태권도 때문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고 韓斗鎭박사는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운동이 적당히 이루어지면 이롭지만 과격하면 해롭다.

뼈를 적당히 자극할 경우에는 뼈의 성장을 돕는다고 했다. 그러면, 올바르게 지도받고 바르게 운동한 사람은, 운동이 키의 성장을 도울 수 있으나, 잘못된 지도와 틀리게 운동한 사람은 운동이 성장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운동종목이 키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방법과 실행방법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人間은 누구나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거나 보충하려 하지 않겠으나,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부족과 결함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보충하려고 노력하게 마련이다.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결함을 태권도로 보충하기 위해서 수련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이다. 그러므로, 태권도인 중 키작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태권도를 해서 키가 작은 것이 아니라 키가 작아서 태권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하루 빨리 원인이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 (5) 跆拳道인의 주먹은 흥하다.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적당한 자극이 뼈의 성장을 도우나, 지나친 자극은 성장을 방해한다고 했다. 그래서 어린이에게는 주먹단련등의 과격한 자극이 금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이 끝난 전문적인 태권도인에게는 좀 다르다.

한두진박사의 의견도 객관성과 보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단 1사람의 예이고 또 비교가 같은 유전인자를 갖춘 사람과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태권도인의 주먹은 강인하고, 태권도 초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으면 된다.

모든 사람의 손이 획일적으로 같고 비슷한 상황도 곤란한 것이다.

농부, 사무원, 기능인, 체육인 또는, 남자 여

자의 손이 각기 특징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문제인 것 같다.

거칠은 농부의 손을 비웃을 수 없고, 기능인의 기능 붙은 손을 지저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우물우물한 태권도인의 주먹을 흉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자랑스럽고 믿을직스러운 것이다. 여자손같은 남자의 손에서 남자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

#### (6) 跆拳道는 15세 이후에 지도해야 한다.

성장발달상 15세 이후의 근육은 급격히 증가하나, 정신력은 근육에 미치지 못해 심신의 불균형을 이루는 시기이다.

이때, 태권도를 배우는 것 보다는, 호기심과 감수성이 강한 어릴 때의 지도가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어릴 때는 어려운 동작이라도 쉽게 익힐 수 있으므로, 그때 익힌 것은 기술(skill)로 거의 일생동안을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교육을 염려 걱정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나, 이미 수영과 체조등은 10대 선풍을 일으키고, 가장 좋은 기록은 10대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 많은 체육 코우치들의 말에 의하면 운동을 빨리 시작한 사람일수록 좋은 경기력을 나타낸다고 한다.

기타 세능 계통에서도 조기 교육을 시켜야만 대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태권도도 심신의 발달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지도한다면, 태권도 교육이 빠를수록 좋다 하겠다. 요는 모든 것이 지도자의 능력과 양식에 좌우된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운동종목으로 판가름할 수는 없다고 본다.

#### 3. 父兄들의 意見

부형들은 대부분 태권도 지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효과적인 운동 종목이라고 대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 소심했던 어린이가 대범해졌다.
- 주의산만한 아동이 차분해졌다.
-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 식욕이 좋아졌다.

○ 협동심 등 사회성이 많아졌다.

그러나 주간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들고 있다.

① 운동을 너무 심하게 시키고 있다.

② 체벌이 심하다.

③ 태권도 이외의 과외공부를 시킨다.

④ 부조리가 있다.

#### 4. 父兄들의 意見에 對한 分析과 對策

##### ① 운동을 심하게 시킨다.

육심과 의욕이 지나치면 과열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지도자는 좀 더 잘 가르쳐서 좋은 효과를 얻고 싶고 또 아동에게도 자신감과 성취감을 안겨주기 위한다는 것이 이런 과오를 낳을 수도 있다. 성장과정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불만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다.

##### ② 체벌이 심하다.

어린이에게 무도정신을 요구하고 무도정신에 의해서 지도하다 보면 체벌이 가해지게 된다. 지도자 스스로가 정해 놓은 기준치에 의해서 체벌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의 주인공은 어린이임을 알아야 한다. 이성에 의한 교정은 바람직하나, 감정에 의한 질책은 지도자의 인격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일도 된다.

똑같은 어린이도, 지도자와 부모가 보는 가치관이 다르고, 지도내용도 지도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편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혹한 체벌보다는 보상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 ③ 과외공부

태권도를 지도하는 것만으로도, 남을 지도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것이다. 전문적인 연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을, 쉽게 생각하고 행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에게 한가지라도 잘못된 지도가 가해진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또 그것은 원래 태권도 지도이념과도 거리가 먼 것

이다. 지도자의 품위가 손상되고 지위가 하락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④ 부조리가 심하다.

태권도 정신을 지닌 지도자, 사회 정의감이 있는 지도자에게는 관계없는 극히 부분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감사와 인정을 他人에게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지도를 하고, 부형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면을 갖추어야 한다.

◎ 태권도 기술이 우수한 지도자: 정확한 자세로 정확한 지도할 수 있다.

◎ 태권도 지도기술이 좋은 지도자: 쉽고 흥미있게 지도하면 수련생이 잘 따르게 되고 체벌이 필요없게 된다.

○ 태권도 철학이 있는 지도자: 단순한 기술 전달로서 끝나지 않고 여러가지 올바른 사고도 같이 심어줄 수 있다.

○ 인격이 있는 지도자: 모든 언행이 모범적이어서 모든 수련생이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

#### 5. 학교 태권도부원들과 다른 운동부 어린이들과의 비교

##### 1.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

다른 운동부 아동들은 운동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격렬해서인지 성적이 뒤떨어지는 아동이 많으나, 태권도부 아동들은 운동을 시작할 때의 성적을 그대로 고수하거나 약간 향상을 하거나 하며, 뒤떨어지는 경향이 드물었다. 물론 처음 한두달은 하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태권도는 공부와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다.

##### 2. 고운 말씨를 쓴다.

타(他) 운동부 아동들 중에서는 거칠은 말씨를 사용하고 거친 행동을 하는 아동이 많은데 비해, 고운 말씨를 사용한다.

##### 3. 예의 범절이 뚜렷하다.

跆拳道라는 운동이 예의와 엄격한 규율 밑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이어서인지 예의가 바르다. 서울시내 M국민학교에서는 인사 잘하는 착한 아동은 어김없이 태권도 부원이라는 평판이 나있

4. 약자를 도울 줄 안다.

5. 걸으로 봐서는 보통 아동들과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태가 나지않는다.

## 6. 跆拳道들의 할 일

태권도는 국민 체력 향상과 국기 보급의 커다란 명제를 안고있는만큼, 어린이의 태권도 수련은 확실한 이론적 배경과 합리적인 지도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人藝의 신비성을 인정하면서도 확실한 효능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듯이, 태권도에 대한 연구도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外部에서의 문제지적과 비방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확실한 이론을 정립시켜서 막연한 의미에서의 인정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로서 태권도를 증명해주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 환경들이 아쉬울뿐이다.



무한한 세계의 바닷가에 어린이들이 모입니다. 무궁한 하늘은 머리위에 고요히 멈추었고 휴식을 모르는 바닷물은 무섭게 날뛵니다. 무한한 세계의 바닷가에 어린이들이 모여, 외치고 춤을 춥니다

어린이들은 모래로 집을짓고 빈조개껍질로 놀이를 합니다. 마른 나뭇잎으로 배를 만들어 미소지으며 망망한 바다위에 띄웁니다. 어린이들은 세계의 바닷가에서 놀이를 합니다.

## 협 회 동 정

**1978년 8월 3일~12일**

제 24기 지도자 교육

장 소 : 국기원

수강생수 : 106명

**1978년 8월 13일(1차) 20일(2차)**

제 77회 승품 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1차~754명 2차~678명

**1978년 8월 18일~19일**

제 30회 “정부수립기념” 제 9회 주한외국인 및  
여자(국내, 외인)부 태권도 개인 선수권 대  
회

장 소 : 국기원

참가선수수 : 외국인부 130명, 여자부 192명,  
계 322명

**1978년 8월 26일(4단이상자) 27일(3단이하자)**

제 83회 승단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4단이상자~110명 3단이하자~716명

**1978년 9월 4일~7일**

제 5회 전국 중고등학교 태권도 개인선수권대  
회

장 소 : 국기원

참가자수 : 628명

**1978년 9월 5일**

제 3회 아세아 태권도 선수권대회(홍콩)파견  
한국 대표 선수단 결단식.

장 소 : 국기원

**1978년 9월 8일~10일**

제 3회 아세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장 소 : 홍콩 맥피슨 경기장

참 가 국 : 11개국

**1978년 9월 10일(1차) 24일(2차)**

제 78회 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1차~805명, 2차~680명

**1978년 9월 15일**

제 3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홍콩)파견  
한국 대표선수단 해단식.

장 소 : 국기원

**1978년 9월 23일**

2급 심판자격 시험 실시.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89명

**1978년 10월 8일(1차) 15일(2차)**

제 79회 승품 심사 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1차~833명, 2차~566명

**1978년 10월 13일~16일**

제 59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부 경기

장 소 : 인천 동산고등학교

참가자수 : 11개시도의 264명

**1978년 10월 20일(4단이상자), 22일(3단이하자)**

제 84회 승단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4단이상자~ 56명,  
3단이하자~962명

장 소 : 국기원  
참 가 팀 : 20개 대학

**1978年 10月 28日~29日**

제13회 대통령기쟁탈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  
장 소 : 국기원  
참가팀수 : 학생부~20개팀  
일반부~10개팀

**1978年 11月 12日(1차) 19日(2차)**

제80회 전국 승품심사 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1차~800명

**1978年 11月 30日**

요르단 왕국 모하메트·빈·탈랄 왕자와 그  
일행 국기원 방문, 태권도연무시범대회  
장 소 : 국기원

**1978年 11月 9日**

제2회 회장기쟁탈 전국 대학교 단체대항 태  
권도대회

## K. T. A. Journal

**August 3~12, 1978**

The 24th Taekwondo Instructors refresher  
Course.  
Place: Kuk Ki Won  
Applicants: 106Persons.

**August 13, 12, 1978**

The 77th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 Ki Won  
Applicants: 1427 Persons

**August 18~19, 1978**

The 9th Foreigner's and Women's Taek-  
wondo Championships in Honor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Republic of Korea.  
Place: Kuk Ki Won  
Applicants: Foreigners division 130 persons.  
Women division 192 persons

**August 26, 27, 1978**

The 83th Dan Promotion Test  
Place: Kuk Ki Won  
Applicants: Up 4th Dan-110 Persons  
Under 3rdDan-716 Persons

**September 4~7, 1978**

The 5th Middle & High Schoolbey Tae-  
kwondo Championships  
Place: Kuk Ki Won  
Participants: 628 Persons

**Seotember 5, 1978**

It was held Ceremony of KoreanNational  
team formation for the srd Asian Tae-  
kwondo Championships.  
Place: Kuk Ki Won



**September 8~10, 1978**

The 3rd AsianTaekwondo championships to  
open inHong Kong.

Korean National team scooped eight gold

Place: Macphersonstadium in Hong Kong

**September 10, 24, 1978**

The 78th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 Ki Won

Applicants: 1485 Persons

**September 23, 1978**

2nd grade Referee Training Course

Place: Kuk Ki Won

Applicants: 89 Persons

**October 8, 15 1978**

The 79th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 Ki Won

Apdlicants: 1399 Persons

**October 28~29, 1978**

The 13th Presidential Flag Taekwondo Ch-  
ampionships.

Place: Kuk Ki Won

Participants: High school division 20 teams

Genaral division 10 teams

**October 9, 1978**

The 2nd Collegiate Taekwondo Championships

Place: Kuk Ki Won.

**October 13, 16, 1978**

The 59 National Games Taekwondo Com-  
petition

Place: Gymnasium of Dongsan High School  
in Inchun.

Participants: 11 Provincial and city branch  
teams.

**October 20, 22, 1978**

The 84th Dan Promotion Test

Place: Kuk Ki Won

Applicants: Up 4th Dan-56 Persons

Under 3rd Dan-96 Persons

Participants: 20 teams

**October 12, 19, 1978**

The 80th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 Ki Won

Participants: 800 Person

**October 30, 1978**

Prince MohammedBin Talal of Jordan, Visited  
Kuk Ki Won



## 쿠웨이트에 내린 뿌리

Taekwondo in the Kuwait



국방성에 계신 김봉근사범을 찾아갔던 날은 아침부터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가였다. 우쭐대고,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하기 잘하는 이들속에서 우리의 태권도가 자라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태권도장에 들어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 등의 우리말을 들으며 백띠에 흰 도복을 입고 줄지어 선 쿠웨이트 군인들을 볼 때 “쿠웨이트 속에 태권도가 이렇게 보급되고 있구나”하고 가볍게 흘려 버릴 수가 없었다.

훈련 중, 동작이 서툴고, 줄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듯 뻘뻘해진 것이 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땅에서 1년이 넘게 살아 온 필자의 눈에 비친 그들의 움직임이란 경이롭기만 했다. 손과 손사이가 그만한 힘을 넣어주기까지의 과정

이란 「인사알라 부크라」하면 끝나고 마는 이곳의 국민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간의 고충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100여명의 군인들을 4개월동안 지도하고 계신 김봉근 사범께선 그동안 울고 싶도록 답답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며, 상관에게 경례하는 것조차 보기 힘들던 풍토가 바뀌어 사범을 대할 땐 작듯이 한국식의 인사를 하는 것만 보아도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고 흐뭇해 하신다.

쿠웨이트 내(內)에 태권도를 심기 위한 한인(韓人) 태권도협회가 공판의 대사님, 김종해 참사님, 박삼진 한양지점장님과 조용시 삼호지점장님을 고문으로 하고, 김수길 아리랑사장님이 회장이 되어 발족되었으며, 현 쿠웨이트내 실무사









# —오스트리아 파견 기술지도 및 시범을 마치고—

사범이규형



1978년 5월 20일, 태권도 유럽연맹 기술위원 장인 이경명 사범님의 초청으로, 시범 및 기술 지도를 위하여 오스트리아로 향하는 J.A.L기원으로 김포공항을 떠난후 10월 25일까지 약 5개월여간에 걸쳐, 인스브룩 태권도센타에 있으면서 각종 행사 및 도장에 다니면서 가졌던 활동과 느낌들을 간단히 적어 보기로 한다.

나로서는 처음 갖는 해외여행인데다가 더구나 장거리 여행이어서 어쭙찮은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한국 태권도의 진기와 정신자세를 유럽땅에 심고 오겠다는 나름대로의 큰 결심을 하고서, 20여시간의 긴 비행을 끝내고 그곳에 무사히 도착했다. 장거리여행과 시차관계에서 오는 피로가 겹쳐 몸의 컨디션이 말이 아니었으나 절대로 태만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23일부터는 곧바로 운동을 지도하였다.

첫날인 5월 23일, 이날 있었던 일로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오스트리아 대표선수들에게 경기기술지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을 인솔하고 온 오스트리아 대표선수단 부코치인 볼프강(Wolfgang Schindl)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이다. 그날 이 사람은 선수들만을 내게 맡겨놓은 채 자신은 뒤에서 단전이나 피우고 있는것이, 마치 한국에서 왔다는 사범이래야 뭐 별것이겠느냐는 태도인 것 같았다. 상관하지 않고 선수들만을 지도하며 함께 선수들에게 일일이 동작을 시범보이고 함께 호흡을 마춘지 얼마후, 볼프강은 갑자기 일어나서 탈의실로 가더니 도복으로 갈아입고 나와 선수들과 같이 수련을 받기 시작했다. 지도가 끝나자 이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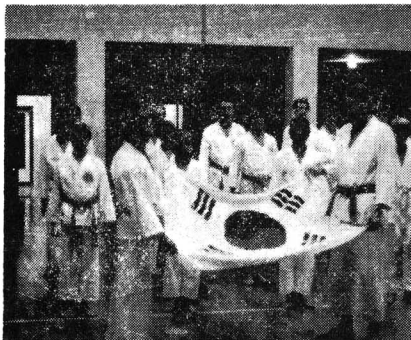
선수들에게, “차렷” “사범님께 경례” 등 우리말 구령으로 명령하여 각々が 예의예 취하므로써 나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뒤에 한국사범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그 볼프강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체력이나 기술등을 과신한 나머지 상당히 거만한 사람이어서, 마치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는 식으로 행동해 오던 사람이었는데, 그사람이 누구에게 고개를 숙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 그말을 들은 나는 어쩔지 흡족한 마음이었고, 이것이 첫날의 기억으로 간직할 일이다.

6월 4일에는 인스브룩에서 있었던 티롤 선수권대회에서 시범을 보이고 심판으로 활동을 했다. 오스트리아 태권도협회 주최로 열린 이 대회에는 10개팀에서 약 80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규모였는데 이날의 시범이 그곳에서 있었던 공식적인 시범으로서의 첫 시범이었다. 쌍고고축, 가위차기, 공중 4방축 등 약 20여 가지의 시범을 보일 때 마다 터져나오는 관중들의 환호자 내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는 그때 일말의 보람같은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 해 나갈 그곳의 활동에 큰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다.

6월 10일에는 독일의 레빙겐에서 활동중인 이종규 사범님의 초청으로 독일에 들어갔다. 약 150명의 관원들이 수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아직도 태극품세가 보급이 안되어 8패품세를 하고 있었다. 태권도 보급에 어떤 차질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6월 14일 부터는 공산국가인 폴란드사람 코나스키의 지도를 하루에 4시간 씩 맡게 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 시범 및 기술지도를 마치고 태극기를 전담〉

구라파연맹의 이 경명 기술위원장이 공산국가인 폴란드에 태권도의 보급을 위해 이사람을 초청하였는데, 그는 폴란드 내에서 국가사범직을 맡고있는 최고 고단자로서 3단을 가지고 있었다. 약 보름간 이경명사범의 품세지도와 본인에게 경기기술지도를 받으면서, 그는 태권도에 대해 굉장한 열성을 보여 주었으며 하나 하나의 동작을 정확하게 익히는데 노력을 하였다. 그는 수련을 마치고 돌아 갈 때에, 내년 봄쯤에 자기 나라인 폴란드에서 인근 국가의 선수들을 초청하여 친선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하기도 했다.

6월 22일에는 인스브루크대학의 박도음사범님의 초청으로 그곳을 방문하였다. 인스브루크 대학에서는 원래 태권도 보다는 가라테가 더 큰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도음 사범의 다양한 기술지도와, 자체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제는 가라테 인구가 태권도로 전향하는 경향을 보여 150여명의 관원이 앞으로 더욱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도음 사범님은 인스브루크 대학에서 교수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젊은 학생층으로부터 날로 인기가 높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은 태권도 인으로서 마음 호호함을 가질 수 있었다.

6월 27일에는, 이엔백에 있는, 오스트리아 사람인 크리스찬(Christian Huber)의 개인그룹에 나가서, 심사와 기술지도를 해주고 100여명의 관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태권도장을 새로 내는 데 비

교적 절차가 수월하다. 도장 하나를 내려면 하나의 그룹을 조직하여 시청에 허가신청을 하면 되는데 회장 부회장 총무등 3인만 갖추어지면 인근의 학교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얻을 수 있고, 일주일에 일정한 시간을 지도하거끔 시간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능력껏 몇개의 그룹을 가질 수도 있는것이 특징이다

9월 1일에는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김영주 대사님과 박신용 영사님께서, 비인에서 인스브루크까지 다섯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를 일부러 찾아오셔서 저녁식사를 대접해 주셨다. 이분들은 평소에도 그곳의 한국교민들의 사생활에 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격정해 주시고 헌신하고 계신데, 나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었으며 금일봉까지 전달해 주셨다.

9월 9일에는 이광배 사범님의 초청으로 모짜르트의 생가가 있는 잘츠부르크를 거쳐 비인에 있는 도장들을 방문하였다. 이광배 사범님은 개인도장 및 여러개의 그룹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데, 관원들에게 항상 친절한 인간애를 베풀어 모든 관원들이 존경하고 있으며, 한국 교민들을 자택으로 초청하여 한국음식을 직접 만들어 식사대접을 하는등 좋은일을 하고 계시다. 또한 TV방송에도 출연, 태권도시범을 보여 오스트리아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사범으로서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9월 30일에는, 인스브루크에 있는 올림피스돌프의 국민학교 체육관에서 시범을 보였고, 10월 7일에는 김정관 사범님의 초청으로 란팩에 있는 그룹을 방문하였다. 김정관사범님은 란팩, 탈렌스, 지일등지에 3개의 태권도그룹을 창설하여 보급에 힘쓰고 있는데 주위로부터 성실하고 열성적이라는 칭찬을 듣는 그는 뚜렷한 한국인의 긍지와 태권도의 정신을 그곳에 심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도장에 들어갔을 때,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각듯이 예의를 갖추고, 조금도 흐트러지지않은 정신으로 지도를 받는 외국인 수련생들을 보고 사범의 정신자세와 많은 노고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10월 15일에는 인스부르크 주재 한국교민들로부터 따뜻한 송별파티를 받고, '석별의 정'을 부

르며 아쉽게 헤어져 20일부터 열리는 구라파 대회를 참관하기 위해 독일로 들어갔는데, 본인이 그곳에 있는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사를 드리고 싶다.

제 2회 구라파태권도대회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서독의 문헨에서 열렸는데 이 대회에 얽힌 해야 할 말들이 많을것 같다. 우선 경과보고부터 하자면, 독일의 하인스막스씨를 대회장, 그리고 네델란드, 터어키, 스페인, 이태리에서 각 1명씩 부회장을 선출하여, 1회대회 우승국인 스페인을 비롯한 폴란드등 유럽 14개국이 참가하여, 1위 독일, 2위 스페인, 3위 네델란드의 순으로 입상을 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경기의 수준은 다양한 기술없이 단일 공격으로 끝나는 비교적 저수준급이었다. 그러나 몇몇의 선수들은 한국선수들 못지않은 상당히 날카로운 실력을 보이고 있어, 자칫 태만해지기 쉬운 한국 선수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덴마크에서 3회 대회를 갖기로 결정하고 끝낸 이번 대회는, 비교적 무난히 끝났다고 보아야겠으나, 진행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 세계로 향한 한국태권도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남겼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심판위원단의 구성방법에 있어서, 세계연맹에서 발급한 국제심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국제심판들을 무시하고, 대회전에 자체 심판강습회를 열어 거기에서 심판들을 선정하였는가 하면, 단의 구별도없이 자체적으로 배심원과 부심을 정하였다. 또한 여기에는 1단 이상이면 누구든지 심판강습을 받고 심판원으로 위촉될 수 있었고, 심지어는 한국인 사범 밑에서 배운 사람이 배심원이 되고 그 한국사범은 주심이나 부심을 보게되어 제자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해야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 대회 개최 자체가, 세계연맹의 허락도 받지 않고 독일인 하인스막스씨 단독권한으로 개최했다에서 뭔가 모순된 양상을 느낄 수 있다.

그곳의 한국 사범들의 말로는, 유럽연맹은 점

차로 행사개최에 한국사범들을 참가시키지 않고 단독으로 해나가려는 눈치가 농후하며, 승단 심사에도 있어서도 유럽연맹 자체 내에서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그들이 합적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단종까지 발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한국사범들도 이번 대회 참가방에 놓고 토론을 벌이다가 소수의 인원만이 참가하였는데, 대회 첫날 26명의 한국인 사범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앞으로의 친목도모와 개인적 영리추구를 떠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단합을 하자는 결의를 가졌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때, 종주국으로서의 우리 협회가 세계 연맹에서는, 구라파연맹내의 문제나 그곳의 한국 사범들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이고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이것이 그곳 한국사범들의 소망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5개월 여간의 해외활동을 마치고 10월 25일 서독 뮌헨공항을 출발하여, 스위스를 거쳐 27일 한국에 도착하였는데, 이것으로 유럽파견활동보고를 마치면서 느낀 점 몇가지를 덧붙인다.

지금 우리의 태권도는 세계로 즐기차게 뻗어나가고 있으나, 앞에서 열거했었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계속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진정한 태권도의 참모습을 위해서는, 량(量)적인 확장 그 자체에 목적을 두지 말고, 이제 정신적인 교육의 보급에 더 치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곳에서 본인이 여러지방에 기술지도와 시범을 다니면서도, 가는곳마다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를 전달하였는데, 한국고유의 무술인 태권도를 세계에 보급함에 있어서, 겨례의 일을 간직하고 한국민을 상징하는 우리의 태극기가 조금도 손색없이 세계도처에서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태권도인들의 깊은 반성과 앞으로의 부단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태권도 대회에 참전한 농아 태권도 선수단

한국구화학교 태권도부

감독 교사 김 영 국



세상에서 외면당한 농아 어린이들에게 웃음을 안겨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농아어린이들의 참전을 허락하여 주신 태권도관계인사 여러분과 우리학생들을 지도하여 주신 무덕관 마포도장 유 병호사범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 4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쟁탈전에서 본교 어린이들이 해비급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장려상 등을 타게된 것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먼저 아란 어떤 것인지 간단히 말씀 드린 후

본교 태권도부의 내용을 전해 드릴까 합니다.

농아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청각에 장애를 입어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어 언어를 획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아동을 농아라고 합니다. 농아가 되는 경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난청이 되어서 청각에 장애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후천적인 어떠한 사고와 질병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800년대만 하여도 40%이상을 유전적으로 보아 왔으나 현재는 15%정도가 유전적으로 나타나

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사업대학의 이 규식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유전성이 11.3%, 임신중 원인이 5.8%, 분만시가 3.3%, 출생후가 69.4% 원인불명이 10.2%로 나타나 있습니다. 출생후의 질병으로서서는 성홍열, 유행성 이하선염, 디프테리아, 인프렌자, 폐염, 홍역, 장티부스, 뇌막염, 중이염 등이며 뇌에 충격을 받아도 난청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약물중독으로서는 스트렙토마이신, 네오마이신 등 항생제에 의한 것이 원인이 되며 이러한 원인으로 하여 청각에 장애를 입은 아동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정상인 사회에 복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아들의 교육방법에는 손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수화교육(manual meathod)과 입의 모양을 보고 말을 하는 구화교육(oral meathod)이 있습니다.

현재 본교에서는 아동들에게 구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화교육이란 쉽게 말해서 언어를 배워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음성은 폐로 들어마신 공기를 내보내어 후두의 성대를 진동시켜내는 소리이므로 호흡에 의지하지 않고는 음성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성의 고저, 강약, 장단, 음색의 변화, 리듬, 감정의 표현도 호흡에 의하여 조절됩니다.

그러므로 호흡훈련을 통하여 지도를 하며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보청기를 사용하여 소리의 유무를 알게 하는 청능훈련도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본교 어린이들은 말을 배우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따뜻하지 못하였고 어디를 가나 벽이 많고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농아 아동들은 성격이 정상인들과 달리 이상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농아의 심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능면 : 농아의 지능검사는 어디까지나 시각을 통한 검사라야 정확하다. I.Q는 전체적으로 일반인보다 100을 기준으로 하여 10~20이



최 병 운 교장

뒤떨어진다. 그러나 한국 구화학교 비폐검사법에 의해 실시한 결과에 나타난 것은 정상아와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

② 심리면 : 농아는 단편적으로 말해서 열등감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면에 다른 심리를 가지고 있다.

첫째——자신이 장애자라는데 대하여 너무도 심기적이어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까지도 공연한 오해를 잘 한다.

둘째——비현실적이다. 외계와의 접촉이 자기 임의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상이나 공상에 의해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세정에 어둡고 비현실적이다.

셋째——불안과 욕구불만에서, 특히 가정생활에서 받는 여러가지 제약을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과 욕구불만의 상태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째——완고하고 유치하며 제멋대로 행동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더욱 완고해 지며, 경험이 적은 관계로 행동이 유치해 질 수 밖에 없다. 또 이해가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일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

다섯째——이기적이다. 자신만을 위하는 경향이 심한 까닭은 약자로서의 불안때문이다.

여섯째——타인에 대한 의존심이 강하여 자신의 역량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타인에게 의뢰한다.

일곱째——대체적으로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정상인을 원망하는에서 적대시하게 되고 반항적

공격적 경향을 띄게 된다.

이 이외에도 많지만 대강 이상 열거한 것이 농아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담당한 특수교육자들은 이러한 장애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서 맡은바 교육사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아동들에게 체육을 통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의사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본교(한국구화학교) 최병문 교장선생님께서서는 평생을 특수교육에 몰바쳐 헌신하는 분입니다.

74년도 10월에 체육 연구수업때 본인은 학생들에게 태권도 연구수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학생시절에 익혀 두었던 태권도의 기능이 크게 학생들의 수업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무사히 연구수업을 끝내서 본교 교장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에게 격려의 찬사를 받은 일이 기억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농아들을 위하여 도장시설을 하여 주시고 또한 운동에 필요한 기구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후 태권도부원들은 열심히 수련을 했는데 농아들은 인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에 떨어지는 아동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감독교사로서 정신적으로 많은 의로움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그후 무덕관 마포도장 유 병호 사범님께서 헌신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태권도의 기능을 가르치는데 물심양면으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많은 애를 태웠으나 현재는 특수교사를 하여도 될 만큼 아동들과 대화가 잘 이루어 졌습니다.

농아들은 청각을 잃은 대신 시각이 매우 발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후 본교에서는 78년 2월에 국기원에서 실시

한 심사과정에서 18명의 유단자와 유품자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학생들을 사랑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교장선생님과 유 병호사범님의 노력의 결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후 신인 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국민학교 연맹 회장기 쟁탈전에 참가하여 그동안 수련한 솜씨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봄 소풍 때 태능에서 본교 선수단들의 시범경기는 소풍을 온 모든 학교의 학생들을 매혹시켰고 많은 내빈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또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를 길러 주시고 기르시고 교육시켜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을 모시고 본교 운동장에서 시범대회를 열어서 부모님들의 노고에 보답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후 유 병호 사범을 정식으로 본교 코우치로 임명한 후 계속 수련을 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은 마침내 기적을 낳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국기원에서 열린 대한 태권도 협회장기 쟁탈전에서 본교 선수들은 5체급에 출전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출전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청각장애를 가진 농아들이 출전한다는 것은 매우 모험적일 수. 또한 감격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충분한 연습시간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운동으로 인해서 수업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은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수련하였습니다.

시합을 하루 앞두고 모든 선수들은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렸습니다. 11월 19일(일요일)에는 모든 선수들이 연습을 중지하고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도 드렸습니다.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 조용기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농아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해비급에서 1위 박철웅(6학년), 2위

문태열(6학년), 3위 박성현(6학년), 미들급 장려상 이 경호(6학년)이 각각 입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절망과 암흑속에서 외면당한 장애인들에게 광명을 던져 준 등대와 같은 중요한 사실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끝으로 대한체육회를 비롯하여 대한태권도협회와 관계기관 여러분들께서는 장애인들이라 외면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장애인들이 태권도의 기능을 보유하고 정상인 대열에서 우승하였다는 사실은 특수교육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랑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

면 세계적으로 청각 장애자 태권도단은 아직 세계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어 보시는 모든 태권도 동호인께서는 계속 불우아동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글을 펴게 하여주신 태권도 관계인사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각장애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하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수동 21번지

한국 구화학교

전화 31-7180

## 계간 태권도지 구독 안내

날로 떨어가는 태권도는 세계 곳곳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권도지 애독자도 날이 늘어가고 있어 회를 거듭할 수록 발행부수가 늘고 있음을 애독자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태권도지 구독을 문의하시는 많은 애독자를 위하여 정기구독신청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접수하고 있으니 이용있으시기 바랍니다.

보낼곳 : 우편번호 100

서울 중구 무교동 19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지 구독담당자 앞

1년간 구독료 : 1,240원(송료포함) 국내

1년간 구독료 : 6,000원(송료포함) 해외

..... 전 취 선 .....

No. \_\_\_\_\_

|     |  |      |  |
|-----|--|------|--|
| 주 소 |  | 우편번호 |  |
| 성 명 |  | 구독구분 |  |

※ 1. 정자로 정확히 명기할 것

2. 구독구분에는 1년간과 6개월을 정확히 구분하여 써 넣을 것

3. 구독료는 소액환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낼 것.

# 국기태권도 그리고 국제사범이여!

—내실과 성장을 향해 전진하자—

유럽태권도연맹기술위원장  
오지리태권도협회 부회장

李 京 明



국기 태권도는 날로 발전하고 있다. 보급면의 확장뿐만 아니라, 조직면에서도 그러하다. 이제 는 국기단위 협회결성에서부터 대륙별 연맹결 성으로 조직화 되었다.

「판·암 태권도 대회」「제 2회 중동 태권도선 수권 대회」를 위시 「제 1회 아프리카 선수권대 회」가 12월 「아이보리코스트」의 「마네장」에서 개 최되고 대회기간에 연맹창립총회가 열린다고 하 며 아시아 태권도 연맹은 지난 9월 「홍콩」에서 제 3회 아시아 선수권대회를, 그리고 유럽태권 도연맹(ETU)은 지난 10월 「핀렌」에서, 제 2회 유럽태권도 선수권대회를 각각 치렀다. 태권도 의 세계화를 위한 발돋움은 1978년 한 해에 기 록면에서 풍성한 실적을 남겼다.

각국협회와 지역별 연맹을 판각, 통괄하는 중 주국 한국에 영원히 본부를 두게 된 세계태권도 연맹(W.T.F)은 1979년 11월 서독에서 제 4회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국제경기연 맹(G.A.I.F)에 가입된 태권도를 위시한 비 올림 픽 경기종목의 제전인 「월드 게임」은 82년 카나 다에서 첫 대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는데, 태권 도종목의 「프레월드게임」이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어 태권도 세계화의 물결은 노도처 럼 일고 있다. 태권도가 국제적 경기로 비약 응 지를 보다 넓혀가고 있음은 우리 전체 태권도인 의 긍지요, 자부라 하겠다.

이제 남은 태권도의 숙원은 모든 스포츠의 총 화제전인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어지는 과제,

바로 그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태권도의 외적인 발전의 결실은 우리 모든 태권도인에게 영광된 기쁨을 안겨준은 사 실이다. 해외에서 이 시각에도 낯선 문화, 언어 풍습속에서도 지도보급에 고심하고 있는 해외사 범의 마음은 정녕 그 밝은 영광의 기쁨 뒤에 도 사린 허전함이 있듯 그늘진 슬픔 또한 없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밝은, 영광뒤에 가려 보이지 아니한 슬픈 사실을 밝혀 보고자 함은 이것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태권도 발전에 도움이 될까 해서 평 소의 소감을 기술하는 바이다.

얼마전 국내로 부터 주어진 소식은 태권도 중 주국다운 자부와 긍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신형도복」이 개발되었다는 것이고, 이미 국내 에서는 보급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내가 몸담고 있는 유럽지역에서는 아직껏 보질 못해 서운한 마음이다. 미래에 남겨질 태권도 역사를 위해 가락테와의 구별과 전통적인 무술사의 고증을 뒷 받침 해주고 보다 실용성이 있다면 때 늦은 감은 있으나 꼭 경사로운 일이라 하겠는데, W.T.F에 서는 짧은 시일내에 신형도복의 보급도를 고려 해서도 해외사범 및 국가단위협회를 통한 효율 적인 이용방법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리라는 생각 이다.

국기로서의 전통적 기술과 그 개발 진도는 어 느 정도인가?

지금까지 치뤘은 어느 국제대회를 막론하고

문제시 되어 온 경기규정상의 하자를 시정보충함이 시급하다. 좀더 합리적인, 그러면서 원칙적인 경기운영이 아쉽다. 예를 들면 A코트의 5번째 경기에서 '청'선수가 이겼다고 확인하는데 판정은 의외로 <홍>에게 승이 선언됐다면 청팀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다. 그러면 이를 접수하여 채점표의 재검토, 심판배정 문제등을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서면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원칙적인 규정이 제정되어야 하겠다.

이와 관련되는 문제로 국제심판감습회는 W.T.F에서만 집행하게 되어있고 국제 심판원의 기한이 분명하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치러 온 국제대회에서 원칙상의 적용운영이 얼마나 되었는지 W.T.F는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국기 태권도로서 주체성과 관련되는 문제로 현행 <채점표>에서 그 모순점을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채점표는 청(Blue)홍(Red)의 표시와 득점, 주의, 감점란으로 구분되어 한글과 영어를 병용——예 : 얼굴쳐 **attacking face**(주의란), 얼굴쳐(**Punching face with fist**(감점란)——해서 기재되어 있다. 이것을 적어도 중주국의 주체성의 영원성을 고려해서도 하루 속히 “얼굴쳐”를 “Eolgulchyeo”로, 즉 한글 발음 그대로 표기함이 중주국다운 자부와 주체성을 확립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채점표 상에 득점, 주의, 감점란의 아래 부분에 숫자의 합계란을 추가로 삽입하여 일목요연하게 배심석에서 판별, 판정의 신속을 기하는데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 용어의 제정과 통일성을 기하는데도 인색치 말아야 한다. 경기가 있을 때마다 아직도 쉬이 들을 수 있는 “꼭쟁이 발” “내려찍기” “도끼발”을 “내려차기”로 한다든가 하는 용어의 미화정립도 시급한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도 다수 국가협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창현류(최홍희 제정)의 품세를 인정, 지도하고 있다 그 품세도 문제이러니와 용어의 상이성으로 인해 빛어지는 문제도 간파해서는 안되겠다. 어느 사범은 자기도장에서는 태극·팔괘 품세를 지도 하면서도 초대받은 출장경의 감습회에서선 채현

류의 품세를 지도해야 하는 고충을 감수하고 있음은 슬픈일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해의 사범 우리 스스로가 개선해야 할 과제이기는 시인하나 국가협회에서 인정된 조직속의 규정을 개인이 시정하기에는 때 늦은 감이 있다. 해서 그 시정방법은 W.I.T에서만이 가능한 성결이기에 시정하는 방향모색으로 국제대회에 품세시합종목도 잠정적으로 추가 채택함이 어떨까 제의해보고 싶다. 아니면 적어도 국제대회에 있어 모든 출전수들에게 자기 단에 해당되는 품세를 사전 테스트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유럽의 실례를 들어보자. D국에서 몇년간 국가코치로 재직했던 S사범은 그의 재직시에는 협회에서 공인하고 있는 창현류 품세에서 팔괘 태극 품세로 바꾸고, 자체에서 발급하는 단증을 국기원단증으로 경신 신청하도록 건의, 노력했던 그가 이제 그 직에서 물러나 자영도장에서는 창현류를 지도 보급하고 있음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 사실이다. 또 이런 일례도 있다 지난 11월 오스트리아 전국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을 때 선수를 인솔하고 참가했던 한 사범은 배심석에만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고단자인 한인사범이 제자인 유단자가 주부심을 보는데 도저히 주심을 본다는 것은 체면이 서질 않는다는 것이고, 시범을 보일 때는 W.T.F가 인정하는 품세의 시범이 아니고 창현류, 그리고 “노매”형인가 하는 따위의 시범을 보임은 그 기술이 어찌 하든 자랑스런 긍지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이다.

조직이 강화되면 그 조직속의 규칙이 강화되고 그 조직체의 정관의 시행력이 강제성을 띠게 마련이다. 이제 유럽에 있어 스페인·독일의 경우는 국기원 단증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에서 단증을 발급하면서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 한인사범에게마저 개인적으로 국기원에 승단신청을 할 수 없게끔까지 W.T.F에서 금지시켰다. 그것은 바로 현실적으로 승단심사자격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사범의 생명이란 결코 심사권한만이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국제사범으로서 심사권한마저 없다면 그도 이미 생명을 잃은거나 마찬가지다. 이 이윤배반적인 모순을 어떻게



W.T.F는 해외사범을 위해 잃어 버린 권한을 되찾아 줄 것이며 국제사범자격증의 위신을 회복해 줄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는 스스로 자질향상으로써 품격을 드높여야겠다. 태권도 중주국다운 긍지와 사명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질향상에의 길은 사범으로서의 높음만을 내세우며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서는 찾을 수 없다. 이윤배반적인 행위는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

나는 오랫동안 국가단위속에 체류하는 사범끼리라도 허심탄회하게 마음의 창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풍토를 아쉬워 했다.

세월의 흐름탓인가! 경륜을 의식해서인지는 몰라도 지난 10월 “핀헨” 제 2회 유럽 선수권대회 기간에 참가하여 참관한 40여명의 한인사범이 그 대회기간에 <재구 한인사범 친목회(가칭)>란 명칭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이 모임체가 우리 자신의 친목도모와 기술면의 개발, 인격면의 도야, 지도면의 영도력 배양, 등을 바탕으로 한 국제사범으로서 유럽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야 겠으나, 보다 솔직한 마음은 이미 우리 스스로 잃어버린 위신과 위축된 권위를 옹호하는 단체로 발전되길 소망한다. 본인이 그 조직의 총무를 맡고 보고 한껏 충족감을 느끼게 된다. 며칠전 한 통의 편지가 주어졌다. 오랫동안 태국에서 사범으로 활약하다가 얼마전 태권도의 불모지인 스위스로 옮겨 태권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김명수사범으로 부터의 소식이었는때 그 내용의 일부는

—구주 태권도에 관해서는 본인이 아직도 문의한걸아서 무엇이라 말할 수는 없으나 무엇

보다도 “태(胎)”와 “권(拳)”에 관한 지도에만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도(道)”에 치중을 많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와 拳만 가르쳐서 금메달을 따내 태권도 승자의 전부를 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구주의 태권도가 한인 사범들의 발전적이며 건실하고 깨끗한 소견에서 나온 “뜻”대로 번영되어 주길 기대하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지도자로서의 우리는 태권도를 스포츠로서 선수의 경기력향상에도 주력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무도로서 정신적인 바탕을 기저로 한국의 고유한 얼인 예의, 인내, 극기심을 강하게 심어야 한다. 우리는 경기에 있어 유능한 코치이거나 선수를 훈련시키는 트레이너에 앞서 사범이다. 항상 원만한 인품을 갖추고 창의적인 지도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해외사범—국제사범—은 자신이 국가를 대표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태권도 수련생에게는 물론 우리가 속해있는 국민에게도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태권도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W.T.F는 외국에 나가있는 사범들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겠다.

국가 태권도로서 그리고 태권도 중주국으로서의 차부와 긍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기원, W.T.F 그리고 해외사범(국제사범)이 삼위일체가 되어 연구 노력하는 중단없는 정진과 단합된 결의가 있어야 마땅할 줄로 믿는다.

국가 태권도 그리고 국제사범이여! 내실과 성장을 향해 전진하자.

인간의 외면적 양식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서 자기를 처리하려고 하면 돌연 영혼은 깊이 깊이 자기의 내부를 들여다보게 된다. 그것은 마치 음악가가 악기에 마주 앉은 경우와 같은 것이다

사람은 각자의 방법으로 사물을 생각함이 좋다. 각자가 걸어가는 길에서만 진리 혹은 진실이 발견되는 것이다. 거기서 발견된 것만이 그사람의 전 생애를 돕는다.

## 남성이 본 여성 유단자



東星高校 體育教師

金 仁 守

韓國의 跆拳道는 1971年 國技로 승화된지 어  
인 7년이 지났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跆拳道가 男性만이 하는 運動으로 생각하고 있  
다. 그간 女性修鍊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女性들에게도 人氣있는 運動種目으로 탈바꿈하  
고 있는 時期가 到來했다. 대개의 사람들은 女  
성이 跆拳道를 修鍊하는 것을 보면 할일 없고  
잘못된 女性들이나 하는 運動으로 評해 버리고  
만다. 실제로 跆拳道를 배워 보고 가르쳐 본 指  
導者의 立場에서 본다면 跆拳道는 男女老少 할  
것 없이 모두가 武道 또는 sports로서 즐길 수  
있는 좋은 運動으로 말할수 있다.

우리가 一般的인 運動과 跆拳道와의 身體의인  
차이점에서 비교해 본다면 一般的인 活動이나  
運動에는 屈筋運動이 약 70% 伸筋運動이 30%  
이다.

그러나 跆拳道는 屈筋運動이 약 30% 伸筋運  
動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人體活動에서 많이 使用하지 않는 部分을 發達  
시켜 全身의 調和的 發達을 가져 온다.

또한 東洋人들의 身體構造를 살펴 보면 西洋  
人들에 비하여 上體보다 下體가 짧은 것이 東洋  
人들의 단점이다.

그러나 跆拳道를 修鍊함으로 해서 下體가 길어  
진다는 것이 다른 運動에서 얻어지지 않는 장점  
중의 하나다.

그 理由는 生物學的인 근거로서 Roux의 身體  
運動에 관한 法則에 의하면 “身體는 적당히 使  
用하면 增大強化되고 使用하지 않으면 弱화되어

간다”는 原理와 Lamarcu의 成長發達에 관한 理  
論은 “使用하는 器管만 發達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弱化縮小된다”라고 한다.

태권도는 뭉뚱기운동과 팔다리의 屈伸운동과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全身運動으로서 心肺機能  
을 強化하고, 우리 人體의 伸筋을 발달시켜 팔  
과 다리를 길게하고 탄력성 있는 몸매를 만들며  
하복근이 약한 女性들에게 하복근의 단련으로  
인하여 하복근의 불필요한 피하 지방을 제거하  
여 아랫배가 나오지 않게 해주며 자 관절을 이  
어 주는 인대(ligament)가 強化되므로 유연성을  
기를수 있으니 女性身體의 각 部分을 튼튼하고  
탄력성있는 아름다운 몸매를 만드는 데는 더없이  
좋은 運動이라 생각된다.

女性 有段者는 跆拳道 修鍊을 통하여,

첫째: 禮儀規範을 지킬 줄 아는 女性이 된다.

둘째: 명랑하고 발랄한 밝은 성격과 재빠른  
판단력을 기를수 있다.

셋째: 自我保護를 할 수 있다.

넷째: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에 총력안보의 일  
원으로 한몫을 차지하는 女性이 된다.

다섯째: 運動을 통한 社會性 함양으로 현대  
사회에 적합한 능동적인 행동가로서의 女性을  
만들어 준다.

하얀 도복에 검정색 띠를 맨 女性有段者는 이  
제 프레일드 게임(8체급중 6체급 금메달)에서  
보여준 저력 처럼 跆拳道를 통해 세계에서 힘과  
기술을 겨루는 sports로서 국위를 선양하는데 크게  
앞장 설 것으로 보아 자못 기대가 크다.





| 구 분   |   | 종 목 |   |   |       | 100m   | 도움닫기<br>멀리뛰기 | 오 리  | 달 기   | 던지기  | 터잡이  | 왕 복 달 기 | 윗 이 르 키 기 | 몸 앞으<br>로굴기 | 몸 앞으<br>로뛰기 |
|-------|---|-----|---|---|-------|--------|--------------|------|-------|------|------|---------|-----------|-------------|-------------|
|       |   | 회   | 평 | 군 | 평     | 초      | cm           | 초    | m     | 회    | 초    | 회       | 초         | 회           | 초           |
| 태권도반  | 1 | 회   | 평 | 군 | 17.64 | 281.7  | 2.39         | 22.3 | 1.32  | 12.8 | 17.2 | 9.6     |           |             |             |
|       | 2 | 회   | 평 | 군 | 16.97 | 326.8  | 2.30         | 28.8 | 2.40  | 11.4 | 22.0 | 13.8    |           |             |             |
|       | 증 | 가   | 목 |   | 0.67초 | 45.1cm | 9초           | 6.5m | 1.08회 | 1.4초 | 4.8회 | +4.2    |           |             |             |
| 비태권도반 | 1 | 회   | 평 | 군 | 18.43 | 293.0  | 2.42         | 23.0 | 1.26  | 13.1 | 16.3 |         |           |             |             |
|       | 2 | 회   | 평 | 군 | 18.26 | 281.5  | 2.35         | 24.3 | 1.88  | 12.7 | 17.3 |         |           |             |             |
|       | 증 | 가   | 목 |   | 0.17초 | 11.5cm | 7초           | 1.3m | 0.62회 | 0.4  | 1.0  |         |           |             |             |

### ⑤ 문제

비교적 증가폭이 적은 것은 오래 달리기와 턱  
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운동을 하느니 바  
탕이 되는 지구력과 근력의 향상이 약간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구력과 근력을 기  
르는데 필요한 보조보강운동을 곁들이면 더 좋  
은 결과를 얻어지리라 믿어 본다.

## 신장비교표 1차분

(태권도반 비태권도반)

검사일 : 1회—1978年 3月 7日

2회—1978年 9月 1日

| 구 분                     | 태권도반   | 비태권도반  | 비 고           |
|-------------------------|--------|--------|---------------|
| (평균)                    | 132.32 | 134.29 | 개인전강기록부<br>참조 |
| 1 (77. 5.16)<br>증가률(평균) | 4.23   | 3.96   |               |
| 증 가 율<br>(평균)           | 3.1%   | 2.9%   |               |
| 2 (78. 3)<br>증가률(평균)    | 139.55 | 138.25 | 실시합           |
| 증 가 율                   | 2.27   | 1.70   |               |
| 3 (78. 9. 2)<br>(평균)    | 11.6%  | 1.2%   |               |
|                         | 141.82 | 139.95 | 실시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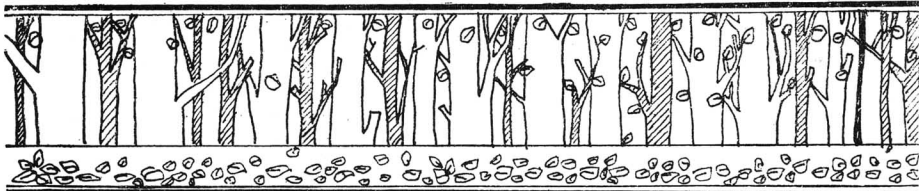
## 결과 분석

㉔ 5학년 (77. 5.16)에서 6학년 1학기(78. 3. 15)까지 1년간의 성장율은 태권도반이 비태권도반보다 약간(0.2%)높다.

㉔ 6학년 1학기(78. 3. 15)에서 6학년 2학기(78. 9. 2)까지 반년간의 성장율은 태권도반이 비태권도반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은 태권도 수련을 실시한 기간임)

④ 따라서 매일 일정한 시간 태권도 수련을 하면 성장이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跆拳道가 解剖學的 人體構造에

### 미치는 影響에 關한 小考

同德女大 藥學科 四學年

朴 成 姬(跆拳道部長)

太古부터 身體를 움직이는 運動의 必要性은 人間의 本能으로써 일정한 Rule을 적용시켜 오늘날의 Sports를 탄생시켰다.

오늘날 우리 젊은층에서 觀衆의 위치로써가 아니라 選手의 입장에서 태권도를 하고자 함은 맨손체조 중에서도 心理의 精神衛生上의 우월성을 여기에 부여한 때문이다. 이에 生理解剖學的인 측면에서 研究할 必要性도 느낀다.

人體는 많은 分離된 骨格으로 지탱되고 있는데 이들의 骨格(Bone)들은 特別한 構造로 긴밀하게 연결된다. 뼈와 뼈, 뼈와 연골(Cartilage)을 이어주고 運動에 커다란 影響을 주고 있는 것을 關節이라 한다. 關節은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 있다. (해부학적 측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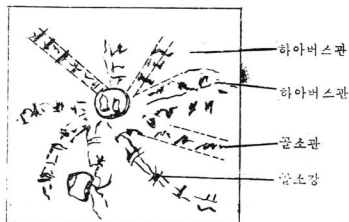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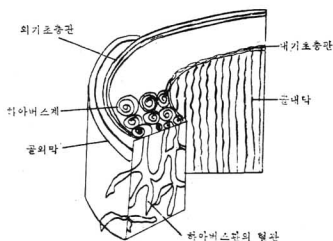
1. fibrous joint (섬유성 연결); 不動關節이며 運動性이 없다. 예로써 두개골의 봉합(Suture)이 있다.

2. Cartilaginous joint (연골성 연결); 뼈의 접 측면이 연골로 되어 있는 일시적인 關節로써 신생아가 자람에 따라 화골로 되어진다.

3. Synovial joint (활막성 연결); 자유로운 運動을 할 수 있는 關節이며 역시 연골에 덮인 두 골단이 서로 마주한다.

이들 關節의 두 골단을 싸고 있는 것이 關節포(articular capsule)이고 두 골단과 關節포 사이에 생기는 공동을 關節腔(joint cavity) 또는 활막강이라고 하며 이 속에는 적은 양의 활액(Synovia)이 들어 있다.

골의 일부를 절단하여 그 횡단 및 종단을 현미경으로 본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혈관, 신경 등을 가지고 있는 生命의인 조직입을



알수 있다.

골은 사용하지 않을 때 이축되고 적당한 힘을 주어 자극할때 비로서 비대해진다. 골 내부의 해면질 속에 가득찬 적골수으로써 혈구를 生成하는 조혈기능을 하며 Ca, P 등 무기질의 저장고도 된다.

신생아의 초자연골이 화골로 되기 시작하는 생후 8주후부터 조골조직이 양 골단과 골간에서 생기면서 뼈의 길이를 늘이며, 키를 크게하는 '연골내화골'이 시작된다. 뼈가 자라는데 영양을 공급하고 조혈기능을 갖는 골수는 소년기(약 7세경)에 이르면 황골수로 점차 대체되어 지방조직으로 되게 된다. 태권도가 어린이 성장에 해롭다고 한 非科學的인 낭설은 이상의 골의 기



# 홍콩아시아대회에 띄운 메시지

Opening Address by Dr. Un Yong KIM, President of W.T.F.

지난 9월 8일부터 Hong Kong에서 개최되었던 제 3회 아시아태권도대회의 개막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김운용총재는 모든 태권도인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태권도를 훌륭한 세계스포츠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 메시지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 MESSAGE

From the president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and Officials and Contestants!

It gives me a great privilege and pleasure to be here of the opening of the 3rd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at Hongkong Macpherson Stadium today. It is significant in that this Championship is taking place in Hong Kong as the largest ever martial sport event to be held here.

Although Taekwondo was originated in Korea twenty centuries ago in a form of self-defense art, it has been transformed and developed into a true world sport in the modern times. I am happy to say that Taekwondo now belongs to all of you, and it is the duties and privileges of all students to join in our joint effort to make it a better world sport.

Taekwondo has accomplished a rapid progress in a comparatively short period of time. It was in May 1973 that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as formed immediately following the 1st World Championships hosted in Seoul.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ith more than sixty national member federations, has since been affiliated into the

General Assembly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 Furthermore, Taekwondo has been adopted as an official sport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Sports Council.

Such rapid expansion of Taekwondo into a modern world sport does not mean that traditional martial art spirit and aspect is neglected. On the contrary, the ever increasing number of Taekwondo population indicates that more people are fascinated into Taekwondo not only by the physical prowess of Taekwondo, but by the high moral standards and mental discipline retained in Taekwondo.

I am pleased to see that more member national federations are participating in this Championship and I trust this meet will display to the world sports community the superiority of our sport of Taekwondo.

It is my sincere wish that our joint efforts in Taekwondo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better understanding between nations and to the preservation of peace in the world.

I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officials and members of the organising Committee and the Hongkong Taekwondo Association for their invaluable assistance and cooperation in preparing this tourna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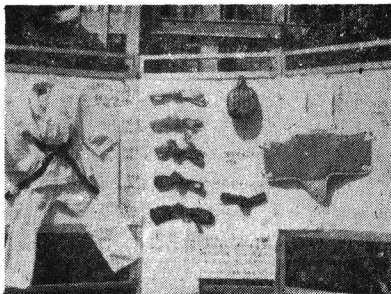
Last but not least, My best wishes to all contestants for a good tournament.

Thank you.



## 이화여자대학에서는 태권도장비 전시회를

—An Exhibition of the Taebwondo equipments at  
the Ewha Women's University—



1974년 창설된 이래 1단 이상의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고, 현재 무급에서부터 1단까지의 각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갖을 시범을 목표로 수련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태권부는 9월 말 서클 활동으로 있었던 운동기구전시회에서 태권도 수련에 사용하는 기구들을 전시했다.

잔디밭에서 전시된 전시품의 내용을 보면, 흰빛의 상하의인 태권도복을 위해서 발차기연습에 사용하는 미트, 거루기를 할때 방어의 목적으로 입는 호구, 거루기때 다리를 보호하는 아대, 그리고 각 급에 따른 색상의 띠와 품띠가 전시되었다. 한편 이 전시회가 있음과 동시에 태권부의 새식구가 많이 늘어 질과 양적인 향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 아시아 태권도 연맹 창립 감사패도 받고

—Establishment of the  
Asian Taekwondo Union—

제 3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참가한 韓國, 이란, 타이등 11國은 10일 Hongkong에서 아시아 태권도 연맹(A.T.U)창립 총회를 열고 會長에 사리아르 이란 왕자를 선출, 부회장엔 톤탄슈신(말레이시아), 슈앙 유안쿠오찬스(自由中國)를 각각 선출했다.

창립된 아시아 태권도 연맹은 중동, 유럽, 미주등 3개 지역연맹에 이어 4번째 지역연맹으로 탄생한 것. 이날 총회에서 제 4회 아시아 선수권대회를 오는 80년 이란에서 열기로 합의했으며, 집행부는 19명으로 구성, 사무총장은 회장국인 이란에서 선임하도록 일임했다.

跆拳道가 우리나라의 國技인 것은 어림에도 아닌 일. 各地와 各國에서 일어나는 跆拳道 붐도 불이지만 중요한 것은 나라지키는 일이 아닐까. 우리나라가 處한 어려운 時點에서 국민체력과 국방의 힘을 기르는데 기여하는 跆拳道의 의미는 더없이 크다.

이에 육군 제7356부대의 박희동대장은 태권도 협회에 감사패를 올렸다. 그 내용엔 「귀 협회에서는 평소 국민체력향상과 국위선양에 공헌하는 한편, 특히 당군 태권도를 통한 전투 체력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감사패를 드립니다」이다.

## 관통합 결의문

지난 8월 5일,跆拳道 총본관이 사회의 決意에 따라 10個館을 폐쇄하기로 合意했다. 10個館의 館長들은 館統合이跆拳道의 고질적인 분파의식을 버리고 좀더 알찬 태권도 世界化의 원동력이 된다는데 意見을 모아 決意文을 채택했다. 여기 그 결의문을 공개한다.

### 서명날인작품단

1관 강경용

2관 이고은

3관 이광산

4관 최남도

5관 박영호

6관 이길용

7관 이윤우

8관 이봉

9관 임영근

10관 김인석

총합인

이병근

홍기현

## 결 의 문

1. 태권도계가 30년간을 유지하여온 관계열을 폐지하고 사도계의 총화단결을 위해 총 매진한다.

2. 1972년 부터 품새와 용어를 통일하여 기술적 단일화 작업을 진행하여 왔고, 관 명칭을 폐지하여 숫자표시로 계열을 축소, 정비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3. 승단심사를 계열별로 사정 추천하던 업무를 폐지하고 일선 도장에서 사범이 직접 총본관에 추천키로 한다.

4. 우리들은 명실상부한 일선도장 사범과 수련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상의 봉사자로 참신한 업무를 집행한다.

5. 우리들은 태권도가 지닌 국가적 사명을 절감하여 태권도 지도자의 본연의 자세를 확고히 지켜 총화단결에 앞장서서 위계질서 확립의 총력을 경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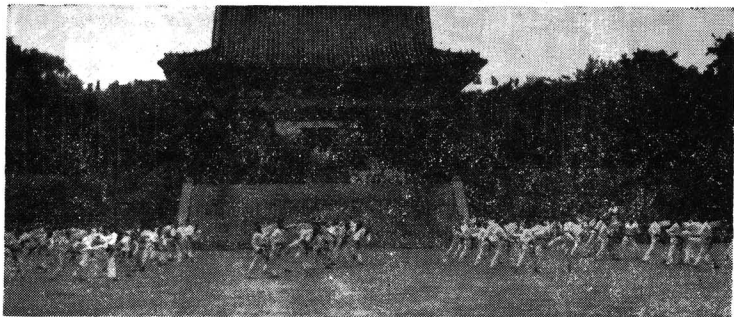
6. 우리들은 태권도 중추국의 지도자로서 세계정상의 위치를 계속 굳히기 위해 기술개발에 전념할 것을 다짐한다.

7. 종래의 계열별 유지를 위해 존속된 관사무실 유지를 오늘부로 폐쇄하고 모든 행정상의 군거를 무효로 한다.

8. 총본관은 국기원과 긴밀한 유대를 공고히 하여 행정상의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9. 우리들은 총본관의 일원으로서 태권도 발전을 위해 사심없는 기여를 서명날인으로 결의한다.

## 태권도 유단자 90% 돌파기념



육군 7756부대는 우리나라 고유의 무술인 태권도 숙달로 전투력을 증강시켜 유사시 본연의 임무를 100%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77년 10월 1일부터 사단 명칭을 “태권부대”로 정하고 태권도 수련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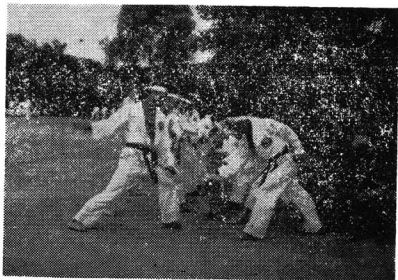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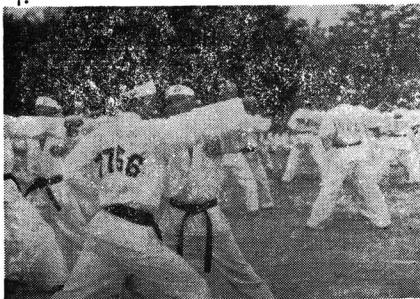
이에 1978년 2월 20일 태권도 중흥계획을 하달, 2월 21일부터 5차에 걸쳐 200명의 교관요원을 양성, 중대급까지 1명 이상의 교관을 확보했으며 3월 15일까지 태권도 마크를 제작, 부대전원이 급수별 표식을 부착했고, 또한 태권도 소재자를 발간, 분대 단위까지 분배하여 훈련에 전력을 경주해 왔다.

그후 사범 초청으로 각급 지휘관 및 교관, 조교들에게 태권도의 이론 및 지도요령을 교육하여 올바른 훈련을 강화했고 5월 16일까지는 사단자체 승급 및 승단심사를 4회에 걸쳐 실시했다.

그리하여 국기원 공인 유단자를 확보, 부대장기 쟁탈 태권도 경연대회 실시, 부대 태권도부를 편성, 태권도 교육의 핵심체를 구성했고, 태권도 도장을 설치하여 년중 무휴의 교관 및 조교요원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리하여 그동안의 승단심사를 거쳐 이번 9월 18일엔 제 4차 승단심사를 실시, 대망의 유단자 90% 돌파를 이룩하여 명실공히 태권부대의 목표를 달성. 9월 27일에는 그 기념식이 있었다. 그날 기념식장엔 대한태권도협회 간부등 많은 내외귀빈이 참석하여 성대한 분위기를 이루었다.

진군 30주년을 맞이하여 90% 태권도 유단자를 목표한 육군 7756부대는 이날의 기념행사를 더욱 뜻있게 하기 위해 각 부대대합 체급별 태권도 경연대회와 시범경기를 가졌다.



# 日常의 가운데에 서서

金 榮 淑

가을이 피부에 와 닿는다. 계절을 감각하는  
때에 늦된 것은 바쁘게 이어지는 日常의 탓인지  
도 모른다. 거리마다 새롭게 번져가는 군밤 냄  
새를 맡으며, 나는 두툼한 새타를 입고 가을 앞  
에 비로서 선다. 가끔씩 충혈된 눈으로 맞아야  
하는 아침, 깊은 숙면(熟眠)을 바라면서도 활짝  
열어 젖히는 아침의 차디찬 유리문. 매일 「시  
작」이라는 글자를 그 유리문에 새기며 나는 용  
감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한다.

자의(自意)가 아닌 하루의 스케줄을 따라 한  
조각의 비스킷을 먹듯이, 반듯한 時間을 쪼개고  
조개어 소비하면서, 때때로 신선하게 감동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만큼 태권도를 아끼기 때문  
이리라.

지난 9월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던  
제16회 전국 여성대회에 참가하여 나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며 그 신선한 설렘을 맛보았었  
다. 그것은 몽클하고 뜨겁고 무거운 감동이었  
다. 내가 아직도 이나라의 이자리에서 무엇인가  
할 일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이나마 내 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자기의식, 그리고 아직도 나를 원하  
고 있다는 자각이 그 이유였다. 나는 태극기를  
향해서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게 내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좀더 나자신을 성장시키어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 주소  
서. 또한 수도여자사범대학의 체육과 이덕분교  
수가 발표한 「신체조발표회」를 보고 그 창의적  
인 생각에 자극을 받았으며, 나 또한 태권도 여  
성시범단을 조직 열심히 훈련하여 여성태권도의  
인식을 새롭게 할것을 다짐했다.

그날의 피로는 그것으로 사라졌다. 많은 여성  
들과 나란히 서서, 각계각층에서 보람되게 사는  
그들의 밝은 얼굴들을 대하며 나는 나를 채찍질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女流 詩人 姜 恩喬氏의 詩중에  
이런 귀절이 있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죽어서 한웅큼의 물로 환원되어 서로 만나서  
가문 어느 농가의 기쁨이 된다면 그 얼마나 기  
쁘지 않으랴. 때로 욕심도 없이 많은 여성들의  
벗이자, 선생이 되어 國技인 태권도를 가르킬  
때, 나는 이 詩를 생각해내곤 한다. 한알의 흙  
이 모여 땅덩이가 되듯이 내가 뿌린 한두알만큼  
의 작은 씨가 또 씨를 뿌리고 건우어 단단하고

커다란 힘으로 클것을 나는 꿈꾼다.

썩지 않은 밀알보다, 한알의 썩은 밀알이 되어 살아가길 나는 꿈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女性태권도에 놀라움을 갖고 대한다. 나 자신은 중학교 다닐 칠부지 즈음부터 태권도를 벗어나 살아왔다. 무인(武人)의 예의와 법도를 배우고 신체의 부분 부분 그 기

본 것은 비애였다.

몇몇의 젊은 女性들은 다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면, 악세서리를 걸치듯 태권도를 맛보려고만 했다. 지독한 이기주의의 타성에 젖어 웃어론과 아랫사람에 대한 구별이 없고, 맛있는 음식만을 골라먹듯 운동에도 타산적이었다. 순수한 國技에 대한 애정, 태권인으로서의 긍지, 예의가 없었다. 똑같이 자신들의 時間을 할애하여



능을 갈고 닦는 수련과정을 거쳐오면서, 나는 내가 흘린 땀속에 배어있던 그 뜻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것은 「正道」라는 것이었다. 하나의 인격으로 커서, 女性스포츠의 문을 넓게 여는 일이었다. 여자대학의 사범으로 일하면서 여성 태권도도장의 사범으로 일하면서 내가 처음 맛

가르치고, 배우면 그뿐이라는 태도였다.

나는 망설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들의 친구가 되고, 이들의 사범이 되어 정말 나는 어떤 결실의 맺음을 기대하는 것일까. 단 태권도가 아니라도 자기의 소질을 하나쯤은 계발하여 발전하는 국가에 한부분을 맡아 일할 책임감이 있

는 것일까? 동양의 철학을 배우고, 그 思想을 이어 받으며 겸양과 미덕의 울타리 밑에 수줍게 피어오르던 이나라의 꽃망울들이 어느새 자기의 독선속에 그렇게 깊이 잠식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절망했다. 여자들의 태권도를 하나하나 넓히면서 갖던 뿌듯한 만족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던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알게 되었다. 수신(修身)이 곧 그 과정이라는 것을.....

여성에게 女性으로서 해야 할 직분이 있다.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일, 그 미려를 여는 안내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에도 물론 心身의 양면으로 태권도는 도움을 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운동인 것이다.

女性の 신체조건은 남성과는 다르다. 그러나 체력의 단련과 요가의 효과를 얻으며, 女性美를 보호하고 스스로의 몸을 지켜 정신집중의 세계를 접하므로서 능률적으로 일 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길을 건져 내고 곧게 걸을 수 있는 마음가짐. 그것이 女性 태권도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나의 친구들, 나의 동생들, 그리고 나의 선배들에게 말하고 싶다. 한가정의 율음은 한 국가의 바탕이 되고, 전세계의 밑거름이 되리라는 것을...... 안이한 이기주의로 생활하기보담 이제는 스스로 썩어 양분이 되는 밑거름의 희생을 배울 일이다. 언제나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닦으며, 인내와 포용심으로 他人을 맞아들일 때 그때 女性의 권리는 주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늘 스스로를 뜨겁게 불태울 줄 아는 여성이 되길 나는 바란다.

또 한 계절의 문이 열리고 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의 시간을 분리해서 나는 학교와 대사관과 도장과 경찰서와 행사현장을 순례한다. 나는 순례한다라고 말하고 싶다. 버스안에서 무겁던 몸과 마음이 의욕으로 반짝이는 수련생들을 대할 땐 나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일종의 성스러움을 느낀다. 그것은 오랫동안 가슴 뭉클함이다. 한 여자로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아가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

이번 프레일드게임에서 여자부의 감독과 코치를 맡으면서 나는 나에게 임무를 주신 분들에게 고맙다. 내가 지닌 능력을 언제라도 필요해 하고 부르는 곳이 있다면 나는 갈 것이다. 그렇게 숨 쉴 것이다.

박완서씨의 수필가운데에서 읽은 귀절엔 이런 것이 있었다. 「적당히 가난하고 적당히 고통이 주어지고, 적당히 자기를 이끌어가는 여자」라는 이런 여자가 좋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싶다. 보통으로 살면서, 무엇인가를 자주 회고하는 상태의 그 물기서린 가난함을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자기생활에 만족을 느끼도록 스스로가 힘써야 할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땐 그 근원을 찾아 타개해 나가려는 발돋움을 해야겠다.

“암”

기합소리에 자세를 가다듬는다. 아침에 새기는 「시작」과 밤에 뒤돌아보는 「시작」의 의미가 나를 때로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 할지라도 나는 손끝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서 있겠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나와 함께 읊는 자세로 서면서 國技 跆拳道를 배우고 발전시켜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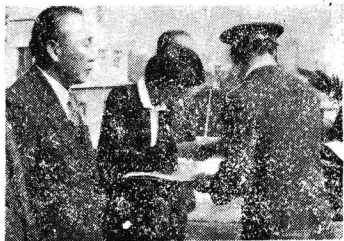
것을 기원하고 싶다.

나태해지려는, 안일해지려는 차칫 피곤에『패배하려는 연약한 의지를 부추키고 모두 아침의 문을 열어야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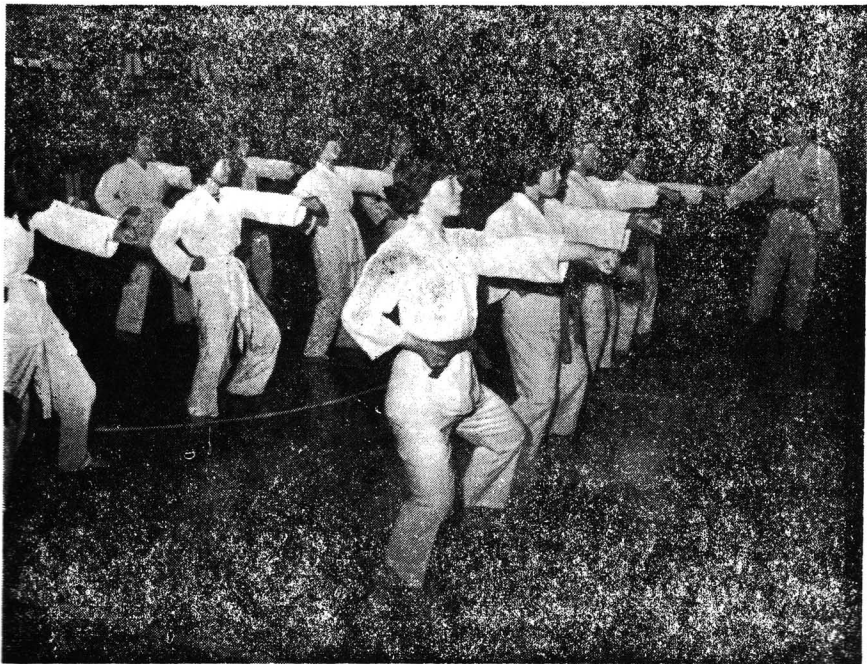
세계 각국에 펼쳐 나가는 태권도와 한국이라는 이름을 좀더 자랑스럽게 빛낼 길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성실히 다하고, 더불어 사는 정신자세를 바로 갖는 길일 것 같다. 누군가 하겠지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해야한다라는 용기로서 태권도의 보급에 임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도 늘 반성하고 있다.

가을이 깊어간다. 새로 입단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경이롭게 놀라며 여성태권도의 효과에 공정을 하는 사람도 많아진다. 나도 바빠진다. 눈이 충혈되는 밤잠이 피로워진다. 그러나 행복하다. 가끔 서점에 들러 마음을 다독여줄 책을 사고, 그들과 대화를 하며 사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죽음을 생각하기엔 사치스러운 내

나이에 정말 삶을 보람되게 할 충일의 은혜에 감사한다. 풀벌레소리가 듣고 싶다. 조카아이, 돼지의 손을 잡고, 가까운 산이라도 나들이할 휴일이 오길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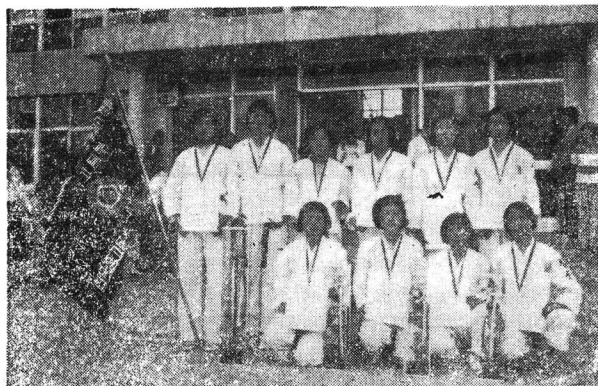


〈3년동안 마포경찰서의 경찰관들에게 가르치고 있던 김영숙사범이 경찰의 날 30주년 기념일에 구자춘 서울시장이 시한 상장 및 부상을 마포경찰서장 이경조씨로부터 받고있다.〉



# 跆拳道 學校 巡禮

—서울 청산여상편—



청산여상 태권도부는 평소부터 학생들의 심신 조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던 고 중성 교장선생님의 배려로 1976년 3월, 70명의 2학년 학도호국단 제대장 및 부차장을 주축으로 창단되었다.

태권도부의 설립취지는 학도호국단의 제대장과 간부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체력을 단련하며, 간부 상호간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이제 3년의 연륜이 쌓인 청산여상의 태권도부는 방학동안에도 하루를 쉬지않고 수련을 계속하여 다채로운 연혁을 쌓았다.

1976년 3월 창단 이후 11월에 있었던 주한 외국인 및 한국여자 개인선수권대회에 12명이 참석,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것을 시초로, 1977년 7월, 같은 대회에 15명이 참가 금메달 2, 은메달 1, 동메달 4개를 획득하는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1978년 5월에 개최되었던 한국중고연맹주최 전국단체전 대항(총계 최장기 쟁탈)에서는 두팀이 출전, A팀은 종합우승을, B팀은 3위의 전적은 올렸다. 이 대회에서 최우수 선수상에 임재숙, 감독상에 김영인체육교사가 수상

함으로 그 영광을 한층 빛냈다.

그리고 1978년 6월의 프레스월드 게임에 파견할 한국대표 여자부 선수 선발전에서 금메달 1, 동메달 6개를 획득하였다. 이어 1978년 9월 한국 중고연맹주최 전국 태권도회장기 쟁탈 한국중고등학교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여자고등부에서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렇게 청산 태권도부는 창설3년에 접어들어 이제 더 큰 포부, 더욱 나아지는 태권도부

를 꿈꾸며, 국기인 태권으로 심신을 훈련시키므로 청산학원의 맑고 굳은 정기를 키우고 있다.

현재 태권도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학년별 현황

| 학 | 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총인원 |
|---|---|-----|-----|-----|-----|
| 인 | 원 | 49  | 9   | 2   | 60명 |

## 나. 단 및 급별 현황

| 학년단위급 | 2단 | 초단 | 3급 | 4급 | 5급 | 6급 |
|-------|----|----|----|----|----|----|
| 1학년   |    | 6  | 10 | 10 | 10 | 10 |
| 2학년   | 1  | 11 |    |    |    |    |
| 3학년   |    | 2  |    |    |    |    |
| 총계    | 1  | 19 | 10 | 10 | 10 | 10 |

## 다. 체급별 현황

| 학년체급  | 단 | 두리 | 반단 | 초단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 1 학 년 | 2 | 10 | 5  | 4  | 2  | 2  | 1  | 2  |    |    |
| 2 학 년 | 1 | 2  | 2  |    | 2  |    | 1  | 1  |    |    |
| 3 학 년 |   |    |    | 1  | 1  | 1  |    |    |    |    |
| 총 원   | 3 | 12 | 7  | 5  | 5  | 3  | 2  | 3  |    |    |



# 잔디 위에서

## 잠깐만!



햇빛이 봄벌처릴 따가운 날, 잔디는 아직도 녹색이었다. 아카데미한 대학 건물들 사이로 밝고 화사한 여학생들이 환담을 나누며 걷고 있었다. 매양 꿈이나 먹고, 곱상스런 감상에나 젖어 있을 그런 얼굴들인데, 그들 중에 태권도를 하고 있는 여학생도 있으리라는 생각은 몹시 의아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앉으세요.”

그래서 잔디위에서의 잠깐만!은 시작되었다. 회고 윤기도는 피부, 긴 머리칼, 상큼스런 목, 물기서린 눈매. 그들이 지닌 이러한 조건은 본 기자의 취지를 혼동하게 했다. 어디로 보나 평범하고, 조금쯤 약해보이는 얼굴들이었다. 수첩과 메모지를 꺼내들고 험하게 자꾸 웃기만 하면서, 취재 아닌 취재를 했다.

법정대학 1학년에 재학중인 이윤숙양은 호신술이라는데 대한 호기심으로 1학기대부터 시작했는데, 앞으로로도 계속할거냐는 물음에 당연하다는 듯이 “그럼요”했다.

“1주일에 세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배우고, 도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기구가 필요없고, 온 몸으로 집중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한참 뛰고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의욕같은 것도 생기죠.”

이윤숙양은 요가와 운동을 겸한 태권도를 많은 여성에게 권하고 싶다고 덧붙여 말했다.

“불문과 3학년 박혜련이에요.”

키가 자그마하고 입매가 예쁜 여학생이 인사를 했다. 박혜련양은 2학년 2학기부터 태권도를 시작. 방학매를 이용해서 도장엘 나간다고 한다.

“보이 프렌드가 뭐라고 안해요?”

“남자친구들도 대부분 태권도를 하는 사람데요. 처음엔 낯보는 듯 하더니 지금은 무척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특별한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알맞게 운동하고, 또 우리나라의 국기(國技)라는 긍지를 갖고 임하니까 생활이 정돈되는 느낌이에요.”

“문과계통의 공부를 하시면서 운동을 하려면 참 어려울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실생활에서도 이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면 된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불란서 작가 썸 렉키베리를 좋아한다는 박혜련양은 점심시간에 본 기자에게 콩나물국, 쌀보리밥, 김치, 사과를 사주고 강의에 들어갔다. 넓은 식당홀에서 김영숙사범님과 식사를 하며 그녀에게 감사했다.

국문과 4학년에 재학중인 강양옥양은 졸업논문과 리포트에 정신이 없으면서 태권도를 시작한 것은 요즘 여성운동의 과도기에 대한 반발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모든 스포츠엔 여성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좀더 여자다워지는 지름길은, 조용하고 얌전히 오는길 오고 가던 길 가는게 아니라, 온몸은 마음으로 생을 받아들이고 가장人間다워진 후가 아닐까요.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사회의 모든 문제서 부터, 모든 운동, 모든 낭만, 모든 꿈을. 그리고 소화할 것만 소화해 내야겠죠. 젊다는 것은 그만큼 소화능력도 왕성하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녀는 용감하게 말하고 혼자서 어더론가 사라졌다.

## —Meeting—

그리고 간호대학 1학년의 신 옥의양은 생각지도 않게 구경을 하다가 가입하게 되었는데, 구경하던 것과 실제 하는 것과는 무척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제 겨우 한번 운동을 한 신옥의양은 “재밌어요.” 하면서 집에서 원래 운동을 못하니까 이기회에 비호처럼 날렵한 딸이 되어다오하며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웃었다.

“4학년때의 목표라면 초단이라도 따야겠다는 거겠죠.”

이러 태권도부의 주장이라는 우영희양과 대화를 했는데, 그녀는 짧은 단발에 화장이없는 얼굴 서글서글한 표정을 갖고 있었다.

“현모양처가 좋아요.”

기자의 女性운동과 여성의 태권도운동에 우영희양은 딱 잘라 대답했다. 一人一技의 시대에 여자 태권도를 배우는 것도 바람직하며, 이담에 가정생활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지침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남자분들에게 한 마디 일러두고 싶은 것은?”

“네, 대개의 인식이 운동하는 사람은 공부를 안한다 공부는 하지않고 운동만 한다는게 고정관념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안된다는 거죠. 지금은 과학의 시대입니다. 운동도 힘만 가지고는 안돼요. 과학적인 판단력이나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죠. 태권도도 세계화, 스포츠화의 성장까지 가려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할 거예요. 공부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웃었다.

“참, 그리고 기본 나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

자가 태권도를 한다니까 한다는 말이 남자가 절에도 못오겠다는 것인데, 아니 우리가 남자를 뭐 어찌하겠습니까?”

고두 그래요 그래요. 동의를 하며 웃었다.

“솔직히 유감스럽습니다.”

우영희양은 여자는 여자대로 해야할 일이 있는거고 그것은 하늘이 두쪽으로 깨어져도 변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생머리를 등까지 길게 늘어뜨린 체육과 1학년 이화정양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사회생활을 했었다며 그때부터 태권도에 대한 관심은 있었는데 집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다고 했다. 지금은 학교에서 배우니까 집에서 특별 말은 없는데, 알맞게 하고 그만두라고 온근히

반대는 하는 형편이라고 했다.

“그러나 2단까지는 따야되겠죠.”

“미팅해보셨어요?”

“미팅은 안했지만 구팅은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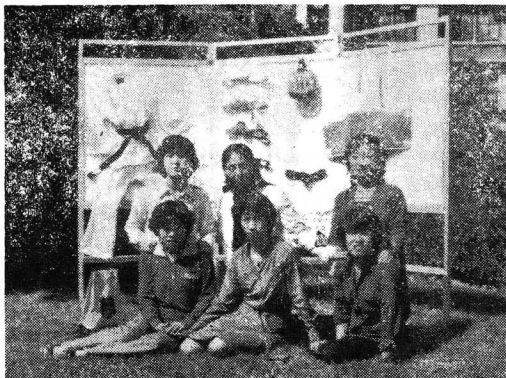
구팅은 길거리에 서 만난 사람들과 부담없이 대화를 하고 헤어지는 것.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놀라고, 어떤 사람은 웃음다는 표정을

짓고, 가만히 있다가 시집이나 가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화정양 자신은 졸업하고도 계속 공부를 할 것이며 한사람의 평범한 생활인으로서의 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첩과 필통을 싸넣고 인사를 하면서 이담에 만나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나눠먹기로 하고 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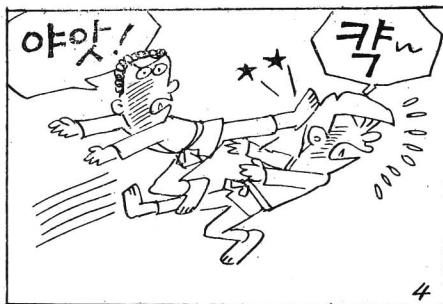
학교앞 길목엔 군밤냄새가 가득했다. 굳세고 울타른 여자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마음과 몸을 뒹고있다는 것은 호련한 일이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 태순양

최경철



#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화여대 체육과 3학년 태권도부장

우 영 희

내가 태권도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처음으로 태권도장의 문을 두드렸다. 체육과 재학 중 개인사정으로 휴학을 하게 되자 몸을 굳지 않게 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으로 도장의 문을 밀었다. 사설태권도장이라 여자권원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여대생의 몸으로 육체적 운동을 남성과 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남성전용의 체육관이라 여성을 위한 시설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 수련시간에 들어가면 기본 동작이나 폼세는 그런테로 함께 할 수 있었으나 겨루기를 시작하면 여자가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겹겹이 시작했던 태권도가 흰띠 시절에서 띠의 색깔이 진해감에 따라 점점 어렵고 힘든 운동임을 알기 시작했을 때에는 단순히 몸을 굳게하지 않을 목적보다는 나의 생활에 일부가 되어 버렸다. 나 자신은 열심히 한다고 했고 힘으로는 남성에겐 뒤지나 기술이나 기본체력에서는 뒤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힘든 운동을 참았다. 태권도를 배움에 따라 내 나름대로 검은 띠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흰 띠가 검은 띠로 되기까지의 정신력, 그것이 태권도의 정신인 것 같았다. 태권도가 우리나라의 국기인 것도 태권도의 이런 정신이 우리 민족의 정신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번 서울에서 개최된 프레월드게임에서도 우리나라 선수가 외국 선수에 비해 신체적으로는 뒤지나 기술과 정신력으로 압도한 것이다. 그러나 여자 선수의 경우 친선 게임으로 처음 열리는 시합이고 적은 수의 나라만이 참가하여 확실한 기술과 체력은 알수 없었으나 체력적으로 많은 향상이 있어야겠고 외국 선수의 무섭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비하여 조직적인 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 이번 태권도의 정신

력을 배우며 흰띠가 변하여 홍띠가 되었다. 흰띠 시절에는 꿈만 같이 보였던 홍띠가 되어보니 승단심사라는 커다란 짐이 주어지고 후배보다는 나은 실력을 가져야 겠고 모범된 태도와 강인한 정신력을 가져야만 했다. 남성체육관에서 훈련은 나에겐 무리가 많았다. 그래서 본교 태권도부 사범님이시며 여성체육관을 경영하고 계시는 김영숙사범님을 찾아가 지도를 부탁드렸다.

여성체육관이라 분위기도 부드러웠으며 세심한 면에까지 신경을 써 주셨다. 승단심사를 앞에 두고 많은 겨루기 연습과 함께 반복되는 폼세연습으로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다. 열심히 익힌 모든 것을 마무리짓는 승단심사를 며칠 앞두고는 대학시험 만큼이나 떨렸고 긴장되어 있었다. 심사일이 되어 국기원에서 짧은 시간에 정신없이 끝내고 보니 허무하기도 하고 개운하기도 하였다.

여대생이라 많은 사람의 눈총도 있었으나 여자대학의 태권인이라는 것으로 여고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승단심사와 함께 복학하여 학교로 돌아오게 되자 학도호국단 산하에 있는 태권도 클럽에 들어가게 되었다. 휴학전에도 태권도부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등한시하고만 있었던 태권도부에 애착을 갖게 되었다. 여자대학의 태권도부로는 오랜 연륜을 갖고 있었으나 학습과 병행하는 클럽활동으로 집식시간을 이용하였으며 예배시간과 겹치는 날은 수련시간에 많은 장애를 받고 있다. 장소는 학교체육관을 이용하므로 좋은 조건으로 넓은장소를 이용하고 있어 이 점은 다른곳에 비해 좋은 혜택을 받고있다. 그리고 전체 학생수에 비해서는 적은 학생이나 짧은 수련시간에도 불구하고 체육과학과장이신 김종선 지도교수님의 격려와 프레월드 게임 국가대

표 여자선수단 감독님으로 수고하신 김영숙 사범님의 지도로 체육학과와 법정대학 출신 언니 두분이 태권도부에서 배운 실력으로 초단을 따고 졸업하였고, 많은 학생이 10월달 승단심사를 목표로 열심히 수련하고 있다. 여대생이므로 학교의 안과 밖에서 지켜보는 많은 분들의 격려로 태권도 종주국의 여대생답게 더욱 열심히 배우고 있다. 다른 클럽과는 달리 움직임을 요하는 운동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나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열심히 배우고 있으며, 여대생이 태권도를 하면 거친운동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고 호신술을 함께 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점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두번씩 승급심사를 실시하여 배운 기술을 일일히 점검하고 있어 학생들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부원들의 공부하는 분야도 체육학과나 운동경험이 있는 학생보다는 문리대학, 간호대학, 법정대학 등 스포츠와는 다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면에서도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이 많은 수를 차지하여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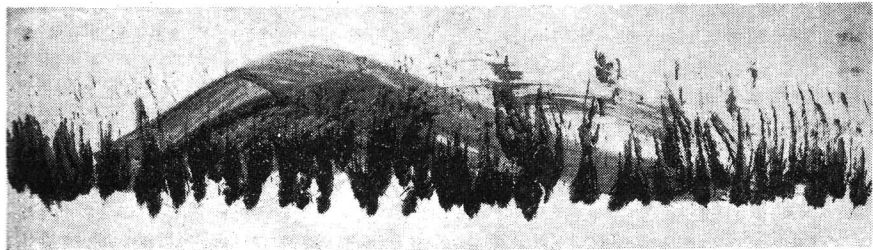
고등학교 시절의 체력장만을 위한 운동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닦고 있다는 점도 태권도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정기적인 수련시간으로 게을러지기 쉬운 생활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점도 태권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잇점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준비운동없이 본 동작에 들어가 몸을 무리할 경우, 몸의 기능

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이 점을 조심하여 몸의 유연성을 기르고 태권도 수련을 함께 하여 내년 봄에는 학교체육행사 때 77년 5월 아주공대에서의 초청시범과, 78년 고려대학교 석탑축제 초청시범을 발판으로 태권도시범을 한번 보이고 싶은 생각이다.

여자이기 때문에 오는 단점을 여자이기 때문에 오는 장점으로 커버하여 그동안 닦은 실력을 여러친구와 교수님 앞에서 발휘하여 부원들의 사기를 돋우고 더욱 나은 실력을 갖출 수 있으면 한다.

스스로 하는 태권도에서 좀더 나아가 보여주는 태권도가 되어 많은 여대생이 함께 배우는 태권도가 되어야겠다.

선배회장이셨던 언니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의 기틀도 잡혀가고 있어 학생들의 자치적인 운영도 가능하게 되었다. 모든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있어 대학연맹에도 가입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선수의 많은 수가 대학선수들이 차지하고 있어 대학연맹의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 같고 여대생의 활동범위도 넓어져야겠다. 학교내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여 더 많은 수의 학생에게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켜야겠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체육주간 행사때 태권도에 필요한 장비전시회를 갖는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으로 여대생인구의 저변확대와 인식에 많은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이제까지 태권도부를 키워주신 지도교수님과 가르쳐주신 김영숙 사범님, 선배언니, 태권도부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는 부원 여러분께 감사사를 드리고 싶다.



# 교양 응접실

〈영 화〉

## 마지막 겨울

作家 金秀賢씨는 방송드라마로 데뷔한 女流 극작가이다. 섬세한 필치와 감각적인 묘사에 뛰어난 金秀賢씨는 우리 주변의 가벼운 이야기에 서부터 人間心理의 갈등을 가장 적나라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줄을 안다.

「내가 버린 女子」라는 영화로 호응을 맞춘 鄭素影 감독과 함께 男女의 사랑이 그리는 곡선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다.

대학시절에 나누는 세 사람의 우정, 민우(이영하扮), 시형(김 동원扮), 소희(유 지인扮) 세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묘한 애정, 캠퍼스생활의 색채질은 낭만과 진실한 우정과 사랑이 빠른 컷트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부각된다.

소희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갑정의 선이 굵은 남자 시형에게 변함없는 우정을 바라면서, 선이가늘고 연약하며 외로운 민우를 택한다. 시형은 호탕한 웃음과 과장된 연기로 스스로의 아픔을 감추고 소희와 민우의 결혼을 축복하며 소희의 웨딩드레스를 사준다.

“내가 정말 잘 생각한거야. 만약 내가 시형을 택했다면 민우는 나와 함께 내 웨딩드레스를 사주지는 못했을 거야. 난 육십장이거든.”

그러나 민우는 결혼을 앞두고 외국취재기자로 파견, 5개월의 공백기를 갖게 된다. 그리고 시형은 곧 민우의 실종을 알게 되고 아파하는 소희의 곁에서 소희를 단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절감한다. 그때 이미 소희는 민우의 아기를 갖고 있었다.

소희를 않는다. 마지막 겨울의 사랑을 않는다.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민우의 실종소식을 듣고 소희는 잃어버린 사랑의 꿈을 않는다. 환상을 않는다. 젊음을 않는다.

시형은 소희와의 결혼을 결심. 소희와 민우의 아기가 사생아이어서는 안되고, 또 소희가 다만 외로운 女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다. 시형은 변함없이 소희를 사랑하고 결혼한다.

안락한 결혼생활. 딸 해란은 영악스럽고 착하고 예쁘게 자란다.

그때, 민우의 출현이 이들의 생활에 파문을 던진다. 그는 살아있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시한부를 살고있다. 민우는 그의 딸 해련(윤 유선扮)을 만나길 원하며 2달 밖에는 더 살 수 없는 자기의 마지막 사랑을 해련에게 쏟는다. 단 1주일동안—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 친구의 진짜 아빠가 있는데, 그아이는 다 알고 있대요. 뭐든지 다 안대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 아이에게 사실을 얘기해 주지 않아서 미칠지경이래요. 그아이는 자기의 진짜 아빠를 따라서 어디고 잘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는대요.”

“그 아이에게 아저씨의 말을 전해 주렴 어른들이 얘기해 주지 않는 것은 그 아이가 알고 있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맑고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주기만을 바래기 때문이지. 모르는게 하는게 좋을거라고 해련이가 대신 전해주렴.”

“그래도 그 아이는 마음이 아프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딸 해련과 아저씨와 친구의 딸이타는 관계를 유지하여 마음으로 서로 서로 아파한다.

“그애의 아빠는 얼마나 피로울까요. 아저씨는 웃을 때도 쓸쓸해 보여요. 날 바라보는 눈빛이 우리 아빠하고 비슷해요.”

헤련과 1주일의 생활을 보내고 민우는 떠난다.  
“살고 싶습니다. 정말 살고 싶어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살려 주세요요.”

민우는 절규한다.

김포공항. 민우와 소희는 눈으로 인사를 하고 헤련과 악수를 하며 뒤돌아 선다. “아저씨 오래 오래 사셔야 해요. 날 위해서도....” 울먹이던 헤련은 걸어가는 민우를 향해 소리친다.

“아빠.”

민우와 헤련은 서로 달린다. 서로 안는다. 민우의 가슴에서 헤련은 안타깝게 흐느낀다. 슬로우비디오로 잡히는 부녀의 표정.

이 영화는 카메라 영상의 기술이 뛰어나다.

한 컷트 한 컷트가 빠른 템포로 전개되고 그 배경에 흐르는 영상美가 감각적이다. 다만 영상을 위한 촬영인듯한 작각이 드는게 흠이라면 흠. 때로 줄거리전개에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았다. 청춘 그 흔들거리는 水平위에 남은 최후의 아픈 이이름 사랑. 한 love story가 한국적인 현실속에 자리잡아 관중의 가슴을 흔들리게 하고, 공감하게 한다. 멜러물 영화가 빠지기 쉬운 어떤 신과 조의 하소연을 벗어나 슬프면서도 경쾌하고, 아프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人間美를 보여준다. 모두가 한번쯤 앓는 사랑 이라는 것에 얼마만큼의 이야기와 곡선이 간직되는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지만....

—편지실—

## 〈路上 인터뷰〉

Q: 안녕하십니까? 태권도협회에서 나왔는데, 몇 말씀 여쭙봐도 좋겠습니까?

(서울운동장 야구장 3루서 2층 스탠드에서 옆에 앉아있던 남학생에게 路上인터뷰의 마이크를 주었다. 마지막 야구시즌을 무슨 생애의 마지막쯤으로 알았는지, 옆에 앉은 학생, 말이 아니었다. 온갖 감탄사를 써가며 안타까워 했다. 비란간 일어나서 학교구호를 외치고, 숨겨가지고 들어온 술을 훌쩍 마시고, 야구선수들을 자기집 막내동생처럼 부르며 잘해 그러기도하고 영 시끄러워서 같이 앉았기가 고역이었다. 그런 야구광은 태권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목이 터져라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불었다.)

A: 네 안녕하십니다. 덕분에 그랜데 어디서 오셨다구요. 북경에서?

Q: 태권입니다.

A: 아주 좋은 거 하십니다.

Q: 그렇게 생각해주시니 고맙군요. 태권도 해보셨어요.

A: 네 고등학교 다닐때 었죠 이소용이 흥내밀까? 하고 시작했는데 어렵네요. 그제 막 갈아신 한국 최고의 매력적인 남성이 곧 될 것 같았죠. 의리있고 날쌔고, 낭만도 있고, 용감한 남자말예요. 도장에 다니면서 한달동안 기본동작만 배우다가 그

런 꿈은 사라졌습니다.

(본 기자가 보기에 그 학생의 외모는 안경끼고 운동화신고 약간 구부정한 허리에 키가 작아, 여간 맘쓸름이가 크지 않은 눈에 펴 칠 싶지 않은 평범한 인상이 있다)

Q: 배워보셨더니 말씀드리겠는데 태권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뭐라고 보십니까?

A: 정신이더군요. 그리고 작실히 실력을 쌓아 뛰어난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또 그만큼 인간적인 성숙미도 지니게 마련이지만 말입니다. 국기(國技)와 민족정신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겠어요? 저처럼 동키호테적인 단순한 영웅심리로 시작했다단 큰코 다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권도는 다른 스포츠처럼 반복되는 연습이라고 하지않고 수련과정이라고 그 운동하는 과정을 부르지 않아요. 거기엔 마음과 몸이 포함되는 거죠.

Q: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양이요?

A: 미칩니다. 흥분땀다를 내가 쥐고 있는 기본이예요.

Q: 그럼 열심히 앉아서 훈련 날리시고, 조금 조용히 관전해 주시겠어요?

A: 해해 그럴까요.

(안경알 너머로 아직 맑은 눈이 반짝빛났다)



## 거 리 병

林 山 影

불면조차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그대라고 모든 것을 부른다.  
현웃인 그대, 라디오인 그대  
영커버린 털실인 그대.  
꽤없이 자고 깨는 모래 그대들.  
나는 한밤중에 일어나  
잠든 그대들 위에 전등불을 밝히고  
흔들어 깨운다.

깨어있어라. 내가 눈뜨고 있는 동안—  
깨어있어라. 내가 고요해질 때까지—  
듣는 그대도 대답하는 그대도 닥아오는 그대도  
없이, 나는 혼자 듣고, 대답하며 다가간다.  
나의 그대들은  
그대의 그대일 수 있는 나를 잊고  
얼룩투성이인 벽의 사방으로 엮드려있다.



## 독자문예

그대들의 불균형함으로  
내가 혼돈속으로 쓰러질 때.  
활활활  
그대가 사라진대도  
우리는 메시지의 내용을 잃을 수 없다.  
따듯해라 그대, 시계의 가는 음향.  
웃어라 그대. 내 호흡의 기하학.  
결코 움직일 줄 모르는 견고한 그대의 침묵에

나는 이윽고 잠을 터득한다.  
잠든 그대들.  
깊이 잠들어서 깨지 말아라.  
아무리 불려도 달아날 물줄기 위에  
내게서 달아날 나를 띄우는  
그런 소심한 침묵이 오늘은 모든 나의 그대이다.



## 햇 병아리

여수여자중학교 2年  
김 옥 회

저는 이제 8급인 햇병아리입니다.  
어려서부터 운동에 취미가 있어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의 강력한 반대로 운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운동을 한답니다.

저의 엄마는 연세가 53세, 그렇기 때문에 다른엄마들 보다 완고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 부터 운동을 한다고 메를 썼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여자가 무슨 태권도를 하냐고 강력히 반대를 했죠.

그러던 중 5학년때 우연히 은필이라는 사범오빠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배워야지 하는 마음이 굳어졌던 것입니다.

엄마는 한번 안한다면 꼭 하지 않는 성격이시라, 말은 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운동을 해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달 전 은필이 오빠가 우리집에 찾아와 엄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젊은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요즘 현대생활에 물이들었나보죠, 그래도 엄마는 예전에 강력히 반대를 했는데, 지금와서 허락을 하면 엄마 체면이 말이 아닐것 같아서인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집안 형편이 닿는대로 운동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족을 느끼면서 인자하신 관장님과 사범님, 여러 선배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류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것입니다.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 작은 불꽃



청아(清雅)한 너희들의 모습은  
태양(太陽)이 성큼 서산에 내려설 때  
둥지가 멀고 멀어 쉬어 가려는  
학의 무리  
흰 빛 더욱 밝고 순결히 간직하여라.  
몸도 마음도 회개 밝혀라.

온 누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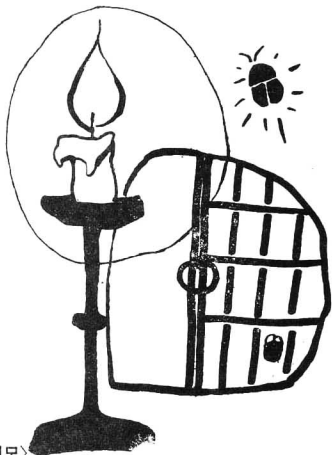
어두움이 오지 않도록  
하얀 너의 자태, 너의 정성으로  
훗날 밝혀진 불꽃 오래토록 간직할 때  
너희로 향하는 보람.

오늘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너희들의 비상을 밝혀 왔으니  
보다 더한 소망이 있겠는가.  
한껏 태워 밝히려라.  
저

높고 푸른 창공에  
너희의 순결한 날개짓이  
힘차게 날아오를 때까지

金 中 浩



〈詩作메모〉

1976년 가을 어느날 오후 유년부 어린이들의 정서 생활을 돕기 위하여 가까운 인왕산에 소풍을 갔었다.

간단한 야의 수면과 즐거운 오후 한때를 즐기고 해 질 무렵 기념촬영을 할 때, 하얀 도복차림의 어린이들이 그토록 티없이 밝고 밝고 순결해 보일 수가 없었다. 모여앉은 천진스런 모습들을 대할 때, 마치 학의 무리들이 내려앉아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수신제가후 치국평천하(修身齊家後 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새삼 생가난다. 어린 그들이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닦고 자라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온 정성을 다해 그들의 걸음마부터 지도해 온 터인데 영원히 그들을 밝혀줄 등불이 되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스스로를 채찍질 해본다.

세계태권도연맹 국제집관  
대한 태권도협회 편집분과위원  
경복체육관 관장

新名. 조 동

수필

# 찬바람과 풍선

이문영 (숙대·국문 3)

부쩍 따뜻한 Coffee가 생각나는 계절이다. 부쩍 노오란 은행잎이 생각나는 계절이다. 그리고 원일인지 부쩍 혼자인 계절이다.

실어증(失語症)이라는 단어가 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뇌의 언어중추에 병이 생겨서 말을 잘 못하는 병.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감각성 실어증 등이라고 쓰여있다.

그런데 잔혹 나는 내가 전혀 회복할 수 없는 실어증에 걸린 착각에 빠진다. 뇌뿐만이 아니라 몸의 기능이 그만 마비되고 마는 것 같다.

그것은 꼭 찬바람이 불어올 즈음, 피부의 싸늘한 수축 현상이 있을때 내게 찾아오는 증상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르시스트, 그리고 누구나 페시미스트 또한 자학환자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다 앓고 있는 도취중이고 엄세고 자학이어서 딱히 病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이것은 肉身의 病보다 치명적인 아픔을 갖게 한다. 그저 사춘기쯤에 어드름 벗게 돌아나는 기분으로 고독이라는 것을 일기장 속에 꼭꼭 써넣곤 했지만 이제는 깊은 늪과 같은 고독이라는 것이 벗어버릴 수 없는 명에로 다가온다.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어가는 生命. 個人的인 모든 어려움은 스스로 짊어질 수 밖에 없는 고립. 아무리 가까워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대적인 벽. 두드려도 두드려도 치유되지 못하는 이러한 감정을 절감하면서 우리는 문득 나이를 생각한다. 그렇지 우리는 유년기에서 떠난 새(鳥)인 것이다. 스물하고도 손가락 서너개를 더 꼽아야 하는 지난 세월이 우리의 성장을 도우면서 동시에 우리를 벽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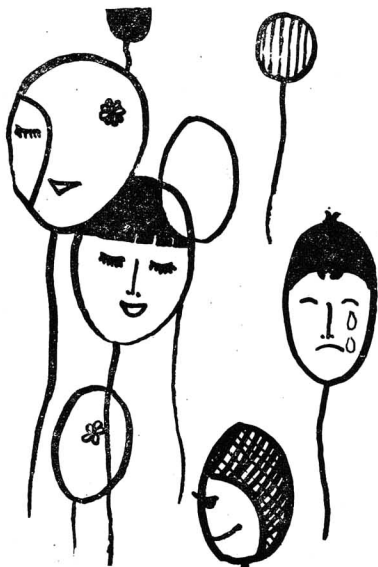
쌓는 사람들로 만든 것이다. 전혀 모르던 일들, 더러움, 속임수, 사교적인 술수 뒤에 숨겨진 악의, 生活이 남기는 모든 오류, 추함, 비열함, 現實적인 안정을 갖기 위해 다만 재물의 노예가 되는 과정 자로 재고 저울로 다는 사람, 탈선. 우리는 눈을 뜨고 있었다. 이 모든 현장에서 숨쉬기 위해 더 훌륭한 치세자가 될 수는 없을까 하고.... 나와 세상을 견주어 보고, 나와 내 친구를 비교하고, 그리고, 나와 내가 진실로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우월에 도취하고 우리의 열등에 자학하고 급기야 공수대 공수거의 이론을 들먹이는 허무주의로 떨어지고 만다.

수없이 보아오고 겪어온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는 가을이 올 때에 실어증을 앓는다.

누구와도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없다. 도대체 무슨 말로 우리를 중요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언제라도 알 수는 없는 他人(타인)의 他人들과 어떤 우애의 진실로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나를 떠나면 無意味해지는 언어들을 허공에 흩뿌리고 말면 그후의 공허는 무엇으로 메꿀 것인가.

나는 점점 비어간다. 말끔히 비워지는 유리잔 처럼 비어간다. 바람이 투명하게 출렁거린다.

그리고 비누방울이 햇빛에 반짝 부서지는 순간을, 민둥산 언덕위에서 높이 높이 띄워 날리던 그 유색찬란한 종이연이 줄이 끊어진 채로 사라져 버리던 순간을, 그리하여 빈 비눗그릇, 빈 실타래를 들고 배꽃은 얼굴로 뒤돌아 오던 유연의 헤어픔을 생각한다.



“이겨라. 이겨라.”

하얀가루로 그린 줄을 밟고 짙은 청색 팬티를 입은 소년 소녀들이 줄다름치던 운동장에서 우리가 수없이 띄워날리던 그 환상의 고무풍선.

고무풍선 말이다. 빨강고, 파랑고, 노란 풍선들이 웃으며 우리의 손목을 간지럽히고, 날아오르던 운동장에서 아랑곳없이 즐거웠던 기억이 난다. 기억이다.

실어증을 치유할 유일한 기억. 그것은 고무풍선의 빛고운 비상인 것 같다. 싸늘한 이 계절의 아침을 가르고 달려갈 그런 착한 아이들로 우리는 아직 손이 따뜻하다는 생각이 든다.

친구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안녕! 보구싶어. 평강히 보구싶어.”

—숙명여대 국문과 3—

(詩)

## 空間을 가르며

김 건 중

흰 무명옷.

검은 머!

종횡으로 나의 수축은 난무한다.

그 바람결에.

선인(先人)의 슬픈 얘기가 전설로 울고

가슴 뿌듯한 보람이 깃줄로 흐른다.

내 좁은 공간속

나를 묶은

질기디 질긴 삶의 사슬.

어제 오늘을 호흡하며

내춤은 쉬지를 못한다.

어느쯤엔 간

풀기없이 처져 버릴수

흰옷에 검은머를 두루고

공간을 가르고 있다. (1978, 10, 3)

詩作 後記

나는 태권도 사범 10년을 해오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꼈지만 그 가운데서도 비애 비슷한 슬픔이 짝토고 있었다.

보람과 긍지 그리고 비애!

이것들이 뒤 얹힌 내삶을 거부하고 싶지는 않았다.

아주 즐거운 숙명이요 운명이라고 느끼면서 태권도 사범의 인생을 詩로 옮겨본 작업이 바로 “공간을 가르며”이다.

—대호문체육관 관장—

## 뱃고동 소리와 함께

김 두 만

봄— 아침의 고요를 깨는 뱃고동소리. 5시 30분이다. 부두를 떠나는 연락선과 함께 청산의 태권도는 시작된다. 한진이 들어오지 않아 낙도의 새벽녘은 아직도 어둑어둑하다. 태권도를 수련하는 곳은 이곳 도청 2구 사무소. 물론 바닥은 딱딱한 콘크리트이다. 이곳에서 “청산태권”이란 힘차고 우렁찬 기합이 울려 퍼지면 새벽은 멀리 줄달음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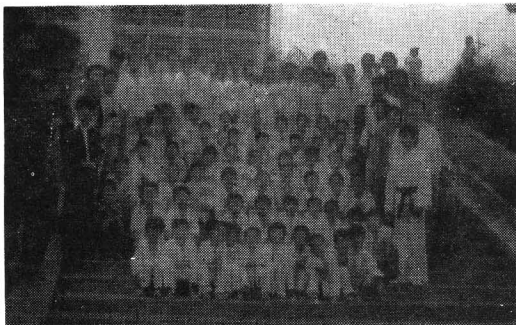
육지와 거리가 먼 이곳 섬에 태권도가 싹트게 된 것은 지난 5월 1일. 벌써 4개월이 지났다. 수련생들의 열의는 대단한 것이어서 만 5세부터 중등부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칠십여명이 넘는 관원생이 국기 태권도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

내 고향 청산에 태권도를 심겠다고 생각한 것은 비단 아래에 기술한 실패작의 결과였다고만 결론짓지 않겠다. 언젠가 제 1의 목표가 성공되면 제 2의 목표는 청산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지난해(77년) 7월 그때까지 나는 서울 걸천동에서 이 관장의 격려와 주선으로 한성체육관이란 태권도장을 운영 했었는데 술한 고난(나는 설움이라 하겠다) 속에서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꿈은 이루어졌지만 교육위원회 인가 문제로 야기된 사건과 타(他) 도장의 간섭과 괴롭힘을 받자, 더 이상 도장을 운영해 나갈 수 없어 남에게 인계할 때 부터다. 이 관장님께는 지금도 죄스런 마음 뿐이고 꿈을 팔아버린 나는 좌절과 방황속에서 삶을 포기하려고 까지했다.

다행히 인선(딸의 이름) 엄마의 끈질긴 설득과 위로에 힘입어 고향 청산으로 내려오기로 했던 것이다.

그때 당시 애엄마의 건강이 매우 나빴기 때문에 휴양할 겸 해서 내려 왔는데 낙도 청산리 실정은 나를 쉬게 하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나는 좀 쉬고 싶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거리엔 먼



서부1회 승급심사를 마치고

지속에서 노는 어린 새싹들과 밤만 되면 술을 마시고 광란하는 과잉된 젊은이들을 보고서 더 이상 침묵만을 지킬수 없었다. 내가 출생한 곳은 동부였기 때문에 동부 어르신네의 권유와 자신 어릴적부터 품어 왔던 제 2의 꿈을 실현시키

고져 25평자리 정미소(방아간) 자리를 얻어 펜홀 바닥에서 처음으로 태권도를 지도했다.

농촌의 어린이나 청장년들은 대단한 반응을 보였다. 10일간 무려 80여명의 수련 지망생이 모였다. 수련생들은 도복비를 마련할 수 없어 입고 있는 그대로 운동을 계속 해야만 했다. 애엄마가 몇명의 수련생은 재봉틀로 해서 맞춰 입혔지만 그 많은 수련생을 당해 낼 수는 없었다. 자신 역시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수련 중에 술취한 취객들의 시비와 횡포는 몇번인가를 두주먹을 불끈 쥐게 했지만 우리와 함께 수련생 모두가 잘 참고 이겨냈다. 그러는 동안 모진 바닷바람과 눈보라가 휘몰아 치던 겨울이 지났고 다시 봄이 왔다. 동부에서 10개월에 걸쳐 모든 수련생에게 1~2급

의 실력을 갖추도록 했고 단 1명(정윤행) 수련생만이 협회 공인 응심품을 광주에서 보게했다. (물론 경제력 때문이다.)

그리고선 현재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서부 지역으로 이사를 오래됐다. 이곳은 동부 보다는 면소재지로서 교육, 경제, 생활면에 있어서 좀 나은 편이다. 지금 수련장으로 쓰고 있는 도청 2구 사무소는 그 면적이 회오실 8평 마당 10평 해서 모두 18평이다. 이곳 유지 및 개발위원 되신 분들의 협조와 2구 청년회의 후원으로 다시금 태권도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본인은 여기에서 하면 된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수련생

전원이 합심하여 뛰고 땀흘리고 노력하자고 다짐하는 것을 보면 호뜻함과 뿌듯함에 청산체육의 앞날은 밝다고 생각한다. 거리엔 그전의 볼때감 보다 명랑하게 웃음 띤 인사와 씩씩하고 활기에 찬 걸음걸이에서 더욱 더.....

끝으로 아쉬움이 있다면 곧 겨울철이 닥아오는때 관원생이 마음놓고 수련할 수 있는 도장과 단련할 수 있는 운동기구등의 마련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청산태권도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기정 청년회 총무님의 우정에 감사드리며 19기 지도자 15기 심판강습 수료생 여러분께 안부 전합니다.

(詩)

## 아우는 촛불을 들고

朴 商 勳

이제  
넘어쳐서도 눈을 부릅뜬  
나의 아우여  
더는 비킬 곳 없는 벼랑을 보고도  
오직하게 선 나의 아우여  
여름날 열병에 흔들리던 나의 아우여  
천천히 흐르는 강가에서  
갑자기 일어나 설 수 있던  
그 큰 눈두덩이여.

너의 부럽게도 큰 가슴에  
녹색 잉크처럼 빨리던 한 때가  
썸바귀처럼 더웁던 한 때가  
저문 저녁에는  
신음도 두고, 아픔의 열병도 버려두고  
늘 일등하는 병사처럼 달려 가버린들  
돌아서서  
이윽고 흐르던  
스물몇 살의 빠듯한 눈물이었던가.

지금은 막노동처럼 눈시울이 붉은 밤.  
풀밭에 엎드린 하얀 소리의 군단을  
두고

월없이 푸르던 청춘은  
함부로 달려가는 바람처럼 지나치자.  
풀밭에 드리누운 실망의 시체를 보고는  
넉넉하게 웃어버리는 바람같은 것  
우리는 바람같은 것.

이때  
아우야  
가진 촛동강에 불을 당겨라  
모두 덮여서 불을 당겨라.  
우리는 얼마나 큰 희망이냐.  
우리는 얼마나 큰 빛을 모을 수 있는 것이냐,  
어두워지는 풍경앞에서도  
유혹을 뒤로 두고 달리는 아우야

어둠은 밤이 아니다  
숨어있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 소년들은 복을 쳐오는때  
촛불을 켜 소년들의 길을 밝혀라.  
노인들은 길을 가르켜 주었으니  
어깨를 부여잡고  
가진 촛동강에 불을 당겨라  
모두 덮여서 불을 당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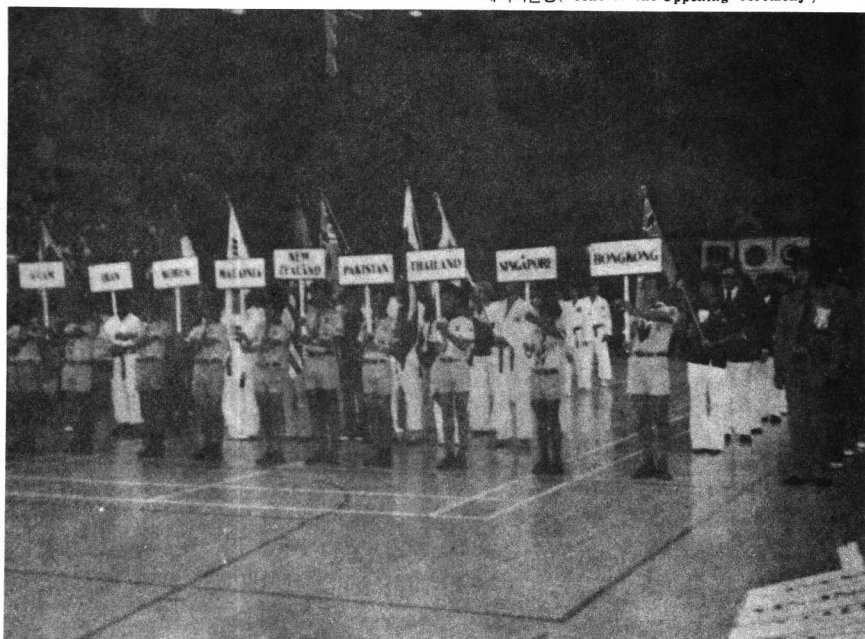
# 제3회 아세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The 3rd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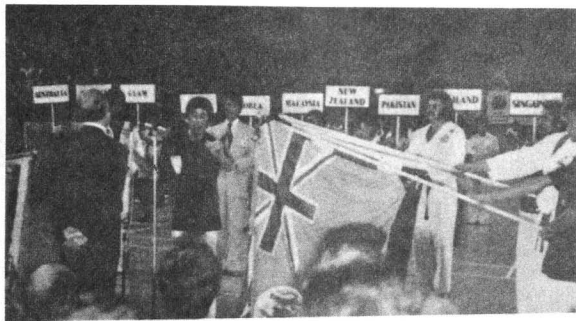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는 김운용 세계태권도 연맹 총재

Congratulatory address is delivered by Dr. Un Yong KIM, President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개회식전경(Scene of the Oppening Ceremony )



정정당당하게 싸울 것을 선언하고  
있는 홍콩선수

(A Hong Kong player takes oath)

한국선수단의 황춘성감독이 우승컵  
을 높이 들어 보이고 있다.

(Korean national team manager  
Choon Seong Hwang raises the  
Championship Tro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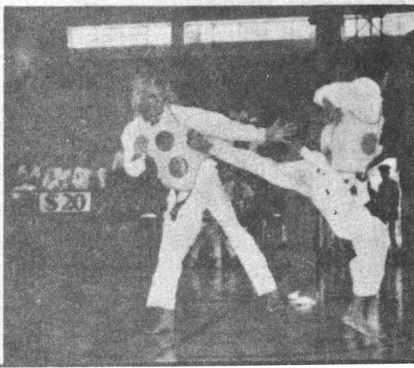
김포공항에 개선회국한 임원 선수단  
(Korean national team at the  
Kimpo Airport upon arriving from  
Hong K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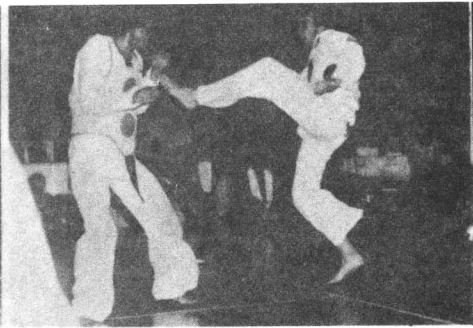




경기장 전경 (General view of the Macpherson stadium in Hong K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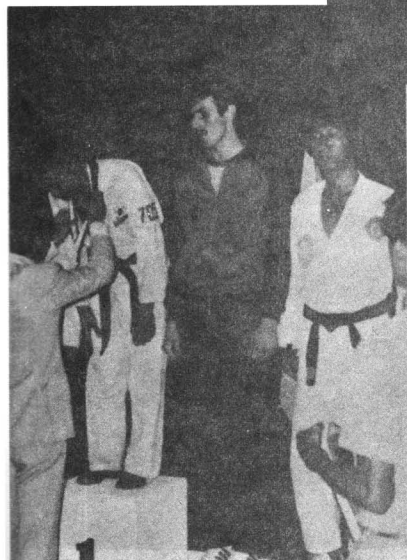
경기스냅 (Competition scene)





푸라이급 입상자들  
한국의 ,하석광선수가 입상자들의 손  
을 잡고 답례하고 있다.

Prize winners of the Fly weight's  
di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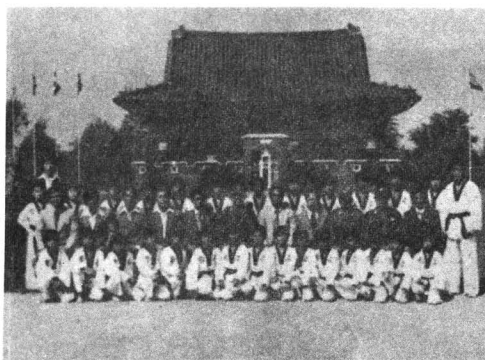
미들급 입상자들의 시상광경  
(한국의 장종태선수가 금메달을 수여  
받고 있다.)

Prize winners of the Middle  
weight's di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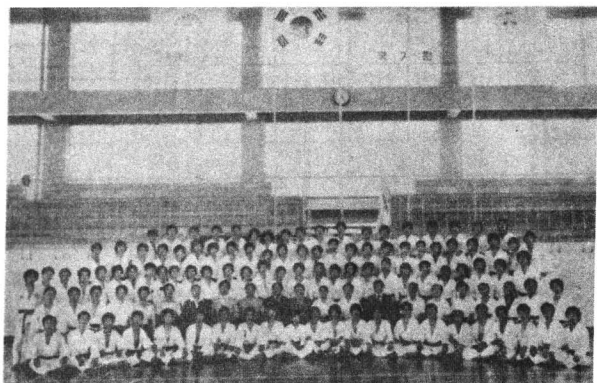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총재를 모시고  
관람대회에 참가한 한국의 사범들  
(W.T.F President Un Yong KIM  
poses with Korean Instructors of  
the PAN AM nations.)

군 7756부대 태권도 유단화 90%  
기념 행사에 참가한 남대문 국민  
어린이 태권도 연무 시범단  
mdaemoon Primary School  
wondo demonstration team  
cipating in the ceremony  
ng 90% group attainment of  
belts by Army unit 7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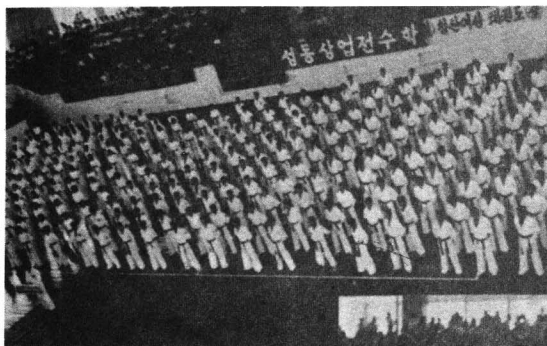


제24기 지도자교육 수료자 기념촬영  
(Graduation ceremony of the 24th  
Instructors training course)



# 全國中·高聯盟跆拳道大會

The 7th Middle and High School Taekwondo Championships



입장식 광경

Scene of the Opening Ceremony

이화여자대학교의 여름학교에 참가한 재미동포 모국방문 학생단의 국기원 방문

(Korean residents in the U.S.A. attending the summer school of the Ehwa Women's University pose with the Namdaemoon Primary school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at the Kukkiwon)



경기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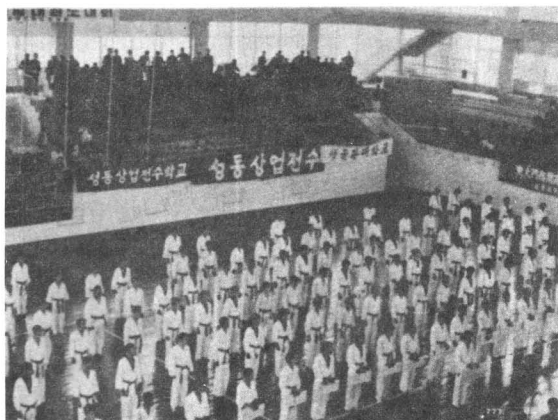
Competition Scene



大統領 下賜旗爭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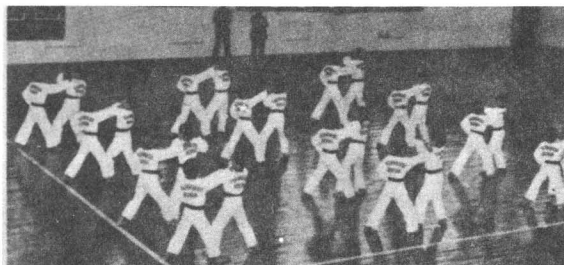
# 第十三回 全國團體對抗 跆拳道大會

The 13th Presidential Flag Taekwondo Champion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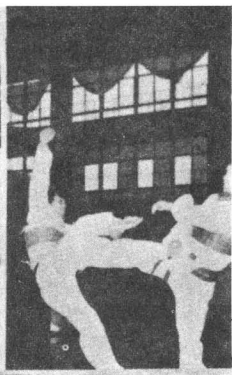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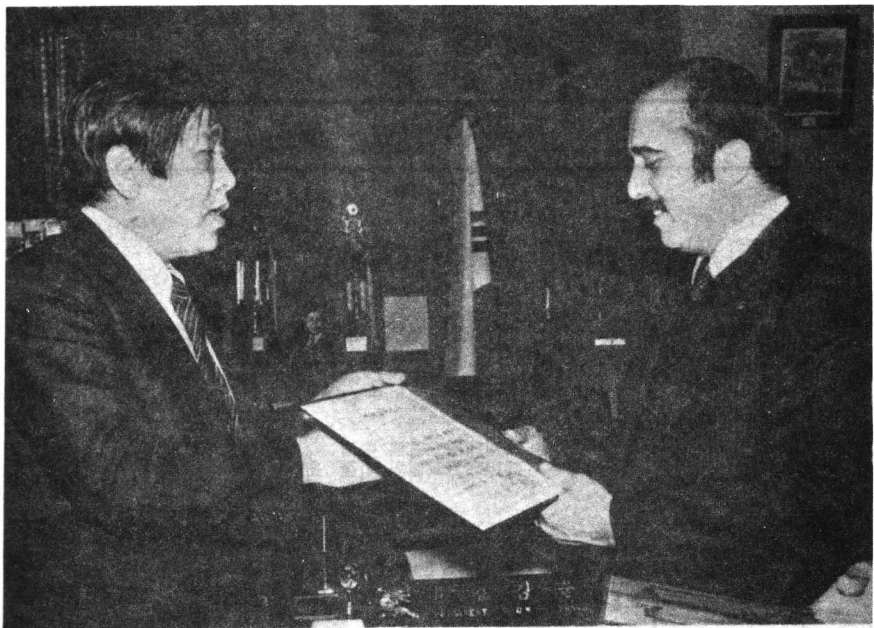
개회식 전경  
(Opening Ceremony of the 13th  
Presidential Flag Taekwondo Cham-  
pionships)

남대문국민학교 어린이태권도 시범  
단의 시범장면  
(Taekwondo demonstration scene  
by Namdaemoon primary school  
team.)



경기스냅  
(Competition scene)





요르단왕국의 빈·탈랄 왕자 국기원을 방문하여 김운용총재로부터 명예회원증을 받고 있다.  
(Prince Mohammed Bin Talal of Jordan, received a Honorary Membership Certificate at Kukkiwon)



구라파 태권도대회 시상식 장면  
1위 독일 2위 스페인 3위 홀란드  
(Scene of awarding a prize ceremony of Europe Taekwondo Championships.)